



MAXIM

KOREA

THE SEXIEST SANTA ON EARTH 강예빈

Smart Sex Guide

에디터 추천 크리스마스 모델 가이드
여심 온통 뒤흔드는 터치 가이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법률 가이드
써도 되는 섹스 토이 가이드

Ultimate Lip Service

편의점 재료로 이태리 셰프 뺨치는 빠네 만들기
이름 야한 작업 칵테일 3종
인스턴트 블랙커피 1등부터 꼴등까지

2013.12.20.FRI
MAXIM
x-mas
Party
@ Club
Syndrome

Hip Hop Legend
이현도

2013년 12월호
정가 5,900원



Rising Star
〈응답하라 1994〉
민도희

Mika Newton
김태희가 받을 간다는
우크라이나의 미녀 가수

Christmas Stuff Special

69

Best Gift of the Year

님 지금 재수 고민?
수능시험 필살신공 제2장
점수 오르는 OMR 카드 마킹 비법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30가지 개 황당한 것

2013
MISS MAXIM
FINAL

이제 둘 남았다!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세계 그 이상의 감동, Royal Eternity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영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46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NC백화점(안산점) 031)436-4279
- *아타일월드(신촌점) 02)313-4108
- *타일 24(일신점) 031)931-5555
- *제이플러스(천안점) 041)564-5465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중문연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중동점) 032)320-7559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해피타임(용산점) 02)2012-0625
- *사론(안양점) 031)463-9788
- *타임타치(대전점) 042)482-2328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롯데백화점(본점) 02)772-3908
- *롯데백화점(청주점) 043)219-9108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NC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패션존(동대문) 02)3398-7527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메가와치(충주점) 043)857-9125
- *타임피아(포항점) 054)253-8865
- *롯데백화점(강실점) 02)2143-1922
- *롯데백화점(광주점) 062)221-1573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NC백화점(해운대) 051)709-5741
- *타임갤러리(동대문) 02)3398-5528
- *탑타일(안산점) 031)413-7656
- *골드케니언(광주점) 062)714-1121
- *조이빌(포항점) 054)613-1170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256-3191
- *신세계백화점(센텀점) 051)745-2297
- *다큐브시티(신도림) 02)2211-0149
- *타임머신(동대문) 02)6388-2927
- *뉴로아일랜드(부천점) 032)624-8337
- *파메(광주점) 062-383-9930
- *모다(안산점) 055)911-7111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164-6191
- *롯데백화점(상원점) 055)279-3192
- *현대백화점(중동점) 032)623-2181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윌타일(왕산리) 02)2200-1355
- *복록(부천점) 032)662-2026
- *골드룩(광주점) 062)410-0137
- *롯데MALL(김해점) 055)900-2690



Swiss made
Super luminova
5030D Chronograph
Unidirectional turning bezel

MODERNO 301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91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워치 룩(노원점) 070)4136-5090
*백 끼 룩(부천점) 032)662-0686
*롯데MALL(광주점) 062)606-2719
*타 임 북(부산점) 051)919-4704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타 임 린(인천점) 070)7516-4545
*틱 톡(군산점) 063)443-0090
*엘 가(부산점) 070)7569-5766

*롯데백화점(안양점) 02)842-7706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087
*AK백화점(평택점) 031)646-6139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TM시계백화점(신도림) 02)2111-1120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진 보 석(순천점) 061)725-3849
*티 아 라(제주점) 064)745-3008

*롯데백화점(김포점) 02)6116-3176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4191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e-watch(명동점) 02)771-7033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보보스와치(청주점) 043)235-1510
*엘 가(구미점) 054)451-6940

*롯데백화점(분당점) 031)738-2140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198
*NC백화점(불광점) 02)350-8979
*정우상사(종로점) 02)2272-2688
*W MALL(구로점) 02)2081-0921
*타임 21(청주점) 043)224-8851
*엘 가(대구점) 053)255-6940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5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NC백화점(송파점) 02)2157-5213
*와 와 치(광남점) 02)537-8977
*타임 21(광진점) 02)3424-0793
*북 와 치(청주점) 043)223-1333
*삼 성 사(대구점) 053)422-3002

Contents

DECEMBER / 2013

87 Cover 강예빈

올 게 왔다. 그녀가 MAXIM을 위해
섹시 산타로 돌아왔다!
작년 10월, 할로윈 파티 복장으로
우릴 미치게 만들더니 역시 명불허전
강예빈일세!
올해 유독 스캔들이 많았던 그녀가
솔직하게 털어놓는 남자 이야기와 올
크리스마스 계획에 귀가 솔깃해진다!
예쁘게 웃으며 “산타가 애인을 선물로
주면 기쁘게 받겠다”는 그녀를 위해
오늘부터 열심히 소원을 빌자.
산타 할아버지, 올해 제 소원은
예빈씨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녀가 요즘 꽃힌 남자는
누구일까?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하라.

구두 슈즈원



올 겨울, **더** 곤지암이라 **즐겁다!**

서울에서 40분만에 펼쳐지는 설원, 기다리지 않아 더 즐거운 시간제 RFD 리프트권 미타임패스 & 미타임V
 곤지암스키장이라서 가능한 즐거움

For Safe, For Well, For Fun, For You & Your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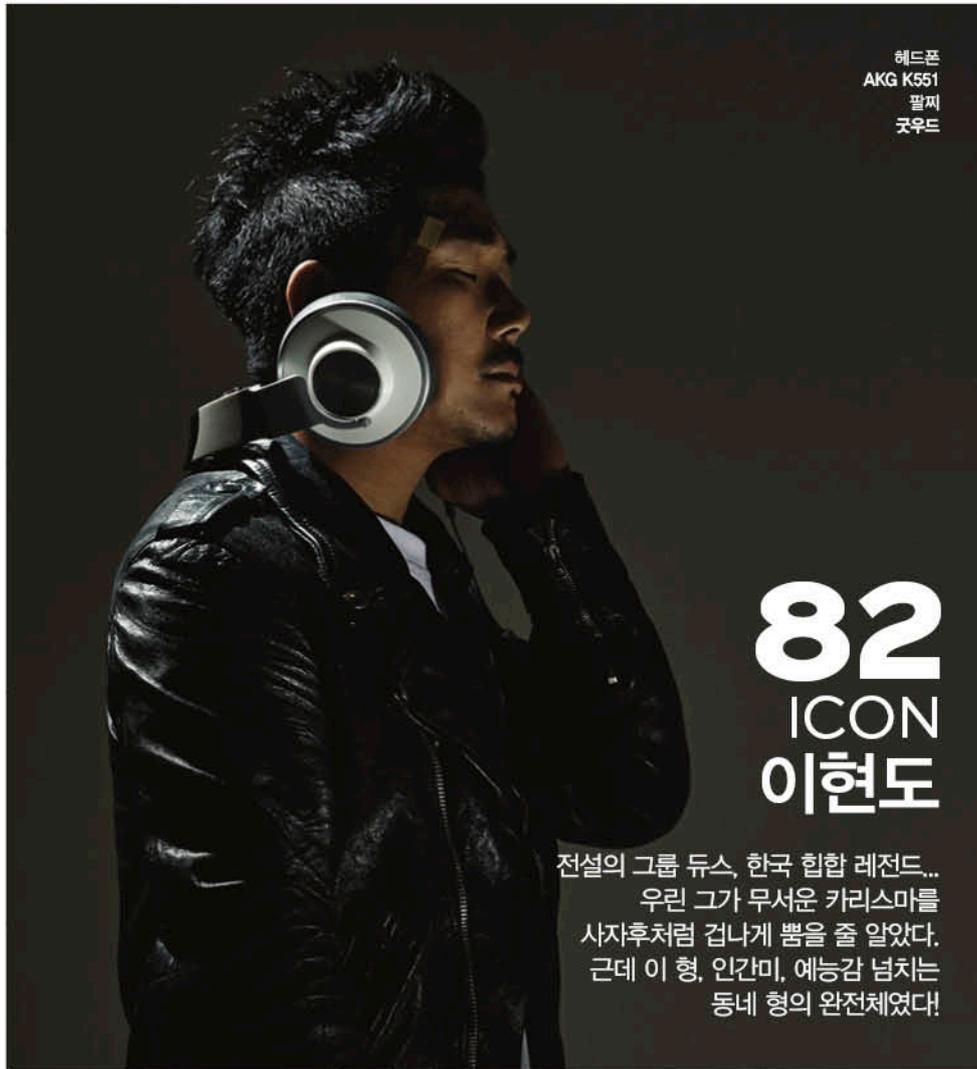


2013 - 2014
 Winter season
 곤지암리조트



KONJIAM
 RESORT

Contents



헤드폰
AKG K551
팔찌
굿우드

82 ICON 이현도

전설의 그룹 듀스, 한국 힙합 레전드...
우린 그가 무서운 카리스마를
사자후처럼 겁나게 뿜을 줄 알았다.
근데 이 형, 인간미, 예능감 넘치는
동네 형의 완전체였다!



70



96

Circus Maximus

- 22 사상 최대 규모의 곰 발바닥 밀수 사건
- 24 추울 땐 왜 젓꼭지가 딱딱해질까?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신체 사인 해독
- 26 크리스마스 명칭이 열린
- 28 한중일 연기 회 대결
- 30 <마세티 킬즈>의 무자비한 살인병기
대니 트레조가 죽을 앞에서 남긴 말
- 32 굽시니스트 카툰: 리얼 기황후 이야기

How To

- 34 전화 잘 걸고 잘 받는 법
- 36 식빵 빼내 만드는 법
- 38 폭죽으로 펜 폭탄 만들기

Smoke&Drink

- 40 이달의 맥주:
영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
- 42 카누, 루카, 수프리모 크레마...
인스턴트 블랙 커피, 1등과 골등은 누구?
- 43 이름부터 너무 아한 칵테일 제조법
- 44 연기 뿜다 실소 뿜는
이달의 황당 코믹 담배 너우스

From US Maxim

- 46 미녀 명산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미스 우크라이나 진 찍고,
가수로 데뷔한 미카 뉴튼의 섹시 화보

Game

- 48 이달의 캐릭터: <검은 시막> 레인저
- 50 극한 쾌감! 대리 만족!
모바일로 즐기는 인체 상해 게임 4선
- 51 게임 카툰: 게임이 마약류로 지정된다?
- 52 요즘 잘나간다는 신작 게임 프리뷰

Comment

- 54 <친구 2>가 수컷을 자극하는 방법
- 56 동서양 준비의 불꽃 튀는 대결:
<워킹 데드> vs. <아이 엠 어 히어로>
- 58 피비린내 싹 뻗 킬러 소설
- 60 19금 예능 <마녀사냥>이 뜬 이유는?

Sex

- 61 에디터 추천! 크리스마스에
가면 좋은 모델 원백 가이드

Stuff

- 64 이달의 기어: 아이패드 미니 2세대
- 66 디테일 찌는 커스텀 레고의 세계
- 68 간지의 불씨를 켜려! 멋진 라이터 9개

Motor

- 69 이달의 자동차: 닛산 주크
- 70 This is My Car! 자동차 튜닝 업체
시장 독자님의 애마, 포드 머스탱



공식 수입원: 성원 02-3445-4603

직영매장	031-695-1277	대리점	
신세개백화점 경기점		진경사(중로)	02-745-0333
신세개백화점 충청점	041-640-5082	오성애스앤씨	02-408-8626
신세개백화점 센텀시티점	051-475-2297		

KENNETH COLE NEW YORK

Contents



104 Rising Star 민도희

〈응답하라 1994〉 속 대세 소녀
도희의 우윳빛 피부,
자그마한 발... 아아 어쩐지
나쁜 마음 들잖아!



150



166



66



138



50

Motor

74 A to Z: F1에 관한 거의 모든 것
76 Girl Talk: 링컨 MKZ를 타는 남자

Music

96 〈슈스케〉는 끝나도 유쾌한 밴드
덕평스는 견재하다!

Maxim Report

100 에디터의 알바 체험기:
홍대 앞에서 군밤 팔기 대실패!

30 Deadliest Things

112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위험한 것 30가지

Touch

118 당신의 스킨십에 반응하는 그녀의
진짜 속내를 터치 심리학으로 알아 본다.

Law & Order

124 변호사 에디터가 알려주는
성매매 특별법의 진실

수능 필살 신공

129 점수 무조건 오르는 비급
제2장: 시간 배분과 OMR 카드 작성 비법

Fight

134 최강 파이터 13인으로 조합한
MMA 최종 병기의 위력은?

Miss Maxim Contest

138 최후의 2인 이아영과 김소희가
수감과 채찍을 들었다. 뭐 하려고?

Military

146 무기 만들 참고가 활짝 열렸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tyle

150 남자의 겨울 작업 필살 아이템 16선
152 캠퍼스 패션 대결: 이대 vs. 숙대

Best X-mas Gift 69

156 올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연말 특집! MAXIM 편집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69가지

Party

166 섹시 코스프레녀로 꼭 찬
Zippo Night X MAXIM 할로윈 파티 현장

Unpicked

175 찍었는데 왜 쓰질 못하니?
편집부가 그 사진을 못 쓴 이유

2014

TONIGHT

MILLER NEW YEAR'S EVE PARTY

IT'S *Miller* TIME.

WWW.MILLERCO.KR



DJ KOO



GREAT PARK



SORO

2014 MILLER COUNTDOWN PARTY

WHEN | 2013.12.31(TUE) 21:00

WHERE | **BLUE SQUARE** YONGSAN-GU, ITAEWON-RO 294 3F

LINE UP | **GREAT PARK** 박명수 / **DJ KOO** 구준엽 / **SORO** 하우스물즈 / **Hwayoung** 화영 / **DJ Tata**

DRESS CODE | BLACK & GOLD

COVER FEE | 30,000 KRW / 250,000 KRW_VIP

TICKET | 인터넷 온라인 예매_11월 말 / 당일 현장 구매

AFTER PARTY | **PAWN VIII Lounge**. ITAEWON_02:00 am

No Minors Allowed

For More Information

- www.miller.co.kr
- blog.naver.com/blogmiller
- facebook.com/millerkorea
- me2day.net/miller2day
- twitter.com/its_miller

Sponsored by



경고: 자칫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Bekas Bell



Butterfly on your wrist



베카인벨 | www.bekasbell.co.kr | 02.3397.7100
(주)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 하이힐 (02-2136-9743)
[판매점]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051-678-4191) / 대구백화점 (053-422-3191) / 친철사 (02-745-0333) / 시몬주얼리 (031-463-9788)
[연세점] 제주 중문연세점 (064-780-7671)



기노코퍼레이션 공식 쇼핑몰 유포타임 www.eurotime.kr

MAXIM

www.maximkorea.net

편집장 이영비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에디터 김희성 대리/ 팀장
박정욱 사원

편집 2팀
디자이너 서운정 주임/ 팀장
김려은 인턴
이상윤 인턴
임지호 인턴

편집 3팀
에디터 조용재 주임/ 팀장
김소윤 사원

편집 4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 팀장
김세형 사원

편집 5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에디터 김진욱
정재식 사원
뷰티 에디터 장혜민 사원
영상 에디터 김상수 사원

객원 에디터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엑스포츠> 기자 김덕중
<마이데일리> 스포츠팀 기자 강산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대영
카툰 작가 공시니스트
카툰 작가 onesound
번역사 Devil's Advocate

교열 신선경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과

재무 회계 최인영 과장
법무 방인식 대리
인사 장선영 주임
유통 안재만 사원
정광석 사원
비서 정석영 사원

Marketing / 마케팅과

광고마케팅 김진욱 과장
정재식 사원
박상준 인턴
손 호 인턴

Web & Mobile Service / 웹 모바일

토크 서정민 팀장 남원규 팀장

Photography / 사진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호 실장
오준섭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이용관 대표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재수

MAXIM Korea 발행인 / CEO 유승민

MAXIM Contact

독자 Q&A / 일반 문의 www.maximkorea.net 접속
상단 BOARD 메뉴 ▶ Q&A 게시판 이용
partner@maximkorea.net
광고 문의 / 사업 제휴 TEL. 070-4010-8994
joy@maximkorea.net
정기 구독 / 대량 구매 TEL. 02-323-1182

MAXIM에 귀사의 브랜드 및 이벤트, 인물과 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편집부 대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취재 문의 및 화보, 협찬: press@maximkorea.net / 영화사, 공연 홍보: movie@maximkorea.net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3년 12월호 통권 제44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PRESIDENT: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USTRALIA
Santi Pintado

AUSTRIA
Boris Etter

BULGARIA
Hristo Zapryanov

CZECH REPUBLIC
Jan Stepanek

GERMANY
Boris Etter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ITALY
Paolo Gelmi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RUSSIA
Sasha Malenkov

SERBIA
Dragan Otašević

SOUTH KOREA
Young-Bee Lee

SWITZERLAND
Boris Etter

THAILAND
Surawong Krueafan

UKRAINE
Sasha Malenkov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널 위해 **2장** 짚이야!



말..말..

아이딘 포르테 군

스냅온야

Park seol hwa
 2013
 Song Jinwon
 09/16
 icover



icover IDIN & IDIN FORTE & SNAP ON series



키스해링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된

iPhone5C 케이스 시리즈!

아이커버의 반투명 케이스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아이딘 포르테: 하드커버 + 소프트실리콘, 카드2장 수납가능

www.icover.kr



Idin-forte ▶



Letter From MAXIM

첫눈, 겨울, 선물

방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 눈이다." "결국 첫눈이!" "그러게 눈이 오네요." 어디선가 구석에 처박혀 쪽잠을 자던 놈도 그 소릴 듣고 기어 나와 구경한다. 정신이 온통 모니터, 키보드, 시계에 팔려있던 마감 직전의 에디터와 디자이너들이 고개를 든다. 마감의 주화입마(走火入魔), 말 그대로 '불이 달리고 악마가 들어오는 상태'에 빠져있던 나도 직원들과 함께 한참을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첫눈의 약속이나 고백 같은 낭만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해의 첫눈을 보면 마음이 일렁인다. 저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뽕이란 걸 알면서도 첫눈의 하늘거리는 고운 자태에 어김없이 설렌다. 이를 어찌나. 마음이 간지럽다.

준비도 못했는데 이렇게 겨울이 왔다. 꺼내놓은 가을 옷들을 채 입지도 못했다. 지난주부터 겨울 잠바를 입고 출근을 한다. 찬바람에 이가 시린 아침, 입에서 나오는 하얀 김이 출근길 서울 공기 속에 섞이는 걸 보며 겨울을 실감한다. 회사에 와서 조종재 에디터를 불러 그가 이번 호에 담당할 연말 특집 '크리스마스 선물 69선(p.156)'에 대해 회의하다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 블루투스 스피커 보자마자 갖고 싶었는데, 리스트에 있네!" "그쵸. 이쁘죠. 전 이 스마트폰용 렌즈 사고 싶어요. 편할 거 같아요. 그거 보셨어요? <진격의 거인> 가면도 웃겨요. 참, 전에 <진격> 초대형 거인 피규어 세트 사신다면서요?" "아직 안 샀어. 내가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살 거야. 벽이랑 같이 있는 거. 흐흐흐. 풀세트를 갖춰야지." 그리고 '이걸 지른다', '저걸 지른다' 하며 수다 삼매경에 빠진다.

연말연시엔 이렇게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을 골라 지르는 게 큰 낙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송년 선물, 새해 선물, 음력설 선물... 이렇게 명분을 달아서 다 챙긴다. 이맘때는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에게 자기 자신이 가장 대견하고, 제일 고마운 존재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퍼준다. 외롭고 괴로운 일이 유독 많았던 나의 2013년, 두 다리로 버티느라 육박다며.

그동안 쌓인 행복한 겨울 추억은 많지만, 눈이 쏟아지는 겨울밤엔 2000년 크리스마스가 생각난다. 함박눈이 하늘에서 내리는지 땅에서 솟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신없이 쏟아지던 한밤중,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눈이 발목 위로 쌓이는 줄도 모르고 한 자리에서 서서 동감내기 남자 친구와 애길 나누던 기억. 그 친구도 기억하려나? 자리를 뜨기 전에 우리 서로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았다. 나는 백화점을 몇 바퀴를 돌고 또 돌다가 고민 끝에 산 야구 모자와 목도리를 그 애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좋게 말하면 예측 불가능한 미래적인 느낌의 니트 모자와 장갑을 선물로 받았다. 그 모자가 얼마나 개성 있냐면... 쟁구 과자처럼 위가 뿔 뿔하고, 그 윗구멍은 끈으로 조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평소엔 머리수건처럼 썼었다가 끈으로 조이면 배 포장재를 머리에 뒤집어쓴 것 같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게다가 내 고무잡잡한 피부색과 징그럽게 안 어울리는 베이지 컬러. 그런데도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약 뺀 사람처럼 말이다. "와, 이거... 머리가 숨 쉴 수 있는 디자인이네. 유니크하대! 고마워. 최고야!"

갖고 싶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지금과, 갖고 싶거나 필요하지 않은 예상 밖의 선물을 받은 그해 겨울밤. 가격으로나, 쓰임새로나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분명 '물건으로서의 가치'는 높다.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엄마가 나 모자가 질 어울린대", "오르골 소리 진짜 예쁘지?", "나도 <카우보이 비밥> 좋아해!" 등의 말을 기억했다가 고민해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엔 애뜻함이 있다. 그 독특한 모자(쓰고 나간 적은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예쁘게 연주하는 작은 오르골, 사노 요코의 동화책 <백만 번을 산 고양이>*... 예상치 못한 첫눈을 만날 때의 울렁거림처럼, 값을 따질 수 없는 마음씀씀이로 심장을 따뜻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선물이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본주의적인 물질의 값어치를 부정하고 뜻뜻한 낭만과 정성만을 따지는 치기어린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살기도 힘들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라는 얘기도 아니다(아니 돈 쓰는 재미가 없으면 어찌 살아), 그래도 어김없이 겨울눈이 내리면 2000년 그해의 어리고 순수한 내가 가로등 아래 눈을 맞으며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 13년 뒤의 자신이, 주고받는 선물의 포장과 가격표만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과 마음의 가치를 보고, 주는 기쁨을 충분히 즐기며 사는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면서.

눈 속에 나를 바라보는 내가 서 있다.



마음을 여기
담았다고?
어디서 악을
떨어지게?

*<카우보이 비밥>의 주인공 스파이크가 동료 제트에게 '백만 번을 산 고양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담긴 실제 동화책이다.

2013년 12월 편집장

이영하



ALBA

POSITIVE & SMART

수입원 삼성시계(주) 02)511-3182 •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시티점 02)454-8400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2-4144 • 직영매장 모멘트 롯데본점 02)772-3181 / 롯데잠실점 02)2143-1920 / 롯데청량리점 02) 3707-1179 / 롯데명동점 031)8086-9232 / 롯데대진점 042)601-2109 / 롯데대구점 053)660-3122 / 롯데광복점 051)678-4039 / 롯데울산점 052)960-4533 / 롯데아울렛서울역점 02)6965-2637 / 현대본점 02)3438-6093 / 현대킨텍스점 031)822-2929 / 현대충정점 043)908-6148 / AK원주점 033)811-5525 / 갤러리아진주점 055)791-1170 • 민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힐 / 동화 / 신세계 / JDC / JTO / KTO •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오차(771-7033) 종로 타임존(737-3627) / 노블류저(745-8788) / 장신사(741-9678) / 상우상사(272-2888) 홍대문 패션존(3398-7527) / 시모(219-8075) 사초 시계특점(6282-2777) / 신비파(532-2121) 송파 타임존(411-0829)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60-8471) 관악 타임(6299-7666)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88-0871) 광진 TIME인(3424-7073)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도리시계(971-5334) 인천(032) 남동 청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특목(662-2028)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시(728-5370) / 엔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9) / 텐아클락(201-7100) / 지지칼렉스(22-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재(441-1014) / 시계상재(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6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차시(245-1230) / 블랑(245-7965) / 티이머블(919-4704) 부산진구 플라이(822-2068) / 프로포즈(818-6573) / 동화시(844-5551)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침원(279-3191) 진주 갤러리아(791-1171)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88) / 바젤(425-8707) / 동이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68) / 열기(255-6940) / 켈미(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사(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1) 포항 조이필(613-1170) / 주얼리(244-8172) / 타임피어(253-8855)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성시(258-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목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엔비(255-629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임피오에기(564-5465) / 신세계에전(640-5081) / 루치타임(622-66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88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브유(225-0175) / 현대제일시(515-7172) / 시계명가(226-2251) / 골드룩(410-0137) / 티티(222-314) 전주(063) 서광당(289-2860) / 캠티(285-7596) 제주(064) 순금시(758-1177)

Letters

산타 할아버지는 사연이 많은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시발!



사랑은 파일구X로 전하세요

친한 여자 후배 하나가 어느 날 내 노트북을 빌려 갔소. 다음 날 감사하다며 가져왔는데 글씨 바탕화면에 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X' 폴더가 생성돼 있는 게 아니겠소? 그 폴더 안에는 앗옹이 하나 있었소. 무척 당황스러운데 어찌하면 좋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지? 뭐야 도대체? <kangys, 이메일 사연>

✎ 에디터 조웅재 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드립니다. 1. 그녀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다운 받았다가 실수로 안 지웠다. 2. 집에 있는 그녀의 남동생이 "어? 웬 노트북?" 하며 누나 몰래 야동을 다운 받았다. 3. "선배, 나도 성욕이 있는 여자랍니다."라는 의미다. 4. 당신의 파일구X 아이디가 자동 저장되어 있었다. 5. "고자 새끼. 아동 좀 빌려보려 했더니 똥도 없네. 이거나 봐라." 하면서 남겨 뒀다. 혹시 이 중 하나가 아니라면 보기 6번, '내가 전에 받은 걸 안 지우고 노트북을 빌려줬다.'가 아닐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대학생 여성 독자입니다. 클럽이 너무 좋아서 이태원 근처 클럽에서 주말마다 일하고 있어요. 세 달 됐는데, 재밌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엄마가 엄청 싫어해요. 사실 엄마 걱정처럼 학교생활도 흥미가 없어지고 공부도 하기 싫어요. 근데 어차피 돈 내고 갈 거. 그냥 돈 받으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서은하, 이메일 사연>



어이쿠, 이 년 또 왔어!

김미 더 머리

타지로 발령이 나서 조만간 차 한 대 뽑으려고 합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지라 모아놓은 게 얼마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며 청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요즘엔 잘나가는 사람들은 다 투잡, 쓰리잡 뛰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부업으로 간단한 뭔가에 도전하고 싶네요. 회사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바 어디 없을까요? <바른생활 꽃꽃2, 이메일 사연>



딱 세 명씩만 모아오면 돼요.

✎ 에디터 김희성 MAXIM 공채 때 에디터 직군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야근하다가 갑자기 술이 땡길 때면 "편직장님, 파티 취재 다녀오겠습니다"하고 클럽에 가곤 합니다. 클럽에서 일 핑계로 노는 게 레알 풀타임더군요. 저도 대학생 때 클럽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 덕분에 따로 운동은 안 했는데도 강철 체력이 길러졌어요. 그러니 계속 열심히 다니세요. 저처럼 나중에 일로 써먹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 공부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직업이 '클럽녀'는 좀 이상하잖아요?

✎ 에디터 손안나 마침 제가 요새 쓸쓸한 부업을 하나 찾았어요. 독자님에게만 알려드릴 테니 어디 가서 발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가입만 하면 다음 달에 통장에 2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요? 하지만 속는 셈 치고 한 번 계좌 번호를 입력해 봤지요. 아, 그랬더니...! 역시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군요. 힘들지 않으면서 쓸쓸한 부업이요?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MAXIM 페이스북 댓글 대화록

엄지를 단단히 세우게 한 에디터와 독자들의 실왕실래

>> 탐비실에선 무슨 일이?



유승민 심심해서 독자님들이 좋아하는 우리 사무실 인테리어 또 올려요ㅋㅋ 여기는 맛있는 거 해 먹는 MAXIM 탐비실입니다. 문제의 저 비박 디자인은 맥심의 편집 디자이너가 저질러놓은 작품입니다.

Wontaek Oh 애 우편하고 싶다

Dookee Kim 뭐 먹으면서 감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유승민 사내 관전들까지는 저희가 아직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돈독한 선후배

☆ 나무 팬때기, 채찍 링크입니다. 보낸사람: "박정욱" <ok@maximkorea> 받은사람: "김희성" <alice@maximkor>

Heeseong Kim 금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후배 에디터가 저한테 나무 팬때기와 채찍 링크를 메일로 보내왔네요. 와우.

이승준 때려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네요. 소원대로 해주세요.

박정규 벌을 받자!

Heeseong Kim 후배랑 업무 매일 주고받은 것뿐입니다. ㅋㅋㅋ

MAXIM Editors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itors_maxim

PURE
SCANDINAVIAN STYLE



EIGHT IQ62Q915





건강진 선생 같으니

나름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재수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학원생입니다. 단과반 수강생들도 꽤 많고 수입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유학파 출신의 원장 딸내미가 강사를 하겠답시고 들어와서는 제 학생들을 모조리 빼가고 있어요. 한국말도 잘 못해서 맞춤법도 틀리고, 정말 더럽게 못 가르칩니다. 근데 이년이 지 절난 줄 알고 다른 선배들은 엄청 무시하고 다니네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비룡비룡, 이메일 사연)



에디터 유승민 → 원래 낙하산 인사가자 특수부대인 것 마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사내를 초토화시키고 하죠. 그럴 땐 직접 나서서 홍보관 역할을 해 줍시다. "나가 시발 원장 딸이면 다야? 어디서 막 구르던 개백다구 같이 생긴 게 나대고 지랄이야?"라고 면상에 직구를 꽂아 주시죠. 아마 그녀는 평평 울면서 아빠한테 달려가 "저 새끼 좀 질라 줘"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원장이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개차반 무능력자 딸을 그냥 두진 않을 겁니다. 아마 당신을 불러 "자네 같은 사람을 기다렸네. 내 딸을 부탁하네"라고 간청하겠죠. 자, 이제 학원 현판에 이름 석 자 걸 일만 남으셨네요.

패션의 완성은 뭐다?

스무 살 남동생이 언제부터가 지드래곤처럼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지드래곤보다는 정형돈을 훨씬 더 닮았어요. 어제는 지용이 형이 입을 티셔츠라며 젓꼭지까지 흰하 파인 민소매 하나를 들고 왔는데, 솔직히 너무 쪽팔려요. 누나로서 가만두고 볼 수도 없고, 저 비싼 옷들을 헌 옷 수거함에 버렸다간 저 자식, 아마 제 방에 불을 지를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전신 거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걸까요? 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산타리박, 이메일 사연)



편집장 → 남두세요. 애네도 잘 사는데요 뭐.



텔런트 출신 미니 방송작가와 결혼 정형돈
2011 용산구 홍보대사 UV
JYP 대표 박진영
연 수입 1,000억 원 레이다 가가



궁금해요, MAXIM!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아는 만큼 대답해드릴게.

Q. 왜 술만 마시면 끝까지 달리고 싶을까요? 딱 기분 좋을 때까지만 마시고 그만 먹으면 다음 날 숙취도 없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상록수, 이메일 사연)

A. 대뇌의 전두엽은 크게 '의욕과 정보 제어', '생각 전환', '창의력'에 관여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을 섭취하면 이 전두엽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분 좋게 취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바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는 이유죠. 어젯밤 헌팅으로 만난 한채영을 담은 그녀와 모델 문지방을 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웬 아주머니와 함께했다고요? 당신은 잘못된 게 없어요. 다 전두엽이 잘못된 겁니다.

독자 사연 응모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사연이 실린 독자 모두에게 주는 이달의 독자 선물

사연이 잡지에 실린 독자 모두에게 다음의 선물을 랜덤으로 배송해 준대! 우린 산타처럼 운다고 안 주고, 그런 거 없어!

랩시리즈 멀티-액션 웨이스 워시
불필요한 각질을 달고 살지 말자! 랩시리즈의 부드러운 크림 타입 폼글렌저로 아침저녁 꼼꼼히 세수하면 당신의 피부가 뽀송뽀송한 아기 피부로 변해 매일 매일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응애~



엠도씨 안티 링글 트리트먼트 에센스
좋은 건 다 들어갔다! 고농도 천연유래효모 발효추출수 80%를 함유한 엠도씨 안티 링글 트리트먼트를 얼굴 주름진 부분에 몇 방울 흘린 후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두드려 퍼 바르자. 아아, 최춘이 꿈은 아니다!



MAXIM 여성용 V넥 티셔츠
나올 데는 나오게! 들어갈 데는 들어가게! 핏이 예쁜 MAXIM V넥 반팔 티셔츠를 입고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남성들의 호기심 어린 사선이 마구 꽂혀서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우린 미리 경고했다?!



THE NEW ERA[®] MELTON WOOL SNAPBACK COLLECTION



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Dear. Readers

강예빈의 독자 상담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녀가 제안하는 똑똑한 문제 해결 방안.

속 터지네!
김밥이신가?



구두 스타카토
팔찌 모드콘

Q. 답답한 일이 있어요.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직원 중 제일 막내였던 제가 의심을 받았어요. CCTV까지 확인해서 누명은 벗었지만 정 떨어져서 관찮습니다. 기분 풀러 혼자 여행이라도 가 보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임영주, 모바일 사연〉

A. 많이 힘드시겠다. 스트레스를 푸는데 여행만한 게 없죠. 저도 이번에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스트레스를 풀러 한 달 동안 떠날 계획이에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우울한 마음을 깨끗이 털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온천에 한 번 가보세요. 일본 온천도 참 좋은데, 요즘엔 방사능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겠죠?

Q. 남자 친구가 갑자기 취업하더니 야근에 주말 출근을 밤 먹듯 해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짜증 나 죽겠어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한지도 한 달이 넘었네요. 어찌죠?

〈장지인, 이메일 사연〉

A. 여자들 이런 고민 많이 하죠. 그런데 남친이 놀고먹고 있는 게 더 짜증 나요. 그러지 말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남친이 찾을 때 “나 지금 십자수 모임 가야 해서 못 만나.”라고 하면 그가 더 안달이 날 거예요. 제2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취미를 찾길 바라요!

Q. 통신사에서 일하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남들은 “어려 보여서 좋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제 동안 외모가 엄청난 고민입니다. 업무상 나이 지긋하신 분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자꾸 무시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확 늙을 수 있죠?

〈꽃보다 할배, 이메일 사연〉

A. 어떻게 이런 고민을! 2년만 기다려 봐요. 젊어지려고 바득바득 애를 쓸 거면서 그런 이유로 자기 몸을 늙게 하는 건 손해예요. 그것보다는 말투나 행동에서 중후함을 찾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옷을 아저씨같이 입어 보세요. 스타일이 큰 영향을 줍니다.

SYNDROME

infective fever



WITH

*the

MAXIM

Party*

2013 DECEMBER 20 FRIDAY

RESIDENT DJ

S2 / HOON / 4PLAY / FENNER / HYDE
BAGAGEE-VIPHEX13 / SCHEDULE1
JUNCOCO / MAXIMITE / BIG BAD NOSE
DR.GO / EQUINOXE / JUN / REIGN / SOO / EAR DRUM

SPONSORED BY

YaSibbal

www.yasibbal.co.kr

[OPEN 10PM - 06AM | RSVP 02.511.9151]

[COVER BEFORE 12AM 10,000KRW | AFTER 12AM 30,000KRW]

HOTEL SUNSHINE B1, SINSA-DONG GANGNAM-GU, SEOUL, SOUTH KOREA



Jägermeister

ICE COLD SHOT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염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Jägermeister

PRODUCED AND BOTTLED BY
Mast-
Jägermeister SE
WOLFENBÜTTEL
GERMANY

70 cl 35%
700 ml vol

WE NEVER FREEZE

www.facebook.com/jagermeister.Korea

RSVP 02-511-9151
Cover Before 12am 10,000won
After 12am 30,000won
Location Club Syndrome,
Hotel Sunshine B1. Sinsa-dong
Gangnam-gu, Seoul, South Korea

MORE INFORMATION:
WWW.MAXIMKOREA.NET
f: editors.maxim

WWW.CLUBSYNDROME.COM
CAFE.NAVER.COM/CLUBSYNDROME
f: SYNDROMECLUB

the with **d**
MAXIM
Christmas Party
at **SYNDROME**

2013.12.20
Friday
10:00pm Open



DRESS CODE
CHRISTMAS LOOK,
RED & GREEN

DJs
S2 / HOON
4PLAY
FENNER
HYDE
BAGAGEE=VIPHEX13
SCHEDULE1
JUNCOCO
MAXIMITE
BIG BAD NOSE
DR.GO
EQUINOXE
JUN / REIGN
SOO
EAR DRUM

NO MINOR ALLOWANCE:
산타 할배는 우는 아이에게
입장권을 안 주신대.

http://www.arbutus.co.kr

ARBUS[®]

New York

Arbutus
Globaltime watch company
NY Sensibility
Real Watches

real watches for real people



WALL STREET

COLLECTION

AR 610RWF

공식수입처 : 글로벌타임 Tel 02.778.1590 www.globaltime.co.kr

서울 노원 워치록 070-4136-5090
신촌 이타임월드 02-313-4108
종로구 진진상사 02-764-4716
테크노마트 타임21 02-3424-7063

두타 타임갤러리아 02-3398-5528
신도림 타임타임 02-2111-1141
가로수길 블랙브라운 1588-6768
수원AK 031-240-2277

인양1번가 시계상자 031-441-0158
인양1번가 샤론 031-463-9788
일산 웨스턴튼 타임24 031-931-5300
인천 구월동 워치보이 070-8632-5300

인천 부평 타임번 070-7516-4545
충남 대천 대천마켓 041-935-4994
청주 복외치 043-223-1333
부산 광복동 명성시계 051-253-5356

제주 한림읍 부띠 010-9083-5706



Dear. Readers

이현도 형님의 독자 상담

듀스로 데뷔한 지도 벌써 20년.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준 그가 독자들의 고민에 솔로몬보다 더 현명한 대답을 내놨다. 형님 멋져!

나도 다음에 독자 사연 보내야지 ㅋㅋ

수트 테일러 수 시계 넥슨 나이트 링크로치

Q. 얼마 전 말티즈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아빠가 개만 예뻐해요. 예뻐하는 건 좋은데 “퐁오쭈은 치웠냐, 밥은 먹었냐.”라며 개만 챙기시고 저를 완전 찬밥 취급해요. 질투 나는데 어쩌죠? 개한테 짖을 수도 없고... <정선영, 이메일 사연>

A. 본의 아니게 저도 말티즈를 키워요. 조연을 해 드리자면, 개를 더 예뻐해 주세요. 개가 아버지보다 선영 씨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간식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세요. 아버지와 선영 씨가 동시에 강아지를 부를 때, 개가 선영 씨에게 오면 게임 끝! 그때부터 아버지가 선영 씨를 질투하게 될 겁니다. 그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Q. 20대 초반 저는 밤 문화계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나 모든 유흥을 1년 간 끊었습니다. 얼마 전 여친과 헤어지고 다시 밤거리를 찾았지만, 예전처럼 못 하겠더군요. 잃어버린 저의 감,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황제의 난, 이메일 사연>

A. 저와 비슷하네요. 저도 90년대 초반에는 황제였어요. 그러다 여자 친구를 만나 열심히 사랑하고 보니 다른 여자들이 연락을 안 해요. 혹시라도 그 감을 되찾게 되면 MAXIM을 통해 연락 주세요. 저도 독자로서 먼저 감을 찾게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하도록 하죠.

Q. 스무 살 여성 독자입니다. 좀 추워지니까 길거리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걱정이예요. 어제도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떡튀순 세트랑 봉어빵을 사 먹었어요. 회의감이 드네요. 앞으로 맛있는 게 길거리에 널릴 텐데, 간식의 유혹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봉어빵, 이메일 사연>

A. 그냥 길거리를 다니지 마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고 어떻게 참아요? 아예 눈에 띄게 하지 마세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든가, 남자 친구 차에서 내리지를 마세요. 이 추운 겨울에 남자 친구랑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날씬해지고! 춥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크리스 와이드먼

2013년 최대 이변의
주인공들이 다시 만난다!

미들급 세계 챔피언전
UFC 168

12월 29일(일) 오전 11시 30분
수퍼액션 독점 생중계

SUPER ACTION

앤더슨 실바

수퍼액션
공식블로그



2013 MAXIM ONLINE Awards

MAXIM 홈페이지 조회수 1위 기사 www.maximkorea.net



2013년 한 해 동안 MAXIM 홈페이지의 수많은 온라인 뉴스 중 가장 많은 클릭을 유발한 기사는 무엇이었을까? 갑자기 우리도 궁금해졌다. 1년간 업로드한 뉴스의 조회수를 싹 다 조회해볼 수도 없고... 홈페이지 기술팀에 문의했다. 잠시 후 기술팀에서 영예의 '2013 최다 조회 기사' 링크를 보내왔다. 편집부 사무실에 있던 에디터 몇몇과 함께 괜히 좀 긴장하며 링크를 클릭했다. 그랬다. 저거였다. 넉 달 만에 새삼 들춰보는 상미와 혜연의 풋풋한 라이프가드 화보. 지난 여름의 추억이 돌아났지만 어쩐지 씁쓸했다. 레알 마드리드, 뉴욕 양키스, 브라질 축구 국대, LA 레이커스가 우승컵을 차지했다는 소식만큼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 일이나 하자.

MAXIM Youtube 채널 최다 조회 영상
www.youtube.com/user/TheMaximkorea



"아, 그럼 MAXIM 유튜브 채널 조회수 1등은 뭘까?" 다시 동료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일하기도 싫던 차에 편집부는 은근히 연말 시상식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우리 말고 아무도 관심 없음). '혹시 생각지도 못한 나의 창의력을 세상이 알아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래서 과연 1등은?? <엄상미가 알려주는 '수험생에게 좋은 셀프지압' 가이드> 압도적이다. 2위와의 격차도 엄청나다. 하긴, 저게 수능 전날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를 반나절이나 평택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험생들의 간절함... 때문일 리는 없고 '엄상미가 알려주는'이 존나 컸겠지. 내가 했어봐라... 회복 불능의 씁쓸함이 사무실을 휘감았다. 그래. 상미야. 네가 2관왕이니까 다 해 먹어라. 네가 조용필이다.

MAXIM 편집부 Facebook 최다 '좋아요'
www.facebook.com/editors.maxim



손안나의 난(亂) : 엄상미의 3관왕 싸늘이가 점쳐지는 가운데 세 번째 라운드인 맥심 페이스북 '좋아요' 순위에서 안중에도 없던 손안나 에디터에게 일격을 당했다. 문제의 게시물은 지난달 수능 특집 촬영에 엑스트라로 끌려가 교복을 입은 손안나 에디터 도할것. 심지어 그녀는 폐복도 안 하는데 폭발적인 '좋아요'를 끌어다으며 근소한 차이로 미스맥심 엄상미의 트리를 크라운에 똥을 뿌렸다.

MISS MAXIM CONTEST FINAL

2010년 최혜연, 2011년 이명희, 2012년 단영...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과연 2013년 MISS MAXIM CONTEST 최종 우승자는 누구일까? 박무비를 제치고 파이널 무대에 진출한 큐티섹시 김소희와 이현지를 누르고 결승에 합류한 신민아 님은 꿀 이아영의 섹시 대결 당신의 한표가 올해의 MISS MAXIM을 결정한다. 아래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지금 투표하자!



MAXIM ONLINE SURVEY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 1위** 그녀의 한 마디: 자기야,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래(193표, 51.2%)
- 2위** 앞치마만 입은 그녀가 해주는 요리 (112표, 29.7%)
- 3위** 평소 갖고 싶던 고가의 전자기기 (47표, 12.5%)

총 투표자: 377명
투표 기간: 2013년 11월 13일~진행 중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은 
커플이야
www.couple2ya.com

검색창에 **커플이야** 를 검색해 보세요.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타이어 속에
꿈 발바닥이!



aximus



사상 최대 규모! 곰 발바닥 밀수 사건



실패로 돌아간 대륙 간
콜라보레이션 밀수 프로젝트,
러시아를 '볼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였어? BY 조용재



지난 여름, 러시아와 접한 중국의
국경도시 네이멍구자치구 만저우리
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곰 발바닥
밀수 사건이 적발됐다. 미니트럭 5대를 끌고
중국으로 들어오던 보드카국 성님들이 최종
스테이지인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려버린 것.
사실 이들의 공간 창출 능력은 무척 창의적이고
탁월했다. 트럭 앞바퀴 안에 수많은 곰 발바닥을
채워 유유히 국경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관원의 엑스레이
공격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족발, 닭발도 처먹는데 왜 곰 발바닥만 가지고
지랄이나'고? 애초에 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놓은
중국에서 곰 발바닥 밀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비슷한 사례로 2010년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돗개로 보신탕을 끓여 먹다 쇠고랑을 찬 사건이
발생했다. '풍신개 보신탕'이나 '황조롱이 꼬치' 같은
메뉴가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멋대로 처묵하는 게 아니다.

이날 적발된 곰 발바닥은 총 213개. 4개당 한
마리로 계산하면 약 50마리의 야생 곰이 밀렵으로
희생된 셈이다. 이 중에는 다 자라지 않은 새끼 곰의
발바닥도 있었다고 하니, 인정사정없이 잡아 죽이는
대륙의 스케일은 역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기가
넘치는 모양이다. 🐻



겨울을 알리는 몸 신호

할머니는 무릎이 쭈서면 비가 오는 걸 알았고, 아이는 딱딱해진 젖꼭지를 느끼며 겨울이 온 걸 알았다네. BY 김소윤



1 발기하는 젖꼭지

날씨가 추워지면 젖꼭지 색깔이 진해지고 딱딱하게 발기한다. 겨울이라고 성욕이 넘치거나 자각에 예민해져서 그런 게 아니다.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다. 젖꼭지의 섬세한 조직은 열이 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쪼그라들고, 숨릴까지 세운다. 남자 거시기가 발기하는 이유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거기는 주로 핫한 거에 반응하잖아?

2 용기하는 고환

음낭은 김태희가 광고하는 스마트 냉장고만큼 영리하게 온도를 잘 유지한다. 고환은 36.5°C의 체온보다 1~2°C 낮은 온도에서 최상의 정자를 생성한다. 그래서 주름이 많고 유연한 음낭은 더울 때는 축 늘어져 서늘한 상태를 유지하고, 추울 땐 수축해 몸 쪽으로 고환을 당겨 따뜻하게 만든다. 남자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이 X알에 걸리거나 지치지 않고 트리플 악셀을 뛸 수 있는 것도 다 이 스마트한 시스템 덕분이다.



3 요동치는 방광

날이 추워지면 맘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더 많은 물을 빼내게 된다. 다른 계절보다 방광이 금방 차오른다는 소리다. 게다가 몰아치는 연말 행사나 신년 모임에서 술을 퍼마시다 보면 당신의 오줌통은 마를 날이 없다.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요도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은 겨울이 되면 일을 잘 보지 못하는 '금성요폐'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



4 센치한 감성

겨울엔 세상만사가 다 귀찮고 피곤하다. 방구석에서 곰처럼 퍼자고 돼지처럼 처먹어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다. 계절을 타는 증상 중 가장 흔한 게 겨울철 우울증인데, 이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분을 조절하고 식욕, 수면, 근수축 등 많은 기능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은 햇빛을 많이 쬐수록 증가하는데, 겨울엔 해도 짧고 추워서 외출도 잘 안 하니 센치함이 폭발할 수밖에.



Extreme Numbers

겨울을 제패한 대단한 숫자들.



34.63m

보통 눈사람은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고 돌맹이로 눈을 박아 넣는데, 1999년 미국에서 완성된 진격의 눈사람 앵거스는 소나무 한 그루와 타이어로 팔과 눈을 장식했다. 키가 34.63m에 달하는 이 눈사람을 만드는 데 2주나 걸렸다고.

1kg

하늘에서 짙돌이 내려와~요! 1986년 방글라데시에선 무게가 1kg이나 되는 우박이 발견됐다. 2003년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원주가 47.6cm, 지름이 18cm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89.2°C

기록된 데이터 중 지구 상에서 가장 추웠던 날은 1983년 7월 21일이다. 이날 남극점 근처의 보스토크 스테이션은 지구의 온도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기온, -89.2°C를 기록했다. 이런 날 3중 특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폐가 순식간에 얼어버린다.





HELL DIVER

1942 SB2C

TRIPLE TIME



HELLDIVER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 | | | | |
|---------------------------|---------------------------|-------------------------|-----------------------------|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09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 롯데센텀점(부산점) 051-730-3198 |
|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샤론쥬얼리(안양점) 031-463-9788 | 70° CLOCK(인천점) 032-456-4280 |
|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
|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 탑타임(안산점) 031-413-7656 | 벙끼통(부천점) 032-662-0686 |
|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 TIME 21(강변점) 02-3424-7073 |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TIME 21(강변점) 02-3424-1210 | 티파니(일산점) 031-931-5300 | 타임봄(부산점) 070-7530-1219 |
|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 노블리(일산점) 031-961-6795 | 엘가시계(부산점) 070-7569-5766 |
|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 | 더타임(진주점) 055-741-3072 |

Circus Maximus

Holy Shit

크리스마스 멍청이들

그래도 오늘날만큼
“너의 죄를 사하노라”.

트리 는 이렇게 꾸며야지!

빈집털이범 테리 트렌트는 2011년 겨울, 물건을 훔치기 위해 어느 빈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집 안 거실에서 빈껍데기 있는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를 보고 어쩐지 분위기에 취해버린다. 결국 분분을 잊고 남의 집 트리를 꾸미는 데 열중하다가 트리 장식만 한 움큼 옮겨진 상태로 경찰에 체포되고 만다. 체포 당시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의 죄목은 무단 침입. 트리 장식 과다 소지죄는 처벌 안 받나?

실사판 그린치

작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벌어진 산타클로스 퍼레이드. 한 청년이 민취 상태로 군중 속에 난입해 이렇게 소리쳤다. “산타는 없다고!!! 이 천하의 병신들이야아아!” 퍼레이드를 구경하던 아이들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줄줄이 울음을 터뜨렸고 시민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에 아이들에게 산타가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금쯤 산타 할아버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을 테니, 넌 입마 평생 크리스마스 선물 기대하지 마라, 시꺼!

크리스마스라서 다행이야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용품 전시회장에서 트리 꼭대기에 달린 별 장식을 훔친 55세 광년이 루스 바그너. 그녀는 훔친 별을 무기심야 전시회장에 온 사람들을 마구 쫓아냈다. 멧멧은 바그너의 ‘별 공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녀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크리스마스기에 망정이지 추석이었으면 어쩔 뻔 했어? 발초용품 전시회장에서 미친 여자가 제초기 들고 설친다고 생각해 봐, 달달달.



루돌프 도망쳐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네가 산타 미누라랑
붙어먹은 걸.



장글렐, 형애 뺑해!

캠핑가에서 사는 루이지애나의 예셀 매키나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신의 집 담쟁(그리니까 보닛)을 루돌프로 장식해놓았다. 며칠 후, 지나가는 개가 자신의 소중한 루돌프를 물어뜯어 버린 사실에 격분한 그녀는 개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쏘아댔다. 뭘? 크리스마스 폭죽일! 🐕



산타클로스에 대한 7가지 혐의점

전 세계의 선물 못 받은 어린이들이여! 봉기하라!
이제는 산타를 처단할 때!

북극의 무단 점거

산타가 사는 북극은 국제환경협약에 의거해 개인 사유지로 이용할 수 없다.

무비자 및 무단 입국

전 세계 국가를 끌리는대로 돌아다니지만 비자는커녕 여권도 없을 걸?

무단 가택 침입

선물을 나눠준다는 명목하에 한밤중에 남의 집 굴뚝으로 쳐들어간다.

야생동물 및 희귀종식물 보호법 위반

루돌프를 타고 다닌다. 가끔 체찍도 휘두르다던데 그 위에서 뭔가 느끼고 뭐 그러는 건 아니겠지?

도로교통법 위반

그의 붉은 코와 뺨을 보면 보드카 따위를 마시고 운전하는 게 확실하다.

개인 정보 무단 조회 및 스토킹 행위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누가 나쁜 아이지름

알아내기 위해 각국의 어린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아 노동 및 반인권 행위

선물 공장에 동원한 건 대부분 어린 요정들. 매년 12월이 가까워지면 이들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산타는 노동3권과 연금 혜택은커녕 고용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아놔, 제대하고 뭐하지?

잠내 나는 군인 때를 말끔히 벗어버리고 싶다면
피부에 남아 있는 흑역사를 깨끗이 벗기자!

제대 후 얼굴을 **상상**하라~

살아있는 순간!



옛날엔 나도 한피부 했는데 이런 시바 세계!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를 들어갈 땐 제대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주먹을 쥐고 눈앞에 가져가 봐, 아주 갑갑하지? 그땐 그렇게 앞날이 보이지 않았어), 이제 군인 때를 벗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날 말년 병장들. 이번 겨울 흑환기 훈련을 받지 않아 한숨을 돌리지만 제대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하다.

'복학해서 여자 후배들과 재미있게 놀아볼까?' (누가 복학생하고 놀아준대?),' '장사나 해볼까?'(장사 밀친은 있구?),' '무작정 여행이나 떠나볼까?'(군대에서 숙영 많이 해봤자나!)' 등 사위하면서 혹은 양치하면서 겨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아무리 생각해

도 결론은 여자 인간. 여자 인간이 없다면 이젠 뭐 군인이나 사회인이나! 그러다가 입대 전 모습과 달리 과도하게 망가진 내 피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신다. 여드름을 잘못 짜서 화성의 분화구처럼 움푹 패인 자국이 있는가 하면, 검게 그을린 피부색은 아무리 씻어도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완전 흑형이 따로 없군. 나의 흑역사는 지금부터인가?!).

응답하라, 입대 전 내 꼴피부!

여우 목소리 하나 마련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김 병장. 말년 휴가 때부터 작업에 돌입한다. 좋은 옷을 차려입고 뉴에라 모자로 힙합피드 느낌을 내고 존 바바토리스 향수로 좋은 냄새까지 탐재했지만! 물 좋은 클럽에서 섹시한 여우와 불금을 기대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입대 전엔 나를 잘나갔는데, 아직 군인 때를 벗지 못해서일까. 설마 아직 잠내가 나는 걸까? 김 병장은 애꿎은 옷에 향수만 잔뜩 뿌리다 결국 파리만 꼬인다. 원나잇 스탠드는커녕 여자 사람과 술 한 잔 못 하는 비에, 문제는 시꺼먼 피부와 거친 아저씨 피부에 있다는 걸 김 병장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김 병장을 도와줄 수 없을까?

씨늘한 계절에 제대한 열구리 시린 남자를 위해 MAXIM이 준비했다. 꿀 껌처럼 넓어진 모공,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필살비법, SL흉터제생술! 이제, **뽕얇고 도자기** 같은 아기피부로 겁나 멋진 사회인이 되어 보자.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님이 말하는 말년 병장 꼴피부 비법 대공개!

Q. SL흉터제생술(치료)은 기존 박피치료와 어떻게 다릅니까?

A. SL치료는 기존에 피부를 깎아내는 레이저박피나 화학박피와 달리 흉터부위에 직접 손으로 구멍을 뚫고 재생 유도물질인 SL109를 투입하여 흉터 부위에만 새살을 돋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한의원에서 10년 간의 연구로 개발한 SL109물질은 단순히 구멍을 뚫었을 때 보다 2~3배 많은 양의 새살이 나 한번 시술만으로도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또 기존에 박피처럼 깎아내는 방법이 정상피부의 과도한 손상으로 인한 붉음증이나 화상피부와 같은 번들거림을 방지할 수 있고, 표면 피부 손상을 최소화 해 자연스러운 원래의 피부를 보호하고 진피 깊은 곳에서 새살이 올라옵니다.

Q. 지금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SL치료가 가능합니까?

A. SL치료는 다른 치료술과 달리 여드름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SL109는 흉터뿐만 아니고 피지선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한번 시술만으로도 여드름을 확연히 줄여줍니다. 그러므로 흉터 치료뿐만 아니라 여드름 피부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게 합니다.

Q. 기존의 플라젤이나 MTS치료법과 다른가요?

A. 피부에 일정간격으로 피부에 구멍을 뚫는 플라젤, MTS는 얇고 넓은 흉터나 노화 피부에 효과가 있으나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흉터부위와 정상부위 관계없이 구멍을 뚫으면 흉터부위에 살은 적게 올라오고 정상부위는 더 강한 자극을 받아 더 많이 올라오므로 깊은 흉터의 편차를 줄이지 못합니다. SL치료는 좁고 깊은 흉터부위에만 살이 올라오게 해서 빠르게 편차를 줄입니다. 즉, 흉터치료의 핵심은 새살 만들기 가 아니라 편차 줄이기입니다.

Q. 군인들이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보통 시술 받고 5일 정도면 딱지가 떨어지고 선블러만 바르면 야외활동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휴가 때 치료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휴가 마지막 날 시술 받고 바로 귀대를 하더라도, 대개 이런 경우 고창병들이 많아요. 말년 치는 마지막 휴가 때 받고 제대하자마자 한 번 더 받고, 이렇게 두 번만 받아도 웬만한 흉터는 해결되니까요.

도움말 주신 분

손철훈 원장
한의원 전문의
진료 분야:
여드름, 여드름 흉터



- 한의원 원장
- 한의학 박사
- (피부 카리스마) 저자
- 前 대한스프츠 한의학회 회장
- 경희대 한의과 대학원 겸임 교수
- 에스킨아카데미 공동 대표

before & after

시술 전



시술 후



그거 건포도 아니고
젓가락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엽기 회 A매치

세상엔 잔인한 짐승이 많다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BY 박정욱



개구리 회

- Recipe**
1. 팔뚝만 한 황소개구리를 골라 목을 탄 후 내장을 빼낸다. 개구리는 굵둥이만큼 생명력이 질기지만 너무 험부로 다루면 죽어버리니 조심해야 한다.
 2. 개구리의 가슴을 꼭 움켜쥐고 박력 있게 뒷다리 피부를 벗긴다.
 3. 레몬과 얼음, 간장과 함께 보기 좋게 담으면 개구리 회가 완성된다.

- How To Eat?**
- 일본 신주쿠의 아사다치 음식점에서 맛볼 수 있는 개구리회는 이케주쿠리(활어회)와 비슷하지만 일본 전통 음식은 아니다. 머리와 앞다리만 남아 보기 좋게 접시에 담겨 나온 개구리는 몇 분 동안 죽지도 않고 접시 위를 팔딱팔딱 뛰어다니는데, 이걸 감상하는 게 개구리 회를 즐기는 포인트다. 소동이 끝난 뒤,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개구리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면서 자신의 살을 먹는 인간을 지켜본다.



잉양

- Recipe**
1. 살아 있는 생선을 칼로 대패질하듯 비늘을 벗긴 후, 배를 따서 내장을 제거하고 고루 익도록 몸통에 칼빵을 놓는다.
 2. 사형수 머리에 덮개를 씌우듯 찬 수건으로 머리만 감싸고 몸통을 펄펄 끓는 기름에 집어넣는다. 이때 사브사브처럼 뜨거운 기름에 살짝 담갔다 적당할 때 꺼내야 생선이 죽지 않는다.
 3. 생선 위에 소스를 살짝 뿌리면 잉양이 완성된다.

- How To Eat?**
- 채소도 기름에 튀겨 먹는 중국인은 오랫동안 날것을 먹지 않았다. 그 때문에 회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이곳에서 잉양은 제법 낯설고 통한다. 잉양은 엄밀히 말하면 회 반, 튀김 반이다. 머리는 날것 그대로지만 몸통은 레어(rare)로 익혔기 때문이다. 맛있게 튀긴 생선 살을 젓가락으로 한 점 떼어 먹을 때, 입을 빼꼼거리려는 생선의 얼굴을 보면 볼지옥을 겪고 돌아온 이 녀석에게 경외감이 샘솟을 거다.



애저 회

- Recipe**
1. 피임에 실패한 어미 돼지를 낙태시킨다. 보통 어미 돼지를 도살할 때 낙태가 이뤄진다.
 2. 태아 상태인 애저(새끼 돼지)를 자궁에서 꺼내 그대로 믹서에 갈면 선홍빛 핏물에 핑크빛 살점이 동동 떠다니는 애저 물회가 된다.
 3. 고춧가루, 찻가루, 김, 생강, 파, 참기름, 미나리 등으로 양념한 후 계란노른자와 식초를 넣으면 맛있는 애저 회가 완성된다.

- How To Eat?**
- 임신 2~3개월쯤 된 애저는 완전한 돼지 형태를 갖추지만 뼈가 말랑말랑하고 털이 원빈 아저씨 말처럼 금니만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도 된다. 속풀이용으로 좋은 애저회는 꿀꺽꿀꺽 두세 모금에 원샷해야 제맛이라고 애저회는 정력에도 좋다고 알려져서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애저 회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그때는 새끼 돼지를 멧돌로 갈았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10th
ANNIVERSARY

그리스
보라가지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No.1 뮤지컬 그리스

PARIS CROISSANT* 디저트 패키지 출시

공연티켓에 2천원만 추가하세요! 최고의 공연과 디저트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 R석 1매 + 파리크라상 이용권 (음료 1잔 + 조각케익 or 샌드위치 1종 / 대학로점)

= 약 78,000원 → 68,000원 (vat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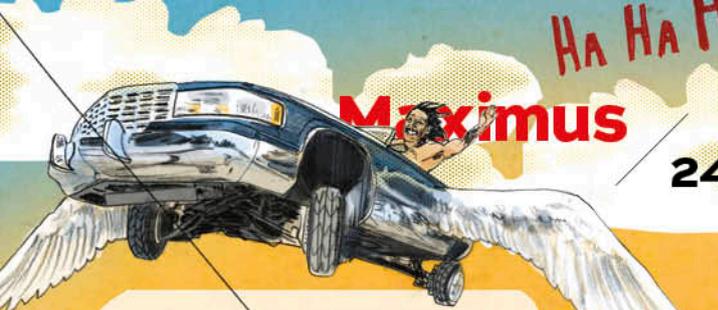
2013.10.22 ~ OPEN RUN |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오픈리뷰 1588-5212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명찬| LOUN.G

HA HA HA

Maximus

24 Hours to Live



대니 트레조

영화 <마세티 킬즈> 속 마성의 살인 병기도 죽음을 피할 순 없다.

다시 돌아온 터프가이



당신이 아무리 강해도 이번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죽고 싶나?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든 순식간에 가고 싶다. 크게 웃으면서 말이다. 와하하하

그동안 영화에서 전형적인 터프가이 역할만 맡아왔다.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터프할 것 같나? 당연히 신이지. 천국 짱 아닌가?

그렇다면 지옥 짱은 누구일 것 같은가? 내가 지옥에 간다면, 거기서는 내가 가장 터프하지 않을까 싶다.

그 말에 동의한다. 1985년에 데뷔한 이후로 쉬지 않고 계속 일해왔다. 저세상에도 혹시 영화 제작사가 있다면 계속 연기를 하고 싶나? 그랬으면 좋겠다. 일을 못하면 엄청 심심할 거다. 하프 연주나 들으면서 구름 위를 동등 떠다니는 건 내 취향이 절대 아니거든.

하프에 구름이라니... 전혀 안 어울린다. 영화에서 죽는 장면이 많았는데, 실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 전혀 없다. 다시 살아나서 또 다른 영화를 찍으니까.

지금까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아 부었나? 차! 아주 환장한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좋은 점을 하나 꼽자면? 감옥에 다시 안 가도 돼서 좋다.

살면서 겪은 일 중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가? 딸이 태어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일이 제일 힘들었다. 도무지 잊어지지가 않아!

문신이 멋지다. 이제 곧 그 몸뚱아리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새 문신을 새겨보는 건 어떤가? 좋재! 'I LOVE GOD'이라고 새기면 하느님이 날 거둬주지 않을까?

영화에서 이런저런 무기를 다 휘둘러봤다. 저승길이 험난할 텐데 죽을 때 가져가고 싶은 무기가 있나? 내가 출연한 <마세티>의 속편 <마세티 킬즈>에 나오는 무기가 엄청 세고 강건난다. 얼마나 대단한지는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보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여자가 있나? 이 나이 먹고 보니 섹스 판타지 같은 건 더 이상 없다. 그냥 같이 있으면 즐거운 여자와 함께하고 싶다.

당신의 관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 "대니 트레조는 의외로 성격 좋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죽기 직전 고백의 시간을 가져보자. 당신 같은 터프가이에게도 나약한 모습이 있나? 나도 부모이자라 자식새끼들 때문에 종종 운다. 놀랍지 않나?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시간을 주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을 말하겠다. "나무를 보고 쓰는 화살보다 태양을 보고 쓰는 화살이 더 높이 올라간다." ☺

대니 트레조 주연의 액션 영화 <마세티 킬즈>는 11월 21일 국내 개봉한다.

OPTICA TEL. 7274 RAC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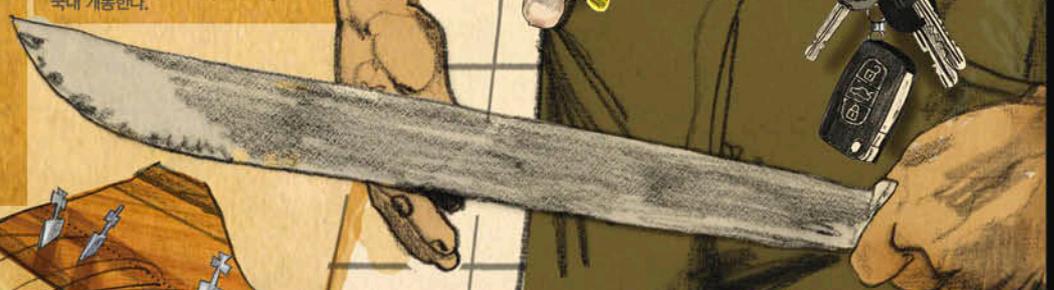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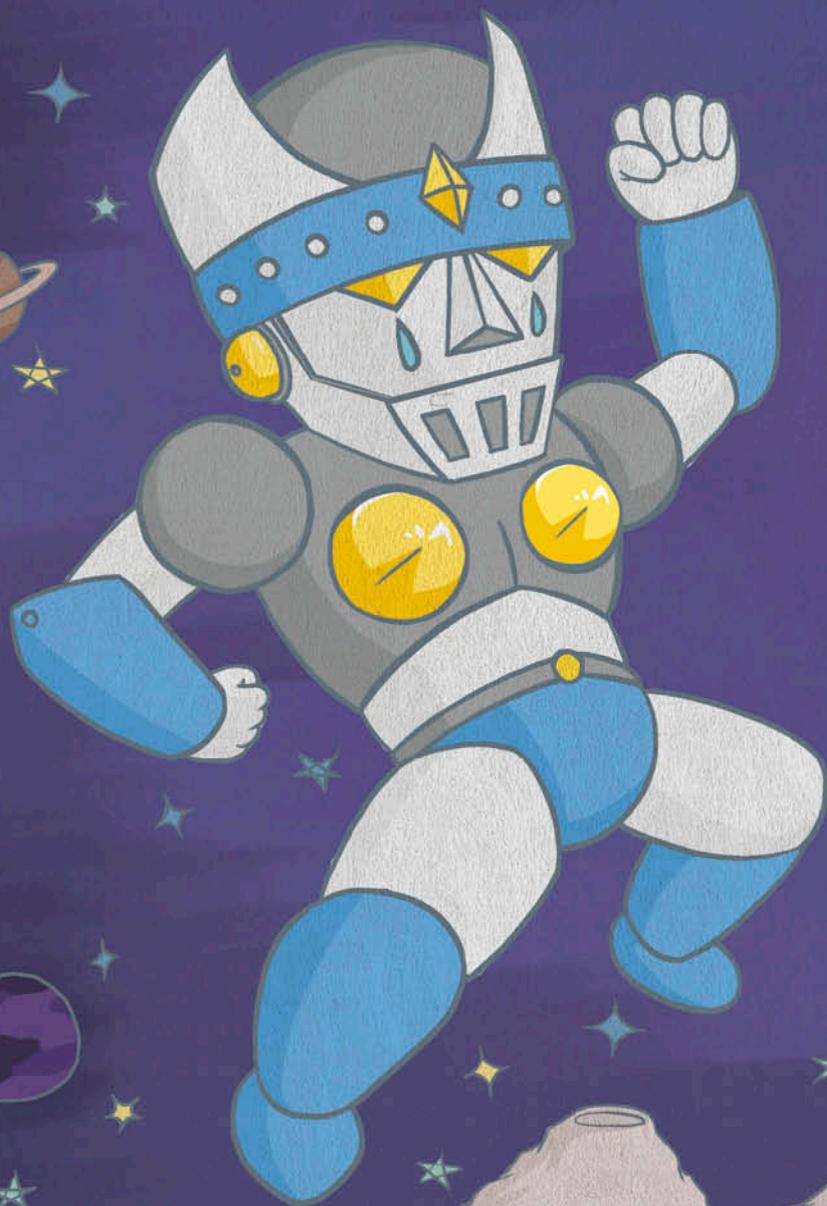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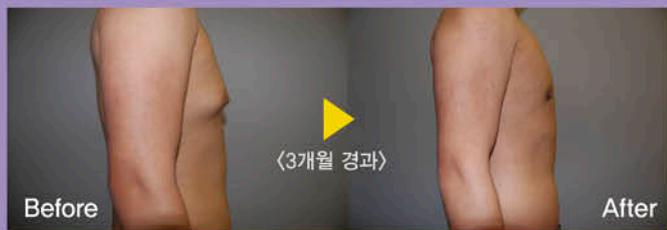


ILLUSTRATION ANDY MacGREGOR



남자가
버려야 할
한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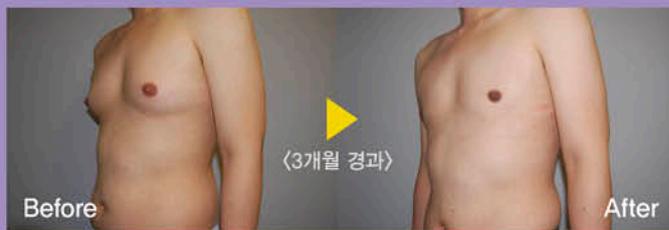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 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 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30312-중-40312호

조국 침공녀 기황후 奇皇后

BY 굼시니스트



원나라 상류층에서는 기황후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고려문물이 유행. -원조한류.





코믹 연애극;

작업의 정석

연극

2013년 9월 5일 OPEN 코엑스아트홀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문의 1588-5212

평일공연
전석1만원!

진정한 선수들의 밀당승부가 시작된다!

How To

119가 몇 번이나구요?

Office Life Tip

#11. 전화 잘 받는 법

 직장 생활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일을 성실하게 잘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법이다. 이를테면 전화 잘 받기 같은 거?

BY 김희성

MODEL 2012 MISS MAXIM TOP4 김수아

내선번호
뭐예요



봉지가 한 개 없어요?
큰일인데... 근데 여기 커피
맥심 아닌데 어찌죠?

모르면 안 되는 사무실 전화 예절

- 전화벨은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 업무적인 전화라도 통화가 길어지게 되면 자리를 옮기는 게 예의다.
- 통화를 해야 할 상대방이 부재중일 경우 몇 시쯤 돌아오는지, 상대방의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지 물어볼 것.
- 전화를 건 쪽에서 먼저 끊는 게 일반적이나, 상대가 당신보다 손윗사람일 경우엔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의다.



손을대지마십시오

❶ 무조건 받아라

키보드 소리만 울려 퍼지는 조용한 사무실에 정적을 깨는 전화벨이 울린다. ‘따르르르릉’ 자기 자리가 아닌 부재중인 상사의 자리, 혹은 누가 받아야 할지 애매한 위치에서 벨소리가 울려 퍼지면 신입들은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딸깍, 누군가가 전화를 받으면 그제야 한숨을 돌린다.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일이라는 게 그렇다. 대개 귀찮은 일로 느껴진다. 딱히 내가 해야 할 업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남에게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력이 도토리 키재기인 신입들 사이에서 전화를 잘 받는 것이야말로 책의 콩나물처럼 돋보일 수 있는 쉽고 빠른 길이다. 상사 입장에서 신입은 아직 이렇다 할 몫을 해내지 못하는 잉여 인력에 가까운데다 제대로 평가를 할만한 일을 아직 맡겨 보기도 전이다. 이럴 때 전화만 재깅재깅 잘 받아도 매우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전화 받는 걸 당신의 중요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열심히 받을 것. 과장 조금 보태서 신입 사원은 전화 받는 사람이라는 마인드로 전화를 받으면 된다.

❷ 대화 시뮬레이션을 따라

전화 잘 받기를 최소 일주일만 열심히 해도 당신은 상사들 사이에서 성실하고 일 잘하는 부하직원으로 꽤나 좋은 평판을 얻고 있을 거다. 굿 잡. 이미지 세탁은 일단 성공이다.

사실 전화 잘 받는 것보다 더 긴장되는 건 전화를 걸 때다. 전화하는 품만 봐도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전화 업무는 모든 일의 기본이 된다. 아직 업무가 미숙한 신입들은 전화로 얘기할 때 지나치게 긴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소엔 말을 잘하다가도 수화기만 들면 어버버거리며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할 말을 자꾸만 까먹고 정체불명의 존칭어가 섞여나와 쥐구멍에 숨고 싶었던 적이 많다면 전화를 걸기 전 대략적인 대화 상황을 가정해 메모장에 적어라. 말하려는 내용을 다 적을 필요는 없다. 키워드만 적는 거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수락할 경우와 거절할 경우로 나눠서 할 말을 대충 적어본다. 어차피 당신이 시뮬레이션을 짜놓은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통화가 끝날 거다. 상사가 이걸 듣는다면 당신의 능수능란한 말발에 ‘저 놈 일 좀 하는데?’라고 생각할 거다.

❸ 상담원으로 빙의하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티나는 일은 아니지만 제대로 못하면 못한 티가 팍팍 나는 게 전화 업무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마찬가지다. 전날 과음을 해서 무성의하고 피곤한 투로 응답하거나 바빠서 대충 받은 전화 한 통이 회사 전체의 이미지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러니 전화 한 통이라도 허투루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화벨이 세 번 이상 울렸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체계가 없는 회사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웬지 일처리가 늦어질 것 같고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선입견도 생긴다. 그러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화를 늦게 받았다면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멘트를 꼭 덧붙이는 게 좋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순간 상담원으로 빙의해야 한다. 최대한 친절하게 말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신의 표정은 보이지 않겠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다 느껴진다. 그러니 웃는 얼굴로 전화를 받는 게 좋다. 자기는 상냥하게 한다고 하는데 말투나 목소리 때문에 통명스럽고 불친절하다고 오해를 사는 사람에겐 이 방법이 직빵이다. 진짜로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면 말투와 목소리가 저절로 친절모드로 바뀔 거다.

수야 양 보면서 스마일~ ☺

PHOTOGRAPH YuD HAIR/MAKEUP 정혜민 VIDEO 김양수 ASSISTANT 박영옥

How To

Instant Chef

식빵 빠네 만드는 법

5분 완성!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파스타에 약간의 데코만 더해도 금세 그럴듯한 레스토랑 요리가 된다. MAXIM이 알려주는 레시피로 지난 소개팅에서 거금 주고 사 먹던 빠네를 단돈 5천 원에 재현해보자. BY 손안나



준비물

- 통식빵 1개(2,300원)
- 즉석 크림 파스타 1개(2,500원)
- 흰 우유 200mL 1팩(800원)
- 라면 스프 약간

합계 5,600원

- 1 가로세로 2cm 정도 테두리를 남기고 통식빵의 속을 파낸다.
- 2 나중에 소스가 새지 않도록 수저를 이용해 식빵의 바닥과 벽면을 꼭꼭 누른다.

- 3 즉석 파스타의 포장을 뜯어 소스를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약 2분간 돌린다.

- 4 데운 파스타에 라면 스프를 넣고 비빈다. 스프의 양은 취향에 따라 조절한다.

- 5 속을 파낸 식빵을 그릇 삼아 파스타 면을 잘 담아내면 완성!

Tip 완성된 요리에 우유를 부어 먹으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

당신만 모르는 남자 콧대의 비밀

높아진 콧대로 원하는 직장과 여자 사람을 그대 품안에!

나 빼고 다 잘생겼다고?!

박 씨는 요즘 TV를 보다가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 남성들도 안면 켈리타가 많이 오른 추세다. 보면 볼수록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이 몰려온다. 곧이어 지난주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 지나가던 사람이 날 보고 괜히 씩소 날리는 이유! 커피숍 알바생이 나에게 싸가지 없는 이유! 소개팅에서 애프터를 신청하면 까이는 이유! 이런 가지가지 세상에 모든 이유를 자신의 외모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마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 땅에 잘생긴 것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여겨져 기 손을 본 것일까?

페이스오프는 원하지 않아!

"일어나라! 남자들이여!"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일어나야 할 게 많은 남자들 이니까. 대표적으로는 '남자의 물건'이 그러하겠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엔 '돈'이, 요즘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선 주저앉은 콧대가 그러해야 한다. 외모에 자신 없는 박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목구비를 찬찬히 살펴본다. 하나

씩 뜯어보면 잘생겼는데 전체를 보면 오징어 한 마리가 땅콩을 물고 있는 일 굴이다.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로 변신도 해보고, 돈 모아서 명품 옷도 걸쳐 보지만 어딘지 모르게 20% 부족하다.

페이스오프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얼굴을 그대로 방지하자니 취업과 결혼이 걱정된다.

박 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남성들에게 얼굴의 중심인 콧대를 '뽀뽀하게' 세우기를 권고한다. 코만 우뚝 솟아 있어도 인상이 달라 보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여자가 남자 얼굴을 볼 때 콧대를 보기 때문이다. 남자 연예인이나 일반 남성들이 잘생겨 보이는가? 그렇다면 코 성형에 비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남자 코 성형이 많이 대중화 되었고 수술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 수술부터 간단한 시술까지 다양한 코 성형 방법이 있으니 이번 겨울 샤프한 콧날로 바람을 가르려는 남자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 단, 아무 곳에서 코 성형을 받는 것은 금물! 낯선 코가 아닌, 낯선 코와 조우할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전문의에게 상담받자.



코는 원래 높았다 아이가,
니가 가라! JK



도움말 주신 분

김형준 원장
(현 JK성형외과 코성형 전문의)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동 대학원 의학과 졸업(성형외과 전문의)
- 가톨릭대학교 부속 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수료
- 성형외과 전문의



자신의 코는 자연산이라고 굳이 말하는 JK성형외과 김형준 원장에게 물어보세요!

Q. 코 성형 후 일상생활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A. 코 성형 후 붓기는 2~3일 정도 눈에 띄게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 테이프와 실밥 제거는 4~7일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후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도 있는 운동이나 술, 담배는 한 달 정도 이후에 하셔야 건강하고 멋진 훈남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술 후 통증이 있나요?

A. 코 성형 시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을 보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빠근함과 육원거리는 증상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코 성형의 통증은 예민한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 무던 정도의 통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통증은 잠시뿐, 당당하고 멋진 콧대로 사람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쬐~욱 즐기세요.

Q. 수술 후 붓기나 멍이 있나요?

A. 코 성형 후 붓기와 멍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붓기를 빼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냉찜질입니다. 수술 후 큰 붓기와 멍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냉찜질을 해주시면 붓기가 빨리 안정적으로 빠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하체보다 상체를 높게 해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서 있거나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코 수술 후 붓기 관리가 중요해서 JK에서는 일주일 동안 에스테틱에서 붓기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산책과 함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면 붓기와 멍은 금방 빠지고 장동건도 울고 갈 '조각 코'가 나타날 것입니다.

before & after



How To Pen Bomb!



도로 위 습격으로부터 탈출하는 법

〈남자를 위한 위험한 책 (The Dangerous Book for Men)〉의 저자 로드 그린리가 알려주는 특급 서바이벌 탈출 팀!



겁도 없이 멕시코 티후아나 같은 우범지대에 들어간 당신. 납치범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동양인 인질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어디선가 나타난 불량배 무리가 도로를 막아서거나, 운전 중에 갑자기 여러 대의 차량이 당신 차 주변을 둘러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저씨〉의 원빈 같은 특수 요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지금부터 실감을 알려주겠다.

➔ 재빨리 항복하라. 만약 당신이 꿈쩍없이 납치 목표물이 되었다면, 순순히 투항하는 게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길일 수 있다. 개똥발에 굴러도 이성이 좋잖아.

➔ 시방에 총알이 날아다니는 일만 몸을 최대한 수그리고 운전대는 엄지로 잡아라. 몸에 총알 구멍이 송송 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라이트는 풀 하이 빔으로 쏘아 악당들의 눈을 순간 멀게 만들자. 이놈 시키들! 생라이트 맛 좀 봐라!

➔ 차를 몰아서 이 난장판으로부터 빠져나갈 시간과 공간적 여유가 있나? 그럼 Y턴을 하자. 차를 멈춘 뒤 90° 각도로 꺾어 후진했다가 전속력으로 밟으면서 주행 방향을 바꾸면 된다.

➔ 당신의 마지막 남은 옵션이 어쩔 수 없이 악당의 차를 들이받는 거라면? 일단 속도를 줄이고 가장 저단 기어를 넣은 다음 에어백을 비활성화한다. 그리고 앞차의 뒷바퀴와 뒤 범퍼를 향해 가속하면서 앞차와 세계 충돌한 뒤 겹싸게 차에서 내려 뛰어라. 어이, 지금 감백이 안 났다고 걱정할 때야?!

볼펜 폭탄 제조하기

맘대로 펜을 집어 가서 안 돌려주는 X 같은 동료들을 위해 부비 트랩을 준비하자. 네 놈 손이 내 책상에 올라가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려나!

※경고: 애새끼들은 따라 하지 마라. 머리 나쁜 어른도 물론.

준비물:

- 폭죽 1개
- 두껍 달린 플라스틱 볼펜 1개
- 보안경
- 풀
- 가위
- 입정
- 귀마개

1 폭죽 마개를 열어 안에 든 색종이를 제거하고, 심지를 폭죽에 정착한 테이프도 떼어낸다. 안에 심지와 연결된 '장약'이 보일 거다. 조심조심 천천히 밀어서 심지와 붙은 채로 빼라. 땡! 당기면 땡! 터지니 조심해. 잘못하면 눈갈 병신 될지도 모르니 보안경은 꼭 쓰고.

2 이제 볼펜 해체 수술을 집도할 차례. 펜 뚜껑을 열고 펜촉이 나오는 구멍 끝으로 폭죽 심지가 빠져나오게 집어 넣는다. 잉크 카트리지를 빼고

다시 펜을 조립하자. 펜 머리를 돌려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면 접착제를 이용해 원래 상태로 붙인다.

3 펜 뚜껑 끝을 입정으로 뚫어 작은 구멍을 만든다. 바늘구멍에 실 꿰듯 그 구멍 밖으로 심지가 나오게 집어 넣는다. 펜 뚜껑을 닫고 끝에 튀어나온 여분의 심지는 감쪽같이 자른다. 이제 볼펜 폭탄을 책상 위에 놓고 그놈이 걸리지만 기다리자. 아주 오줌을 질질 싸게 해주자고, 결절!



덜 튀기며 싸기

유체 흐름과 파동-입자 이중성을 연구하던 브리검 영 대학 물리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송고한 연구를 했으니...

- 소변기 청소 세제는 표면장력을 떨어뜨려 오줌을 더 튀게 한다. 제일 더러운 소변기를 찾아라!
- 최악은 소변기에 수직 발사 또는 아래 고인 오줌 웅덩이에 직격하는 것. 걱정의 골든 샤워가 펼쳐진다면!

- 서서 쌀 때는 몸을 소변기에 최대한 붙이고 아래를 조준하라.
- 오줌 튀는 걸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 쌀 때처럼 앉아 싸기라고 한다.



스마트폰 게임을 완벽하게 즐기는 공식



“게임홀더는 국내 최초 듀얼쇼크3 전용 거치대”

“길이 조절이 가능한 홀더타입으로 최대 6인치 스마트폰까지 거치”

“26도 경사 구조의 인체공학적 디자인”

“게임의 손맛을 아는 당신이라면 게임홀더 아이템은 필수”



FINE Game-Holder

게임홀더 | FINE | 070-8235-9693 | game-holder.com



Smoke & Drink



영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 가격
홀 플러스: 4,050원
술집: 한 만 원
받을라나

영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

저 사진 뒤에 흐릿하게 나온 여자 후배가 물었다. “선배님, 이 맥주에는 초콜릿이 들어있나요?”

BY 유승민

MODEL 에디터 장혜민 김상수



나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무식한 X, 몰트(싹 킴 보리를 말리거나 구운 것)는 굵는 시간에 따라 색이랑 맛이 진해지는데, 그 정도에 따라 캐러멜 몰트, 초콜릿 몰트, 블랙 몰트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초콜릿 몰트로 만든 맥주야. 이 멍청아. 초콜릿 넣은 게 초콜릿 몰트면 캐러멜 몰트는 캐러멜 넣고, 블랙 몰트는 감동이 났냐?”

해박한 나의 지식과 유머 감각에 스스로 감탄하며 찬찬히 맛을 음미하던 중, 라벨에 적힌 문구를 발견했다. <원료: ... 초콜릿(0.15%) ...> ‘이런 깃뎀! 진짜로 초콜릿이 들어있잖아?’ 그렇다. 영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는 초콜릿 몰트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다크 초콜릿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도 ‘더블 초콜릿’이다.

다가올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인 썸녀를 불러내 함께 이걸 마셔라. 그리고 말해라. “너 내가 준 초콜릿 먹었으니까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왜, 밸런타인데이는 여자가 주는 날 아니냐고? 맥주에 초콜릿도 넣는데 그만 게 똥 상관이야. 그리고 헤민씨, 무식하다고 한 거 미안해. 니 말이 맞더라. 사과의 의미로 나가서 영스 더블 초콜릿 한 잔 벨어베리빠? 🍷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 0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커집니다.
- 0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 0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 www.medoctor.co.kr / 02-3445-4514



허 빌려주신 분들
커피 감정단 소개



바리스타 이혜림
큐그레이더 자격증 소지.
풀무원, ILLY에서 8년간 커피
MD로 근무. 현재 흥대 카페
데일즈 파이 운영.



소믈리에 이진우
와인 레스토랑 La Vie En Rose
캡틴/소믈리에,
한국 소믈리에 협회 홍보실장

아직도 커피는 맥심일까?

맥심 모카골드밖에 모르던 시절은 갔다. MAXIM이 맛과 향의 전문가인 바리스타, 소믈리에와 함께 인스턴트 블랙커피의 대표 다섯 브랜드에서 일등과 꼴등을 가려주마! BY 장혜민



1위 루카 다크 아메리카노
가격 10g당 1,942원
동서식품의 카누 성공 이후, 남양유업도 이에 질세라 루카를 출시했다. 이혜림 바리스타는 "끝맛이 정말 깔끔하다."며 루카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이진우 소믈리에도 "뜨거웠을 때의 맛, 식었을 때의 맛이 일맥상통하다. 브랜드에서 의도한 느낌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산미가 적당하고 향도 진짜 아메리카노 같다는 평이다.



2위 카누 다크 아메리카노
가격 10g당 1,875원
국내 믹스커피 시장의 80%를 먹고 있는 동서식품이 공들여 내놓은 늦둥이 카누. 2012년 한 해에 2억 봉지를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한 이 시장의 선봉장이다. 이혜림 바리스타는 "보디감이 뛰어나고 산미가 산뜻하다. 인스턴트지만 커피다운 맛이다."고 말했다. 이진우 소믈리에에는 "신맛이 강하지만 아메리카노의 특성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3위 칸타타 아메리카노 블랙
가격 10g당 1,475원
영하 196°C에서 진짜 원두를 갈아 넣었다는 롯데 칠성의 칸타타 아메리카노 블랙. 캔 커피 대표 브랜드의 명성답게 인스턴트 블랙커피 맛도 나쁘지 않았다. 이혜림 바리스타는 "보디감과 산미가 적절히 어우러져 진짜 커피랑 제법 비슷한데 좀 쓴 편이다."고 말했다. 이진우 소믈리에에는 "일주일 동안 안 팔린 원두로 내린 것 같다. 맛은 시다."고 평했다.



4위 강글리오
가격 10g당 665원
치열한 커피 경쟁에 뜬금없이 녹용 넣은 커피가 출시표를 던졌다. 라면 명가 농심다운 패키지가. 이 실험적인 커피에서는 오묘하고 구수한 단맛이 나는데, 그래서인지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린다. 이혜림 바리스타는 "커피에서 옛 맛이 난다."고 했지만, 이진우 소믈리에에는 "믹스 커피를 좋아하는 대중의 기호에 잘 맞을 것 같다."며 괜찮은 점수를 주었다.



5위 수프리모 크레마
가격 10g당 1,612원
글로벌 강자 네스카페의 작품.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생기는 '크레마' 거품이 생겨 보기엔 가장 에스프레소 커피 같다. 이혜림 바리스타는 "그윽한 우디 향과 크레마가 진짜 커피 같다."고 했다. 반면 이진우 소믈리에에는 "가루에서 김밥 냄새가 난다"며 고개를 저었다. 산미가 강해 호불호가 크게 갈리니 대박 인기를 끌기는 힘들겠다. 어서 텀블러 끼워팔기를 시전하도록.

*가격 기준 - 이미지들

Adult Cocktail



이름만 들어도 곧추서는 야한 이름의 칵테일. 바텐더 ALEX가 국내 최초로 레시피를 공개한다! BY 김희성



Helper

신호민(a.k.a ALEX)

8년 동안 바텐더로 활동하면서 영국,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 다양한 칵테일 기술을 연마했다. 현재 국내 주류 회사에 근무하며 주류와 칵테일을 연구하고 있다.



1 Wet Pussy

'여자의 젖은 거기'라는 뜻을 지닌 이름부터 음탕한 술. 오렌지 리큐어와 크랜베리 주스의 달달함에 상큼한 라임즙까지 더했으니, 맛있다고 쪽쪽 마시다 보면 그녀의 그곳이 젖는다는 마성의 술.

준비물

- 스카이 보드카 10mL
- 오렌지 리큐어 10mL
- 크랜베리 주스 10mL
- 라임 한 조각

만드는 법

글라스에 스카이 보드카, 오렌지 리큐어, 크랜베리 주스를 순서대로 1:1:1 비율로 넣고 그 위에 라임즙을 짜주면 완성. 그 비주얼이 정액이 나오는 모습 같아 보이는 게 나만의 착각은 아니겠지?



2 Quick Fuck

'퀵 팩'의 재료인 칼루아, 베일리스, 멜론 리큐어 셋 다 상당히 달다. 잔을 입에 대는 순간 퍼지는 달콤한 맛과 향에 "저 술 잘 못해요"하는 여자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다. 달고 맛있다고 계속 마시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술. 그러니까 '퀵 팩'은 빨리 섹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술이라는 뜻이다(빨리 싸라는 의미는 아니다).

준비물

- 칼루아 10mL
- 멜론 리큐어 10mL
- 베일리스 10mL

만드는 법

글라스에 칼루아, 멜론 리큐어, 베일리스를 순서대로 1:1:1 비율로 넣는다.



3 Nipple

멜론 소다를 연상시키는 선명한 초록빛 칵테일 이름이 하필이면 '젖꼭지'라니... 멜론 리큐어와 애플 시럽의 단맛에 속아 도수를 망각하고 들이켜다 보면 어느새 젖꼭지가 딱딱해진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오빠, 젖꼭지 한 잔 더 마셔도 돼?"

준비물

- 애플 시럽 10mL
- 진 10mL
- 멜론 리큐어 10mL
- 오이 한 조각

만드는 법

마찬가지로 애플 시럽, 진, 멜론 리큐어를 1:1:1 비율로 순서대로 글라스에 붓는다. 냉장고에 처박혀 있던 오이를 한 조각 썰어 넣으면 금상첨화.

Smoke&Drink

Tobacco Issue



말세야, 말세.

이달의 황당 담배 뉴스

연기 뿜다 진짜 뽕졌네!



지금같이 금지됐을 1936년 럭키 스트라이크 산타 광고. 현재 미국에선 담배 광고에 만화 이미지를 쓸 수 없고, 라디오 광고엔 배경 음악, 효과음을 못 쓴다. 영상 광고는 하얀 배경에 검은 글씨만 쓸 수 있다.



세상의 소금이 되리

지난 7월, 한 블로그에 '필로폰과 대마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걸 보고 연락을 해온 한 30대 여인 라모 씨는 경기도 수원 의 어느 도로에서 글을 올린 25세 한모 씨를 만났다. 한씨는 약속한 물건이 든 봉투를 그녀에게 주고 35만 원을 받아갔다. 라씨는 흥분되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물건을 확인했다. '이 이파리는 어째 낯익은데... 필로폰 맞은 왜 이리 짜지?' 그랬다. 한씨는 필로폰과 대마가 아닌 소금과 담뱃잎을 35만 원에 속여 판 거다. 이 짝퉁한 수법으로 그는 5명에게 총 220만 원을 챙겼다. 그가 만든 '소금 필로폰'과 '담배 대마초'는 겉보기엔 감쪽같았으며 전문가들도 혀를 내몰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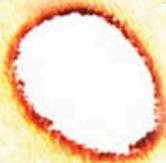
200만 원짜리 담배 셔틀

최근 50대 전직 변호사 조모 씨가 담배 셔틀 잘못했다가 징역을 선고 받은 사건이 알려져 화제다. 2007년 마약사범 정씨의 변호를 맡은 조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에게 "담배를 1번 가져다줄 때마다 2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담배 66갑 (1,320개비)을 서류봉투에 몰래 넣어 집견할 때 전달했다. 그 대가로 조씨는 정씨의 여친에게 총 600만 원을 받았다가 달미를 잡혔다. 회당 200짜리 담배 셔틀이면, 1갑에 9만 9백 원, 1개비에 4,545원... 와우, 이런 고부가가치 셔틀이 있구나!



오, 오줌 좀 빌려주게!

금연 광풍에 흡연자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길거리뿐 아니라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 담배를 끊으면 '금연수당'을 다달이 주거나 흡연자에게 인신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는 회사도 있다. 해당 회사에서는 소변, 혈액, 모발 검사 등으로 흡연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이 때문에 비흡연자 동료의 소변을 몰래 받아 검사를 피해가는 해프닝도 벌어진다고, 파마를 하던 모발 속 니코틴이 안 걸린다고 해서 검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단체 파마를 하는 소동도 있었는데, 그거 근거 없다. 다 걸려. 쟤장!



내 폐는 아직 새 거라네, 짹짹.

담배에 관한 재미있는 숫자들

매일 입술을 비비고 빠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50%

금연한 지 1년이 지나면 흡연자에 비해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절반으로 줄고, 15년을 끊으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회복된다.

6,200,000,000,000

한해 우리 정부가 담배와 관련해 걷는 세금은 약 6조 2천억 원. 정부 1년 예산의 1.75%다.

1,550



보통 2,500원 하는 담배값엔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각종 부담금 등을 포함해 약 1,550원이 세금이다.

1958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필터가 붙은 담배 '아리랑'이 나온 해는 1958년이다.



이달의 뉴페이스

새로 들어온 녀석들 면상 좀 보자.

청청 패션을 아는 놈

에세 체인지 4mg

암전한 늘씬 보디에 숨은 뱅뱅 터지는 반진 매력은 우릴 미치게 만든다.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출시된 초슬림



캡슐 담배 에세 체인지 1mg의 뒤를 이어 에세 체인지 4mg가 나왔다. 남자다운 진한 청색에 푸른 크리스털 무늬의 동그란 장식이 강렬하다. 타르 4.0mg, 니코틴 0.3mg 가격 2,500원

날선 개성이 살아있는 놈

토니노 람보르기니 크리스피



부드럽고 향긋한 한정판 담배가 나왔다. 단단한 3중 튜브필터를 써서 입에 물리는 느낌이 좋고, 패키지 위에 칼날처럼 새겨진 날카로운 삼각형 무늬들이 개성있다. 패키지의 노란 컬러는 병아리반 노랑이 아니라 진한 은행잎 컬러를 닮아 분위기가 있다. 타르 5.0mg, 니코틴 0.50mg 가격 2,700원

유쾌 상쾌한 진들남 콤비

던힐 스위치 6mg & 던힐 스위치 ONE



거 패키지 한 번 시원하다! 물보라가 동그란 캡슐을 둘러싸고 있는 상쾌한 디자인을 가슴에 품은 던힐 스위치 형제. 부드러운 담배맛을 즐기다 캡슐을 터트리면 시원하고 상쾌함이 입안에 퍼진다. 타르 각각 6.0mg, 1.5mg 가격 2,700원

Subscribe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MAXIM
KOREA

LAUNDRY FANTASY
SPICA
스피카 SPECIAL 나래 Ver.

PLAY BALL
맥심 한국판 독점
NBA 스타 메타 월드 피스
Go, Choo!
그를 연호하는 함성이 스타디움을 뒤덮었다. 2014년의 추신수는 1억 달러의 사나이로 될 것인가?

COMING UP!
@Club eden
2013.11.01.FRI
MAXIM Party
Sexy Halloween

SCHOOL STYLE
고려대 VS. 연세대 어느 쪽이 더 구리게 입나
맥심고등학교 열팅일(?) 가을 교복

MISS MAXIM CONTEST
4강행 티켓을 거머쥔 2인의 바니걸 코스프레 대결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HOWTO
공부 안 하고 점수만 올리는 기술 학교에선 당연하긴 가르쳐주지
수능시험 필살신공 제1장

MUSIC
꼭 침 칠지게 잘하는 래퍼 킹스윙스

최대의 살인마 7인의 어둠 분석
MURDER AND TALK
'안호사가 되고 싶다' 바블로 사함을 쟁탈 수 있으니까?

FOR LADIES
하면서 대화하는 남자, 할 때만 평행하는 남자

ONE NIGHT STAND
'지금까지 경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만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크로스바를 벗어나네요'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재, 혹시 당시 이아진가?

2013년 11월호
정가 5,900원

최대
5만 원
할인!



48개월
정기 구독시
무료 증정

INGERSOLL 손목 시계

3개월	정가 17,700원	+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000원 할인 + 1,000원 적립	+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000원 할인 + 2,000원 적립	+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5,000원 할인 + 4,000원 적립	+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0,000원 할인 + 6,000원 적립	+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0,000원 할인 + 8,000원 적립	+ 



*떡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떡=1원)
*사은품은 한정 수량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왼쪽 QR 코드 스캔 후 확인하세요!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KB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MAXIM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거진 앱!
종이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 MAXIM의 아이패드 매거진에는 편리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풀 버전 영상 화보, 종이 매거진에서는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와 깨알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MAXIM KOREA] 또는 [맥심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이패드 매거진 : 1권 구매 시 \$2.99 / 1년 정기 구독 시 \$19.99
아이폰 매거진 : 1권 구매 시 \$0.99

GET TO KNOW...

Mika Newton

이런 미인을 이제야 알아보다니!
데뷔 앨범 <The Chase>로 세상에 얼굴을
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미녀 가수
미카 뉴턴을 만나자.

없으면 못 사는 것 3가지를 꼽는다면

1. 단 것 2. 마이콘 3. 가족

고 카튼(10년 4를 카튼) 경주 로 날 이길
수 있는 남자는 없다.

만약 누가 내 차에 있는 무지막정하게
큰 스레드 인형 을 발견한다면 좀 부끄러울
것 같다.

내가 입에 달고 사는 음료는 그라피 라떼.

내가 들었던 최악의 작업 멘트는
“내가 널 유명하게 만들어 줄게.”

내가 생각하는 우주 최악의 단어는?
“Don't!! (안 돼! 하지 마!)”

난 비타나클 못 먹는 남자랑 데이트하니
차라리 광견병 걸린 침팬지랑 데이트하겠다.

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한테 잘
넘어가는 편이다. ☺



PHOTOGRAPH HARPER SMITH STYLING STEPH STRATE HAIR SUNNIE BROOK/CELESTINE AGENCY
MAKEUP ALEXIS SWAIN MANICURE TRACEY SUTTER/CLOUTIER REMIX



←
Mika Newton

고향: 우크라이나 부르슈틴

직업: 가수

별자리: 물고기자리

애완동물: '모치르트'라는
이름의 애완견 래브라도

이 여자,
영상은
더 예쁘다



Game

CHARACTER OF THE MONTH

검은 사막의 스나이퍼 레인저



거 아가씨가 손맛(?)이 그렇게 끝내준다면서? BY 조용재

검은 사막

〈R2〉, 〈C9〉을 개발한 '필어비스'사가 야심 차게 준비한 MMORPG. 실사 같은 그래픽, 탁월한 조작감, 자유로운 커스터 마이징을 자랑하는 대작으로, 지스타 2013에서도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영상 공개 후, 게임 명가 '베데스다'의 명작 〈엘더 스크롤〉과 비교되며 차기 국산 MMORPG의 선봉장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레인저

액션성 짙은 MMORPG를 할 때 나는 궁수 클래스를 선호한다. 초준점을 찍은 머리를 들고 마우스를 클릭해 활시위를 당겼다가 놓는 순간 포물선을 그리며 적의 머리에 "퍽!" 꽂히는 화살, 얼마나 감칠맛 나는 사냥법인가. 요게 손맛이다! 마우스 터치도록 난타질을 하며 다른 손으로 골짜골짜 물약을 빼는 근본 없는 우리어의 컨트롤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저분한 새끼들, 형은 깔끔해. 한 방이야. (물론 맞아 죽는 것도 한 방이야. 최하하) 궁수를 선호하는 다른 이유는 예쁘기 때문이다. 레글리스도 미청년 아니던가. 〈검은 사막〉의 레인저도 문자 그대로 '글라스'가 다르다. 머릿결을 칠랑거리며 사뿐히 뛰다가 적을 발견하면 살포시 화살을 적의 대가리에 포위당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적이 근접하면 매끈한 다리로 모가지들 후려치거나 가슴에 사랑의 단검을 따끔하게 꽂아준다. 이런 각성이 같으니. 물론 다른 게임 속 궁수처럼 많은 적에게 둘러싸이면 답이 없다. 과수들에게 가차 없이 밟히는 캐릭터의 최후를 멍하니 지켜봐야 할 뿐. (그 모습이 쾌감을 느끼는 유저도 있겠지. 혹시 자기 얘기라면 게임 끄고 웹하드에서 가학성 미연시나 다운받아 즐기는 걸 추천한다.)

장르	MMORPG
플랫폼	PC
개발사	필어비스 / 다음 커뮤니케이션 오픈 베타 서비스 중

실감나는
사냥 영상
맞보기



ToysHeart®

MERRY CHRISTMAS!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토이즈하트 걸즈!



백만 가지 어덜트 솔루션 부르르닷컴에서, 다양한 토이즈하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burur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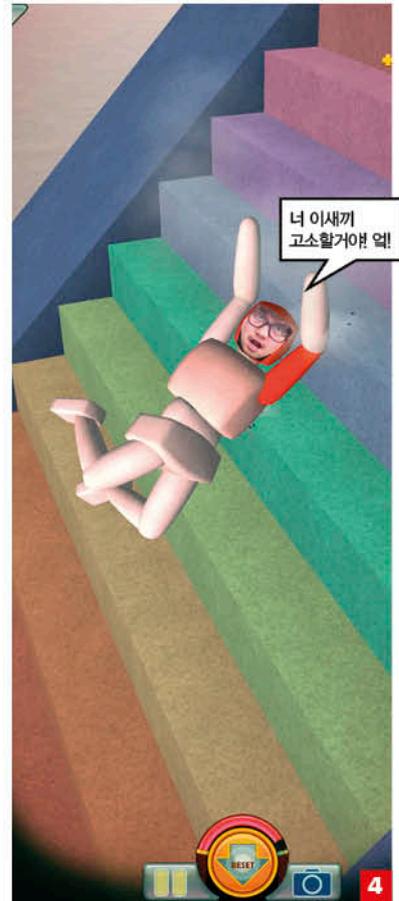
어른들만을 위한 명랑완구 전문점 부르르닷컴 | 부르르 고객센터 1661-7725



m.bururu.com

쾌감 작렬! 인체 상해 모바일 게임

 손안에서 연말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릴 가학적인 게임을 소개한다. 아프나? 나는 신난다! BY 조용재



1. Flatout - Stuntman

제작사 Team6 game studios B.V.
플랫폼 iOS/Android
가격 무료(부분 유료)

현실감이 지나치다 못해 충동할 때마다 차가 개 박살 나는 레이싱 게임 <플랫아웃> 시리즈의 모바일 버전.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차는 그저 예비 송장을 나르는 셔틀에 불과하다. 액셀, 부스터, 브레이크 버튼 외에 '각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각도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운전석에 타고 있던 스텐트맨이 달리는 자동차의 앞 유리창을 깨고 튕겨나간다! 타이밍을 잘 맞추면 수직으로 튕겨나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맛볼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날아가는 스텐트맨을 이리저리 박아대며 점수를 얻으면 된다.



2. Stress Ninja

제작사 PAPPLE STUDIOS
플랫폼 Android
가격 무료(부분 유료)

그래픽과 사운드의 퀄리티는 대학생 게임 공모전 출품작만도 못하다. 하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생각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공, 라켓, 큐대, 일본도, 기관총 등을 입맛대로 골라 병신처럼 멀뚱멀뚱 공중에 떠 있는 난자를 난도질하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반영하듯 무기가 추가된 유료 버전도 인기가 좋다. নিজ스럽고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플레이어의 성질을 돋우는데, 그럴 때 두더지 대가리 패뎀 타이밍을 노려 박살을 내자.



3. End It All

제작사 Diggabytes
플랫폼 iOS/Android
가격 무료

그동안 캐릭터를 조종해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은 많았다. 하지만 자고로 훌륭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법. 이 게임은 자유낙하하는 캐릭터를 밀트(tilt, 기울이기) 컨트롤을 이용해 장애물에 가차 없이 갖다 박아야 득점할 수 있다. 슬로 모션처럼 매우 천천히 떨어지므로 조금힘을 버리고 느긋하게 커피 한잔 하며 즐기도록 하자.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 전기줄에 감전되는 소리 등 장애물에 부딪힐 때 나는 사운드가 시원하게 가슴을 울리며 10년 묵은 체증을 한 방에 풀어준다.



4. Stair Dismount

제작사 SECRET EXIT LTD.
플랫폼 iOS/Android
가격 무료(부분 유료)

<스테어 디스마운트>는 현실에서 시도했다간 쇠고랑 신세를 면치 못할 가학성 게임이다. 능지처참을 하고 삼죽을 멸해도 시원찮을 원수 놈의 얼굴을 더미(차량 안전 테스트에서 쓰는 인체 모형)의 대가리에 찰싹 붙이자. 그리고 적당히 힘을 조절해 밀고 싶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톡" 하고 밀어버리면 된다. 당신의 원수는 사지를 비트는 지랄 발광을 하며 계단을 구를 것이다. 두령이가 땀 뼈를 씹을 때 내던 "오도독"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말이다. 더미의 부상이 심할수록 점수와 쾌감은 급상승한다.

기왕 이렇게 된거 게임따위 마약류로 지정시키고

여성부에서 시키는대로 다 해봅시다.

謹 吊

한국 게임 안녕~ BY onesound

모두들 밖에 나와서 옛날처럼 놀기 시작했다.

하하하~ 호호호~

아유 이것봐 건전하고 좋잖아.

애들도 활동적으로 변하구.

나 노란 구슬에 만원 베티.

난 초록 구슬에 2만원.

맨유 승리 배당 오늘 얼마야?

놀이문화의 고도화

게임을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아유 우리 아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보기 좋네.

초등학교 3학년

엄마 TV보게 방에서 공부 하면 안돼?

엄마!!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TV드라마 같은 거나 볼 수있어?

버리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보수당이 집권을 하는 거잖아!!

재보선 투표도 안했지? 실망이야 진짜.

판검사 될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비키라고!?

유시민이 이래갖고 되겠냐 이말이야!

.....

지적 수준의 상승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는 게 중독 아님니까!

말도 안 듣고

헝기증 난단 말이예요

그게 게임 잘못은 아니지! 게이머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게이머들의 사회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뭘 보여줘야 되나요?

음.....

게이머 일생의 자장소

공지 일별 칼방 계드림 스

글쓰기

분류 ▼ 학력

통장

직업

결혼

취직

헬스

한국의 인간 판단 기준

마약 사용자 구속.

*캔디 크러시 사가는 불법입니다.

잠깐 켜보지만 한거예요!!

저런 저건 마약 맞지.

*스팀의 소리넷화.

steam@steampkorea 새 스팀 주소는 steam4494.inf 입니다.

steam@steampkorea 50% 세일합니다.

steam@steampkorea 그냥 사될 고민해

인터넷&게임으로부터 청정국가 대탄생.

똥

미래 한국의 관광지 화.

한국은 놀람게도 인터넷과 게임을 많이 하면 나쁘다는 가치관을 통해

20세기 문화를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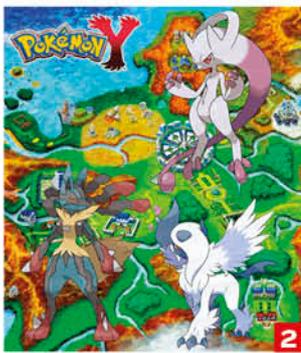
우와 공인 인증서다.

우와 액티브 X다.

*캔디 크러시 사가 같은 색의 캔디를 맞추어 깨뜨리는 모바일 퍼즐 게임
 *스팀 온라인 결제를 통해 정품 패키지 게임을 즉석에서 다운로드하는 사이트 (<http://store.steampowered.com/>)

이달의 걸다리 게임 뉴스

썬도 알 권리가 있는 게임판 소식 이모저모.



1 **왕들의 전쟁**
영화 <어벤저스>처럼, 결코 한곳에 모일 수 없을 것 같은 영웅들이 만나 결투를 벌인다. 블리자드의 신작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 플레이어를 모집 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시리즈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블리자드의 대표작인 게임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의 인기 캐릭터를 한번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거다. 스칼, 케리건, 디아블로 등 블리자드의 내로라하는 캐릭터들이 미지의 공간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콘셉트. 대박 난 캐릭터들을 또 한 번 우려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이다.

2 **닌텐도! 너로 정했다!**
요즘 초딩, 예전 길지 않자만 포켓몬스터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다. 지난 10월, 전 세계에 동시 발매된 닌텐도 3DS 전용 <포켓몬스터 X/Y>가 발매 2일 만에 전 세계 판매 400만 장을 기록하더니, 국내에서도 인기몰이를 하며 순항하고 있다. 15년 전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을 당시 초딩들의 장래 희망을 '포켓몬 트레이너'로 통일시킨 인기 시리즈의 화려한 귀환! 출시일 아침, 판매점에는 다 큰 성인들이 예약한 제품을 먼저 받으려고 긴 줄을 늘어섰는데, 오박사의 부름을 받고 연구실을 찾은 지우보다 더 비장한 표정이었다고.

3 **슈퍼카 시승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슈퍼카 '람보르기니 베네노'를 광속으로 몰며 경찰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획 콘솔 레이싱 게임의 대표작 <니드 포 스피드 라이벌>이 PS3, XBOX360, PC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PS4와 XBOX ONE 버전도 올해 안에 출시된다고 하니 기다려!). 무려 스무 번째 시리즈인 만큼 더 쩌는 그래픽과 다양해진 옵션으로 무장한 이번 시리즈에서는 라이선스 문제를 청산하고 돌아온 페라리 외에도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빠방한 슈퍼카 수십 종을 실사 뺨치는 그래픽으로 만날 수 있다. 어때? 묵허든 질주 반응이 술술 끊어오르지?



이달의 EVENT!



지스타 컨퍼런스 2013

게이머들의 대전지 <지스타 컨퍼런스 2013>이 지난 14일부터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먼 길 찾아온 손님들의 발걸음을 위로하는 뱅뱅한 부스걸 만큼이나 뱅뱅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한창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작이 대거 공개됐다. 다음의 <검은사막>, 넥슨의 <도타 2> 등이 첫선을 보였고, 블리자드의 신작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과 <디아블로3>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이에 참여하려는 게이머들의 줄이 끊이지 이어졌다.

이달의 ISSUE



'게임 중독법' 논란 속 말!말!말!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짓고 감속한다는 내용의 '게임 중독 법안'을 놓고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백재현 의원의 발언이 화제다. 그는 "한 팀이 5명인 것부터 과몰입 요소"라고 지적하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및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놀이 문화를 갖고, "LoL인가 에로L인가?"라는 제목의 PPT를 발표하며 합합 디스전에서 찾아볼 수 없던 올해 최고의 언어유희를 남겼다. 하물며 PPT에는 공식 이미지가 아니라 개인 창작물인 팬아트를 넣어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고.



*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MAXIM
과월호
충알 배송!
(충알을 드리진 않아요.)

자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클릭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챙취하시길!
*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솔직히 <친구2>는 <친구>보다 재미없다.”



곽경택 감독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전작보다 못한 속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이 영화를 밀어붙였다. <태풍>, <사랑>,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통증>으로 이어진 망작 퍼레이드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탓일 거다. 이번 영화는 그의 마지막 동아줄이고,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친구>는 그가 가장 믿는 구석이다.

BY 손안나

누그 아버지
뭐 하시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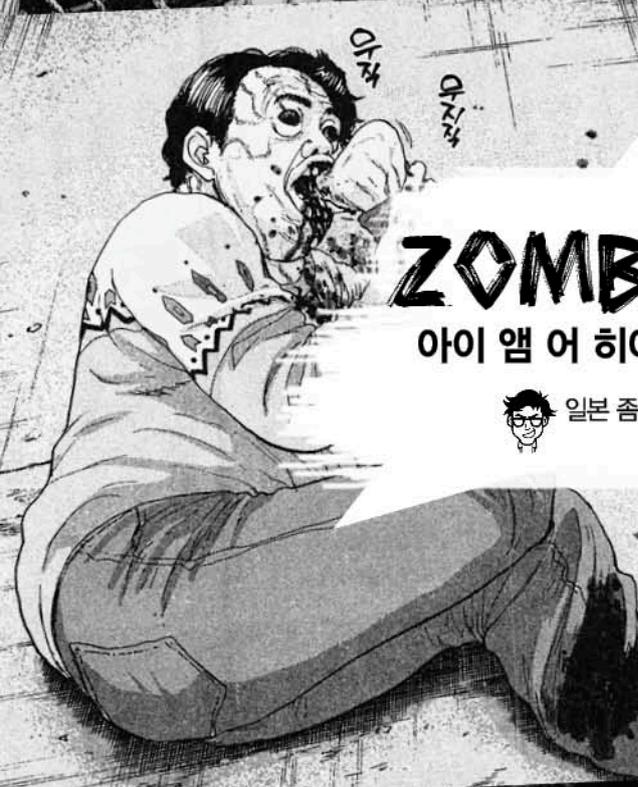
〈친구2〉의 제작 소식에 영화 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친구〉로 19금 드라마까지 만들었으면 됐지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전작의 여운을 망치지 마라”, “괘경택도 갈 데까지 갔다” 등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의 만들새는 예상한 대로 영 별로다. 끼놓고 말해서 영화가 뭘 말하고 싶은지 러닝타임이 끝나도록 알기 힘들었다. 철주(주진모)-준석(유오성)-성훈(김우빈)의 3세대에 걸친 뼈대(?) 있는 대한민국 조폭 일대기는 영화 〈대부〉의 콜리오톤 가문을 잠시 떠올리게도 하지만 시나리오의 개연성은 심하게 떨어진다. 〈대부〉는 커녕 전작인 〈친구〉에도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그런 이유로 평론가들은 시사회 날부터 주구장창 〈친구2〉에 대해 날 선 혹평을 쏟아냈다. 흥행 참패가 기정사실로 접혀졌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성적이 괜찮다. 첫 날에만 30만 명, 19금 영화 중 최단 기간(3일) 100만 관객 돌파라는 대기록까지 추가했다. 특히 남성 관객이 꾸준히 지갑을 열고 있다. 영화를 본 남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굳이 기대도 안 되는 영화를 보기 위해 이들이 비싼 돈 들이고 없는 시간 쪼개서 극장을 찾는 이유는 뭘까? 소문대로 〈친구2〉의 극적 완성도는 낮다. 하지만 잔혹하고 상스럽기로는 최고다. 나무젓가락으로 눈알을 쑤시고, 백주대낮에 쇠방망이로 사람을 뺨으며, 전기톱으로 모가지를 날린다. 영화 내내 이런 원초적인 잔혹함이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작품성도 괜찮으면 좋기야 했겠지만 어째서인지 〈친구2〉는 이걸로 충분한 듯 하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실스나 비아냥도 들려온다. 깊은 여운에 젖은 이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런데 이 수컷들 모두 자기 안에 ‘뭔가’를 채워 극장을 나선다. 남자들 모두는 각자의 전쟁터에서 살아간다. 그곳의 룰에 따라 싸우고, 짓밟고, 이용하며, 굴복한다. 영화 속 압축 사회와 다른 건 사회가 허용하는 틀 안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모든 수컷의 DNA엔 문명사회 이전부터 폭력성이 박혀 있었고 그것은 쉽없이 꿈틀댄다. 자신의 리그에서 겪는 격차와 패배를 폭력으로 뒤엎는 상상을 한다. 두려움을 한몸에 받는 무법자가 되거나, 나를 갈보던 녀석이 벌벌 떨며 내게 목숨을 구걸한다. 상상의 내용은 그리 작품성이 높지 않다. 원초적이고 유치하다. 하지만 쌓여가는 굴욕, 폭력을 향한 욕망을 어떻게든 풀지 못하면 위험한 일탈이 폭주한다. 그래서 수컷들은 본능적으로 〈친구2〉 같은 종합폭력비타민을 찾는다. 그 속에서 우린 끈대 부장의 눈알을 나무젓가락으로 파버리고, 옆 가게 주인놈을 쇠방망이로 조지고, 그녀를 빼앗아간 엄친아 녀석의 목도 전기톱으로 따 본다. 권장량(?)의 폭력을 충분히 섭취하면 오랜 금색 후의 격렬한 사정처럼 후련하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학교, 회사 할 것 없이 각자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수컷들이 영화적 완성도에 대한 전문가의 혹평을 뒤로하고 곳곳이 극장을 찾아 〈친구2〉를 복용하는 이유다. 

IMAGE 영화 〈친구 2〉 중에서

Comment

Comes Back



ZOMBIE Vs. ZOMBIE

아이 엠 어 히어로

워킹 데드



일본 좀비물과 미국 좀비물의 물고 뜯는 만화 배틀!
물리면 X된다! 다들 피해! BY 조용재



가성 좀비물에 도전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비는 초자연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을 저주해 괴롭히는 원혼과는 다르다. 감염을 무기로 순식간에 머릿수를 불러 때로 사람을 공격하니 물리적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부위기로 승부하는 동양 호러물에는 영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2010년, 일본의 신인 만화가 하나자와 켄고가 <아이 엠 어 히어로>를 통해 서양 호러의 전유물이었던 좀비를 새롭게 그려냈다. 싸엔블루가 데뷔했다고 본 조비가 풍족이 탈 리 만무하지만 주목받는 신인은 늘 업계 지존과 비교되는 법. <아이 엠 어 히어로>는 이미 정통 좀비 만화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로버트 커크먼의 <워킹 데드>에 도전장을 던졌다. 아니, 실은 우리가 멋대로 던져 왔다.

좀비가 우글우글!



1 정통 좀비 vs. 퓨전 좀비

호러를 속 크리처의 개성은 몰입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당연하겠지만 <워킹 데드>의 좀비는 굳이 뜯어볼 필요도 없이 매우 전형적인 좀비다. 피부가 찢겨지고 뼈를 드러낸 채 곱창을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 말이다. 반면 <아이 엠 어 히어로>의 좀비들을 보고 있으면 이토 준지의 작품 속 괴물들이 떠오른다. 목이 뒤로 꺾인 채 걸어나거나 누워서 거미처럼 뛰어다니는 좀비들. 기괴하다 못해 작가의 피폭 여부가 의심될 정도다. 후쿠시마 사람인가?

좀비의 아이덴티티를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습성이다. <워킹 데드> 속 좀비들은 의식 없이 인육을 갈구하며 느릿느릿 걷는 오리자날 좀비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인간을 사냥하려면 다수가 동시에 사냥감을 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머리도 팔로도 몸도 팔리니 종(種) 전체가 삼집을 할 수 밖에. 삼겹살 먹어 보겠다고 서울 시민 전체가 시청광장에서 돼지울이를 하는 꼴이다. 게다가 반사신경이 워낙 둔해서 일 대 일로는 야산 뜰 말년병장 하나도 제압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이 엠 어 히어로> 속의 좀비들은 다르다. 일단 좀비가 되면 괴력을 얻고, 이들은 각자 감염되기 직전의 기억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멍하니 걷다가 적을 보면 공격하는 좀비와는 달리 패턴을 예측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우물쭈물 반복하는 주눅 든 샐러리맨 좀비는 덜 위협적이지만, 왕년에 유도 좀 하셨던 할아버지는 좀비가 되면 업어치기와 메치기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심지어 운동 선수 출신 좀비는 5층 건물을 높이까지 점프를 하고 투포환 던지듯 사람을 집어 던진다! <아이 엠 어 히어로> 속의 좀비들은 살아 있는 시체라기보다 역병에 걸린 슈퍼 히어로에 더 가깝다.

2 액션 생존물 <아이 엠 어 히어로>

두 작품은 캐릭터 성격 뿐 아니라 내용 전개 면에서 더욱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인다. 만화가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아이 엠 어 히어로>의 주인공 히데오(英雄-영웅)는 여자 친구 토크가 감염된 것을 목격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수준이다. 사태 파악이 느린 게 아니라 여자 친구의 감염을 애써 부정하려 했던 것 같다. 핏줄이 튀어나오고 눈이 충혈된 것도 모자라 허리를 뒤로 접었다 폈다 하는 여자 친구가 정상으로 보일 남자가 얼마나 될까. 과물이 된 여자 친구를 보고 "급성 알코올 중독인가?"라고 말하는 꼬라지가 답답하지만, 이윽고 말없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주인공을 보면 한편으로 안쓰럽다는 생각도 든다. 알고 있었던 거지. 이윽고 도망 나와 달리는 주인공 뒷편으로 주먹 위에 이리저런 말풍선이 떠오른다. "잠깐만. 엄마, 왜 이래?!", "이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물어! 난 상관 없잖아!" 조용한 도시가 점차 좀비 소굴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인 텍스트로 그려진다.

이후 내용은 순식간에 퍼지는 좀비 바이러스만큼이나 빠르게 전개된다. 생존자 중 거의 유일하게 총기를 소지한(취미가 사격이었다니 운도 좋네)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직 동료, 반 좀비가 된 여고생, 전직 간호사 등이 동료가 되어 역경을 헤쳐나간다. 잠깐 숨 좀 들릴까 하면 달려드는 좀비들 때문에 지루할 틈도 없다. 만화 중간 중간 외전으로 한국과 태국에 좀비가 퍼지는 과정이 나와 재미가 쏠쏠하다. 마치 박진감 넘치는 재난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이다.

3 막장 드라마 <워킹 데드>

정통 좀비물일 줄 알았던 <워킹 데드>는 오히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던 다양한 사람들이 재난 속에서 만나 겪는 내적, 외적 갈등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낸다. 정의감이 넘치는 경찰인 주인공 릭이 탈주범에게 총을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사이, 릭의 동료 셰인이 릭의 아내 로리의 걸을 지키게 되고, 둘은 외도를 한다. 릭이 돌아온 뒤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친한 삼각관계가 펼쳐지고, 결국 비뚤어진 셰인은 릭과 말다툼을 하다가 릭의 아들이 쓴 총에 맞아 죽는다. 질투와 불륜, 살인이 범벅된 막장 드라마에 좀비까지 득실대니 개판도 이렇게 개판일 수가 없다. <워킹 데드>를 꾸준히 보다 보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좀비들이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습격으로 생존자들을 와해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생존자들을 몰물 멍치게 만드는 공공의 적 역할도 한다.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정통 좀비물처럼 멋지게 좀비를 처치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다. 좀비라는 미지의 적을 통해 극한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배신과 불륜, 사랑과 화해가 반복되는 <사랑과 전쟁>의 극한 버전 말이다.

4 진정한 좀비 호러? 당신의 선택은?

아무리 교훈적이고 철학적이라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요소가 없다면 호러물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워킹 데드>를 까는 사람도 있다. 분명 <워킹 데드>는 좀비를 다룬 좀비물이며, 호러 요소인 스릴과 긴장이 있다. 하지만 호러를 유발하는 건 좀비가 아니다. 인간의 공포심 그 자체가 공포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남을 해치면서 위화감이나 불편을 전혀 못 느끼는 무덤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그러나 전형적인 좀비 호러물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밖에. 표면적 재앙 뒤편의 인간 군상을 적나라하게 다룬 색다른 공포물을 즐기고 싶다면 <워킹 데드>를 선택하라. <워킹 데드>의 <사랑과 전쟁>식 이야기가 시시하다면, 그리고 '좀비, 좀비에 의한, 좀비를 위한' 개운하고 자극적인 좀비 호러물을 원한다면 두말 않고 <아이 엠 어 히어로>를 적극 권장한다. 미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 즉 이토 준지식 '코즈믹 호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이 엠 어 히어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작품으로 다가갈 거다. 



아이 엠 어 히어로
글/그림 하나자와 켄고
연재 상태 12권(미완결)
대원씨아이



워킹 데드
글/그림 로버트 커크먼/
토니 무어
연재 상태 9권(미완결)
황금가지

이 장면 무서워!

여기까지 강한 척 했던 에디터를 실은 조금 지리게 만든 작품 속 명장면들



첫 번째 조우

1권에서 주인공 히데오가 신문함을 통해 여자 친구 토크의 방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 좀비가 되어 기괴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토크가 존나 무섭다. 원래 뭇생긴 여자는 좀비가 되면 다른 여자보다 몇 배는 더 무서워지는구나!



인간이 더 무서워

타이리스가 애인인 캐럴 블레 미손으로부터 오물 섹스를 받는 장면. 실은 미손이 타이리스를 유혹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철창 너머로 보고 있는 그것은 캐럴, 온 몸의 털이 곤두서는 순간이다. 좀비보다 이게 더 무섭네.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설마라도 이 소설이 아드레날린의 폭발적인 분비를 유발하는 킬러 미스터리 서스펜스인 줄 알고 선택했을 누군가에게는, 번지수가 달라 미안하다는 이야기.

- <파과>, 335p '작가의 말' 중에서 -

BY 김희성

 킬러가 등장하는 소설이라고 해서 피 튀기는 액션과 잔혹함이 살아 숨쉬는 언어들만 등장할 거라 생각했다. 아주 나쁘지만 맛있는 킬러가 무자비하지만 역시 멋진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몇 달 전 출근길, 홍대 입구역 벽면에 커다랗게 붙어있는 김영하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광고를 보았을 때 맨 처음 그런 생각을 했다. 김영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니 '믿고 보는 김영하'를 외치며 출근하자마자 인터넷 서점에서 <살인자의 기억법>을 주문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서 내가 기대했던 건 <킬빌>이나 <마세티>의 독창적인 액션씬에 견줄만한 실감나는 살해 장면 묘사였다. 오전에 주문하고 오후에 받아 보시라는 서점 광고처럼 책은 퇴근하기 전에 도착했고, 나는 <살인자의 기억법>의 미친 흡인력 때문에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었다. 이걸 다 읽고 나서야 인지하게 된

사실인데, 이 책에는 연쇄 살인범이 등장하지만 그 흔한 살해 장면 하나 등장하지 않았다. 아니, 연쇄 살인범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놓고, 살인마에게 칼 한번 휘두르게 하지 않으니. 그럼에도 이런 흡인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좀 놀랐다. 주인공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일흔 살의 연쇄 살인범이었다. 그리고 보니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킬러가 등장하는 소설이 하나 더 있었다. 구병모의 <파과>에는 예수 님의 할머니 청부 살해 업자가 등장한다. 여기에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파과> 또한 아드레날린의 폭발적인 분비를 유발하는 킬러 미스터리 서스펜스는 아니었다.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연민, 즉 킬러로서는 쓰잘데기 없는 감정이 생겨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였다.

두 개의 소설을 하나로 관통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자신의 범죄를 모두 미제 사건으로 남긴 희대의

살인마와 대모의 위치까지 오른 킬러가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증거 하나 남기지 않았던 그동안의 명성에 결점을 남기게 된다는 거다. 그 일련의 사건이라는 건 그들에게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걸 말한다. <살인자의 기억법>의 주인공은 자신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자 기억이 사라지기 전 자신의 업적(?)을 완벽한 언어로 남기기 위해 시를 배우기까지 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남다른 살인자다. 오로지 '다음엔 더 잘하겠지'하는 아쉬움으로 살인을 저질러온 그는 자신의 딸을 해치려는 존재를 직감하고, 처음으로 목적있는 살인을 계획하게 된다. <파과>의 주인공은 앞날에 대해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으며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연장을 잡는 킬러다. 하지만 그녀 또한 우연히 맞닥뜨려 그녀의 마음 속에 들어온 한 남자와 그의 딸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결심한다.

두 권의 킬러 소설은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생긴 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지킬 것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도 말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생긴 그들은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비록 그동안 자신이 이룩해 놓은 명성을 해할지라도 이전의 삶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몇 번째 생일부터 더 이상 장기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며, '언제부터 이 일을 못하게 될까'를 생각하던 무미건조한 그들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오자 한낱 살인자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꽤 아름답게 느껴졌다.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가치관과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의 대단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소설을 읽어내려 가다보면 그 때의 한 인간이 겪는 내면의 변화가 너무나 송고하여 그들이 원래 킬러였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된다. 결국 이런 살인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두 명의 살인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읽고 나니 두 편의 영화가 떠오른다. 나카시마 테츠오 감독의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과 변영주 감독의 <화차>다. 김민희가 여주인공으로 나와 강마은 신체에서 풍겨지는 특유의 신경쇠약증을 잘 연기했던 게 꽤나 인상적이었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과 <화차>는 비슷한 플롯으로 전개되는데, 평범한 삶을 살던 여자의 인생이 우연한 계기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꼬일 대로 꼬이게 된다는 얘기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에서 평범한 교사였던 마츠코는 수학여행에서 물건을 훔친 제자 대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한 뒤부터 인생이 지독하게도 꼬이기 시작했고, <화차>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아버지가 진 사채빚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찾고자 잔혹한 살인을 시작하게 된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과 <화차>는 점점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여자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는 그녀들이 왜 창부가 되어야 했는지, 왜 그토록 잔혹한 살인을 저질러야 했는지를 이해시키려 하고, 관객들은 그녀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들여다 보다 그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만다. 결국 그녀들이 그렇게 된 것도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라는 최소한의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엔 이것도 사랑 얘기.

아, 혹은나 해서 말하는 건데 살인이나 범죄를 미화할 생각은 없다. 단지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칠 수 있으며 누군가는 지극히 평범한 행복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아주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누군가의 삶은 사실 누군가를 위해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기쁘든 슬프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제 나름의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지도.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지음
문학동네
10,000원

줄거리

살인의 총동, 변태 성욕 따위가 아니라 다음엔 더 질할 수 있을 거란 아쉬움으로 한평생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 어느덧 할아버지가 된 그는 일초하이머에 걸리게 된다.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 자신의 딸을 노리는 젊은 연쇄 살인범이 마을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딸을 살인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기억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게 된다.

<살인자의 기억법> 미리보기

살인자로 오래 살아서 나뉘었던 것 한 가지: 마음은 터놓을 진정한 친구가 없다. 그런데 이런 친구,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있는 건가?
- <살인자의 기억법>, 57p 중에서 -

난생 처음으로 필요에 의한 살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평생 오디오를 수집하던 남자가 회사의 지시로 행사용 앰프를 사러 다니게 되면 아마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 <살인자의 기억법>, 70p 중에서 -

그들을 앉혀 놓고 막 떠들고 싶었다. 첫 번째 살인부터 마지막 살인까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사건들 모두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내 얘기를 들었는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기록들에는 주어가 없지. 목적어와 술어만 즐비한 불구의 기록. 거기 '불상장'로 갈음했을 그 이름, 내가 바로 그 이름, 그 주어다. 그렇게 떠들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겨우 참았다.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 <살인자의 기억법>, 84p 중에서 -

사람들은 악을 이해하고 싶어한다. 부질없는 바람. 악은 무지개 같은 것이다. 다가간 만큼 저만치 물러나 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악이지. 중세 유럽에선 후배위, 동성애도 죄악 아니었다.
- <살인자의 기억법>, 115p 중에서 -

나머지 살인들은 첫 살인의 후련구였다. 손에 피를 묻힐 때마다 첫 살인의 그림자를 의식했다.
- <살인자의 기억법>, 129p 중에서 -



<살인자의 기억법> 받기



<파과>
구병모 지음
자음과모음
13,500원

줄거리

'조각'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부인이지만 사실은 '방역'이라고 부르는 청부살인을 업으로 하고 있는 꽤나 실력 있는 킬러다. 40년 동안 수많은 표적을 단숨에 처리하며 업계의 대모가 된 그녀는 이제 예순 다섯이 됐다. 킬러라는 직업(?)의 특성상 여자로서의 행복과 삶의 희로애락에 무감각해진 채 살아왔지만 우연한 계기로 인해 그녀에게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기게 된다.

<파과> 미리보기

개중에는 모든 손가락을 한 마디씩 끊어서 총 스물여덟 개의 조각을 먼저 보내달라거나 온몸의 관절을 분질러달라는, 깊은 원한의 소산이라고만 하기에 참으로 번거롭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주문들도 많았다.
- <파과>, 39p 중에서 -

대부분의 방역은 이런 식이다. 누가 왜 이것을 원하는지 묻지 않는다. 누가 왜 누군가의 안에서 구제(驅除)해야 할 해충이나 소탕해야 할 쥐새끼가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별레가 된 데에 대해 카프카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파과>, 119p 중에서 -

방역업을 시작한 뒤로 삶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 아닌 현재명중형이었다. 그녀는 앞날에 대해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었으며 그저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늘도 눈을 떴기 때문에 연장을 잡았다. (중략)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일찍 죽기 위해 몸을 아무렇게나 던지지도 않았다. 오로지 맥박이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움직이는 그것은 훌륭하게 부족이 조합된 기계의 속성이었다.
- <파과>, 255p 중에서 -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하나의 존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혼이라는 게 빠져나갔는데도 육신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은.
- <파과>, 283p 중에서 -



<파과> 받기



Let's Talk About Sex



〈슈스케〉 발라버린 〈마녀사냥〉, 대체 얼마나 아하갈래? **BY 손안나**



〈tvNNGEL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강예빈, 한송이, 이예빈 등의 미녀들이 섹시 배틀을 벌이는 서바이벌 방송으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출연자들은 속옷을 벗어 던지고 온 몸에 물을 뿌리며 웨이트 댄스를 추는 등 화끈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많은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이다. 밤늦은 시간 케이블에서 방송됐음에도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방영 내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대중들의 못매를 맞더니 결국 1년 만에 폐지됐다.

그로부터 7년 뒤, 19금 코드를 전면에 내세운 토크쇼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MC 성시경은 〈슈스케〉와 같은 시간대로 편성된 것에 대해 첫 방송에서 "달갈로 바위를 깰 순 없어도 더럽힐 수는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 예상이 그랬듯 달갈은 〈마녀사냥〉이고 바위는 〈슈스케〉였지만 "재밌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마녀사냥〉은 어느새 〈슈스케〉 시청률을 제치고 케이블 예능 대세로 떠올랐고, 엄마와 딸이

함께 방청을 오기도 하는 등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시청자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더럽히는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달갈로 바위를 깬다.

이 방송 중 지나가는 시민들이 길거리에 설치된 TV 속 MC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코너를 보다 보면, 그 수위가 상당히 세서 에디터도 깜짝 놀랄 정도다. 〈tvNNGELS〉 때보다 좀 더 은유적인 표현 방식, 여성도 주체가 되어서 함께 토크를 이어 나간다는 점이 〈마녀사냥〉의 주된 성공 요인이겠지만, 에디터가 봤을 때는 확실히 시대가 좋아진 탓도 크다. 여성들이 야한 이야기 하는 남성을 매력적으로 여기고(‘감성 변태’ 유희열의 인기를 보라), 섹시하다는 말을 칭찬으로 여기며 TV에 나와서 ‘남자 친구와의 스킨십’ 고민을 당당하게 털어놓는 시대가 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MC 신동엽은 매회 “별다른 일 없으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는 의미심장한 클로징 멘트로 방송을 끝낸다. 신동엽이 말하는 그 ‘별다른 일’은 아마도 네 남자의 아슬아슬한 섹스 토크를 천하다고 여기는 끈대들의 탄죽일 거다. 얼마 전, 〈마녀사냥〉은 ‘성적 표현이 장시간 노출’ 됐다는 이유로 방송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9세 미만 관람 불가 딱지를 달고 밤 12시에 방송되는 케이블에서 우리는 굳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방송’을 찾는 게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뭘 모른다.

MC 4인의 말말말

최강의 ‘섹드리퍼’는 과연 누구?



신동엽

줄리아 로버츠를 좋아한다는 게스트에게 “(입 큰 여자를 좋아한다니)지금 잘난척하는 거예요?”



성시경

‘남자는 여자의 짝꿍이 속옷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사람은 알맹이가 중요하죠.”



허지웅

남자는 여자가 술 마시자는 문자만 보내도, (까지 말한 때)널의 말을 끊고 “섯대?”



샘 해밍턴

“...” (그는 보수적인 백인이다.)

욕실 전등 버튼 리모콘에 있는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크리스마스 모텔 가이드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여길 다
가본 건 절대 아닙니다) BY 김희성



참고 서적
(체크인: 가보고 싶은
호텔, 모텔 이색객실/
아름다워요/ 17,000원)



이맘 때면 거리 곳곳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고, 어딜 가나 캐럴이 울려 퍼진다. '크리스마스 따위, 어차피 남의 생일이잖아?'라며 그런 데 연연하지 않는 쿨한 남자 코스프레를 해보지만 이런 쟁쟁, 어딜가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니 안그래도 공허한 마음 달랠 길이 없다.
올해는 함께 보낼 여자가 생겼다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기만 하다가는 솔로보다 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도 있다.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비싼 밥값을 내고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했다. 크리스마스에 가기 좋은 모텔과 테마별 활용법.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할 만하지?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거울방

하루는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거울이 있는 모텔로 나를 데려갔다. 평소에 무난한 모텔만 가는데다 거울방은 처음이라 벽면과 천장이 온통 거울로 되덮인 이곳을 보고 '뭐 이런 별천지가 있나' 싶었다. 처음엔 그냥 인테리어가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옷을 하나씩 벗을수록 사방에 비치는 내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다. 거울 너머에서 누군가 우리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더 흥분됐다.

EDITOR'S GUIDE

거울방은 예쁘다. 예뻐서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베르사유의 궁전에도 거울의 방이 있다고 하잖아.

게다가 거울은 붙여놓기만 해도 화려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굉장히 특별한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에 한껏 도취된다. 당신이 굳이 귀찮게 이것저것 시도하지 않아도 절로 분위기가 달아오를 거다. 그러니까 그녀를 거울방에 데려오기만 해도 **포인트**는 예정된 수순인 셈.
거울방의 특징점 중 하나는 거울에 비치는 조영이 상당히 예쁘다는 거다. 그래서 거울방에 있으면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더 예뻐 보인다. 그런 날엔 자신감이 불어 평소보다 과감해지게 된다. 상대방의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다. 평소 그녀와 해보고 싶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게 있었다면 거울방에서 은근 슬쩍 시도해 볼 것. 성공률은 보장한다.
거울방이 또 좋은 점은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다. 생경하기도 하고 그동안 본 적

Sex / MT Guide

없었던 3인칭 시점에서 보는 섹스 장면이 묘한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쓰리섬 판타지라든가 그녀와 섹스 비디오를 찍고 싶었는데 그녀가 한사코 거부해 못 찍었다면 거울방에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을 거다. 어쩌면 비디오를 찍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될지도... 자, 이쯤에서 관촬은 거울방 좌표를 찍어주마.

추천 모텔 좌표

1 신천 더 샵 901호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1-20

2 종로 2Heaven 208호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33

3 종로 STAR 705호

주소: 서울 종로구 낙원동 153-2



미니바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에 그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보면 어느 샌가 그의 손이 내 허벅지 위에 올라오고, 입맞춤도 하게 되는데

주위에 사람이 있다 보니 스킨십을 애써 자제하느라 힘들었거든.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술을 마시면서 달아오른 분위기를 침대까지 곧장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다.

EDITOR'S GUIDE

크리스마스에 함께 보낼 여자가 없어도 우울하지만 있어도 있는 대로 고민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커플들이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녀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적당히 술을 마신 후 MT로 가야지'라는 지극히 평범한 계획이 실현될지 어쩔지 불투명해지는 거다. 식당을 예약해서 자리를 확보한다고 해도 평소보다 가격이 비싸다. 술집도 마찬가지로. 빈 방 잡기는 더 힘들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거의 천운에 맡겨야 하는 수준이다. 다른 커플들이 밥 먹을 동안 모텔에 간다면 빈 방이 아직 남아 있겠지만 그렇다고 크리스마스에 그녀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모텔 가져'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니바룸은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모텔 안에 바가 있으니 분위기를 낼 수 있다. 괜히 밖에서 엄한 돈 쓰지 않고 사람들 틈에 치이지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

추천 모텔 좌표

4 YaJa 수원역 오 9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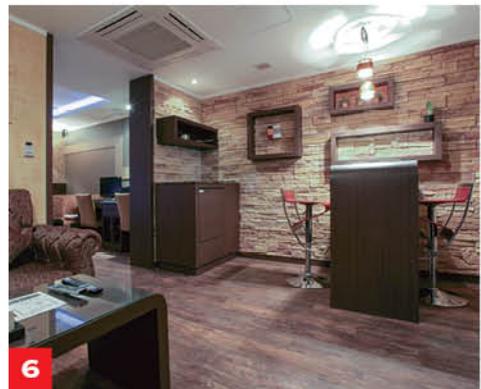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43-8

5 역삼 스텔라 903호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9-16

6 화곡 그레이스 207호

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 1동 905-1



당구대

방 안에 당구대가 있길래 그냥 인테리어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아오른 뒤엔 꽤 훌륭한 소품(?)이 됐다. 당구대 위에 누워서 하는 자세는 꽤 자극적이었다. 또 가고 싶다.

평소 승부욕이 좀 강한 편이다. 그가 내게 포켓볼 내기를 제안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우린 게임에 집중했다. 한창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데 큐대를 잡고 있는 내 허리를 그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다. 온몸에서 힘이 풀렸다.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

EDITOR'S GUIDE

당구대가 있는 방은 파티룸인 경우가 많지만 잘

찾아보면 2인실에도 당구대가 놓여있는 곳이 있다. 솔직히 커플끼리 뭐 그리 열심히 당구를 치겠어. 당구대는 섹스할 때 꽤나 훌륭한 소품이 된다. 침대에서 당구대로 스팟을 옮겨가며 평소와 색다른 기분을 내기에도 좋다. 당구대 활용법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래,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거 말이다.

추천 모텔 좌표

7 온천동 프라이م S201호

주소: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446-1

8 종로 JR 카르페디엠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87

9 장안 넥스 506호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4-6



7



8



9



10



11



12



공주방

스물한 살 댄가? 모텔을 한 번도 기본 적이 없던 나는 MT 가자는 남자 친구의 제안에도 계속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바빴다. 왠지 굉장히 음침하고 무서운 곳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공주 침대가 있다는 남친의 말에 설득당해 MT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생각했던 것처럼 무서운 곳이 아니었다. 남자친구에게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다.

EDITOR'S GUIDE

공주방은 여자들이 한 번씩 꿈꿔본 로망 같은 거다. 그래서 공주방은 아직 모텔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녀, 혹은 당신과 썸만 탔지 섹스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이인 썸녀를 데려가면 효과를 톡톡히 보는 곳이다.

아직 함을 맞춰보지 않은 사이에서는 MT까지 와서 막무가내로 안 하겠다고 버티는 최악의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공주방에서라면 그럴 확률이 낮다. 당신이 자신을 그런 예쁜 장소에 데려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아껴주고 사랑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마음도 (몸도) 활짝 열겠지? 평소 그녀가 귀여운 걸 좋아하는 소녀 취향이라면 여기 데려와봐라. 굉장한 선물이라도 받은 듯 기뻐할 거다.

추천 모텔 좌표

- 10 장안 행복한 눈물 501호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73-2
- 11 종로 힐 B101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137
- 12 서울대입구 시네마 801호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68-18

모텔 밀집 지역

방 없다고 헤매지 말고 일단 여기로...

홍대

홍대는 의외로 모텔 찾기가 백센 동네지만 최근엔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비즈니스 호텔이 많이 생기는 추세다. 숙박 가격이 다른 모텔에 비해 그렇게 비싸진 않다. 2~3만 원 정도 더 비싼 수준? 아, 여기 대실도 된다. 좀 있어 보이는 말을 쓰고 싶었는지 '타임 요금제'라고 하더라고.

신촌

신촌 로타리를 기점으로 서강대와 이대 방면까지 V자로 루트를 탐색해 볼 것.

사당

여기도 황금산맥.

성신여대

대학로에는 의외로 모텔이 없으니 근처 성신여대 입구로 가라. 여대 앞이라 그런지 골목 사이사이에도 아가자기하고 예쁜 모텔이 많이 숨어 있다.

신천

건대 근처에서 놀다가 MT 갈 일이 생겼다면 신천으로 이동할 것. 모텔이 다닥다닥 정말 많이도 붙어 있다.

종로

싸고 시설이 좋은 모텔이 많다. 규모가 큰 곳도 많이 만약 들어갔던 곳이 풀방이라고 해도 주변 모텔들에 희망을 걸 수 있다.

역삼

신사, 압구, 청담에서 술을 마셨다면 역삼으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한 코스.

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고? 그 근처엔 없다. 남부터미널로 가라.

화곡동

명불허전 화곡동. 여긴 말이 필요 없는 동네지...

Stuff

GEAR OF
THE MONTH

믿음직한 작은 고추! 아이패드 미니 2세대



작아도 손이 가는 이유는 스킬이 좋기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지. BY 조용재





태블릿 PC가 붐을 일으키던 당시, 아이패드드는 스마트 기기라기보다는 시대를 풍미한 사기꾼이나 청바지 체인 같은 하나의 트렌드였다. 후려치면 최후만도 쓰러뜨릴 만큼 두꺼운 전공 책이 끼워져 있던 사람들의 옆구리에는 어느새 아이패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이 슈퍼태블릿은 지하철에서 헤드폰을 낀 채 어깨를 흔들어대는 거리의 악사들도 양산했다. 아무 데서나 음악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혼자 비트를 컨트롤하거나 거리 공연을 벌이는 아티스트들 말이다. 그 당당한 앞에서는 i7 프로세서를 탑재한 최신형 삼성 노트북을 가진 사람들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아이패드가 지속적으로 태블릿 PC계를 짊 먹던 어느 날, 애플은 기어코 쇠기를 박겠다고 후대성을 개선한

'아이패드 미니'를 내놓았다. "어떤 크기의 아이패드든 아이패드입니다(Every inch an iPad)"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장한 아이패드 미니는 7.9인치의 콤팩트한 사이즈로 후킹에 성공했고 'LTE를 탑재한 아이패드 2의 미니 버전'이라 불리며 동급 사이즈에서 최강의 성능을 자랑했다. 작은 고추가 제대로 맵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패드 미니 2'는 유저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미니' 시리즈는 아이패드 시리즈보다 기능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던 추측이 무색하게도 아이패드 미니 2의 스펙은 함께 출시할 예정인 최신형 '아이패드 에어'와 동일하다. 전작을 압도하는 성능이러니, 기어이 애플은 이 작은 고추에 구슬을 박고 말았다.

"작은 경이로움(Small wonder)"이라는 슬로건답게 아이패드 미니 2는 최신 64비트 A7 프로세서를 장착했다. 지난 11월호 아이폰 5s 기사에서 언급한 바로 그 고성능 칩셋이다. 그 덕분에 그래픽과 CPU는 지난 시리즈보다 2배 가까운 성능을 갖췄으며, 배터리 효율은 더욱 좋아져 연속 사용 시간이 10시간에 이른다. 충전기를 안 가져와서 똥줄 태울 일은 확실히 줄겠다.

연이은 히트작 출시로 올 하반기 애플은 제대로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레티나 디스플레이 수급 문제로 미니 2의 출시가 내년 초로 연기될 수도 있다. 별 수 있다. 이 정도 페널티는 있어야 국내 경쟁사들도 숨 좀 돌리지 않겠나? 🍷

SPEC CHECK

크기 134.7(짧은 축) x 200.0(긴 축) x 7.5(두께)mm
해상도 2,048x1,536(레티나 디스플레이) 326ppi
프로세서 A7칩(64비트 아키텍처)
메모리 1GB LPDDR3
용량 16/32/64/128GB
색상 스페이스 그레이/실버
모델 Wi-Fi/Wi-Fi + Cellular
국내 발매일 미정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모든 것

제대로 알면 별것 아니다. 그리고 진짜로 별것 아니다.



일단 PPI부터 알고 가라

디스플레이의 밀도, 즉 해상도를 표현하는 단위로 ppi(pixels per inch)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말 그대로 가로세로 각각 1인치짜리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픽셀 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픽셀이 많이 들어갈수록 당연히 픽셀의 크기도 작아지며 밀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텍스트나 사진 등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레티나(Retina) 디스플레이가 무슨 뜻인데?

애플이 아이폰 4를 출시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아이폰 4의 329,65ppi는 인간의 눈으로 픽셀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망막(Retina)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다며 멋들어진 이름을 갖다 붙였다. 이후 사람의 눈으로 픽셀을 식별할 수 없는 ppi를 지닌 디스플레이를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정의한다.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닌가?

맞다. 대부분의 사람이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픽셀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해도 혹시 몽골인이나 타조는 구별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나. 따라서 일반적으로 300ppi가 넘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더러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부른다. 솔까 별것 아니지만 대가리 잘 굴리는 애플은 이것을 훌륭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고로 삼성의 갤럭시 노트 3는 338ppi, LG의 G2는 무려 423ppi를 자랑하지만 그 누구도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존심은 있어서...





커스텀 레고

정대만 레고 하나 주머니에 슬쩍 하려다 겨우 참았다.

PHOTOGRAPH YuD

레고판 만화 <슬램덩크> 디오라마

레고에서 <슬램덩크> 세트를 파는 건 아니니 흥분하지 마라. <슬램덩크>의 레고판 디오라마는 레고 마니아 세 남자의 손끝에서 탄생한 커스텀 작품이다. (디오라마: 본래는 실사 모형을 의미함)

Collector's Profile



(왼쪽부터)

최담백 (본명: 최동원)

- 농구 코트 디자인

제로 (본명: 이한민)

- 피규어 몸통, 얼굴 디자인

단테 (본명: 백대현)

- 가공, 제작, 도색, 우레탄 마감

brick나라에서 활동 중

(cafe.naver.com/bricknara)



슬램덩크의 주인공 강백호 (머리 밀기 전 불량배 버전)



(왼쪽부터) 복산의 송태섭, 채차수, 정대만



깨알 같은 한나씨, 채소연, 안경 선배(이름이 권준호였지 아마? 농남전 역전 3점슛의 주인공)



반갑게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형들, 손이
이렇게 UU처럼 생겼으면 어떡하지?

대체 무슨 일 하는 장인들이시길래
이런 굉장한 걸 만드는 건가?

제로: 직업은 축제기획사 대표다.
취미를 좀 더 즐기고 싶어서 시작한 게
스케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백: 나는 게임 마케터다. 원래는 그냥
레고 콜렉터였다.
최: 나도다. 난 영상 디자이너다.

레고 커스텀은 어쩌다 하게 됐나?

제로: 원래 슈퍼 히어로 버전의 레고를
좋아했다. 그런데 해외엔 특이한 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도색을 배우고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백: 브릭나라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됐다.
정보도 공유하고 번개도 하고, 어느
날인가 술 먹다 "이런 거 디오라마
어때?" 하고 쿵짝이 맞아 하게 됐지.

나도 배워서 미스 맥심을 레고로
커스텀 해보야겠다. 어디서 배우지?

백: 국내에선 우리가 활동하는
브릭나라 카페랑 브릭인사이드라는
카페가 가장 크다. 이번에 브릭
인사이드와 함께 <브릭 코리아 컨벤션

2013> 전시도 했다.

최: 이번 전시로 레고 커스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 전엔
다 큰 놈이 애들 장난감 가지고
노느냐는 소리도 들었는데... 사람들이
레고의 매력을 이제야 알아본 거!

레고의 매력이라... 귀여움?

최: 귀엽기도 하고 프라모델과는 달리
수십만 가지의 창작이 가능하다는 게
레고의 매력이지. 레고는 하면 할수록
다른 레고 제품과의 호환성이 신기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된다.

당신네 자녀들은 초년복이 터졌다!
아빠가 레고 덕후라니!

제로: 레고는 애들 교육에도 정말 좋다.
갖고 놀면서 공간지각력, 창의력이
길러지거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 걸 몰랐을까...
아이언맨 레고도 디테일 찌는군!
정말 금속으로 만든 것 같다.

제로: 이게 끝이 아니다. 1월호엔 더
놀라운 걸 들고 나오겠다.

이 슬램덩크 디오라마보다 놀랍단
말인가? 대체 그게 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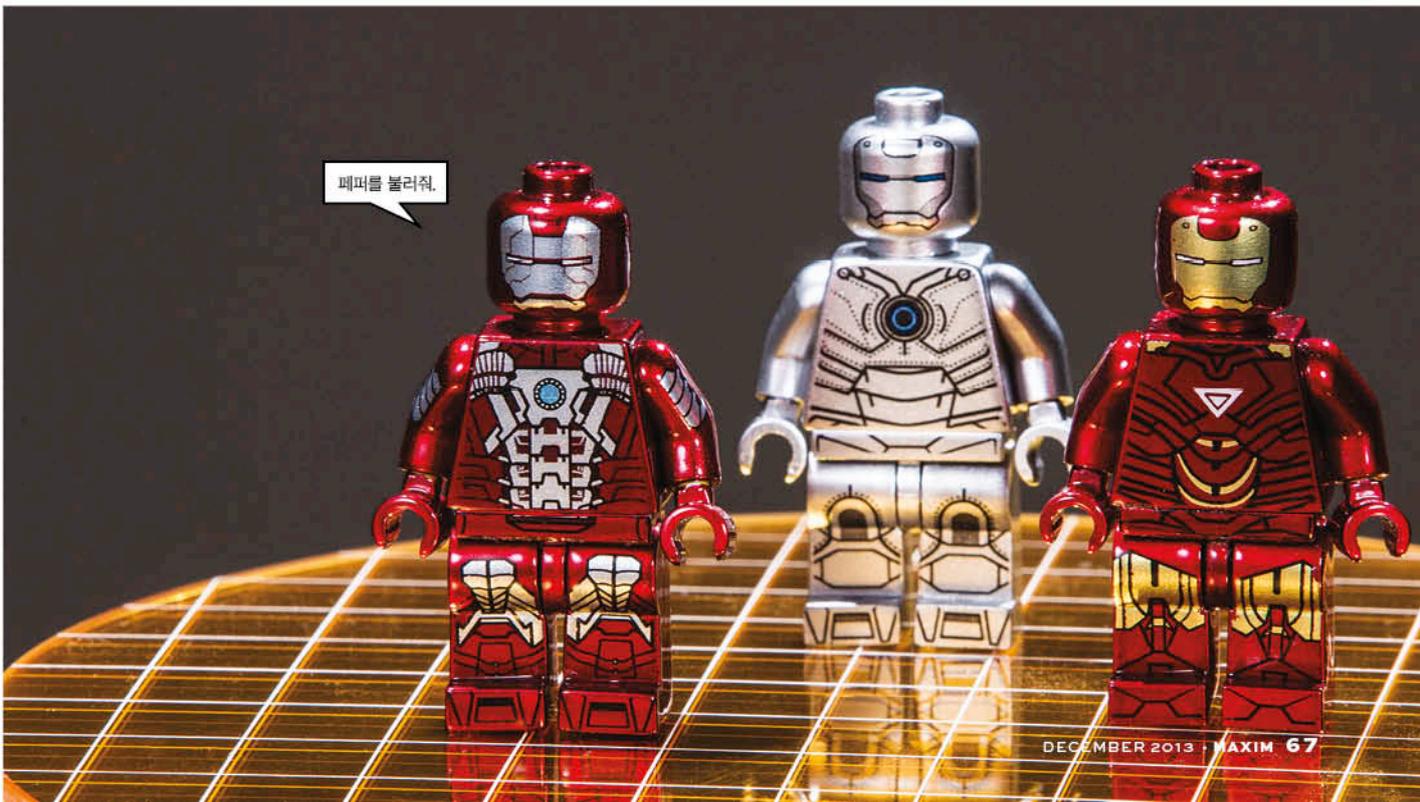
백: 다음 달엔 만화 <진격의 거인>
그리고 영화 <분노의 질주> 디오라마가
MAXIM에 나오려고 대기 중이다. 🍷



(왼쪽부터) 해남의 애늬은이 이정환, 농남의 에이스 윤대현, 야생 원숭이 전호장



부러우면
부모 잘 만나.



페퍼를 불러줘.

라이터를 켜라

"저기요,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내주기 신중
쓰이는 멋진 라이터를. by 김소용

라이터야
신중단지야?



1. 지포 트라이앵글 크로스

마초 간지 살려주는 남자의 라이터 지포!
멋에 살고 멋에 죽는 남자에게 딱이다.
가격 56,000원 문의 지포

2. 가리거리 라이터

오일이나 가스 없이 부싯돌로 불씨를
만들어 담뱃불을 붙이는 원시적 아날로그
감성의 라이터.
가격 50,000원 문의 한강사

3. 에스티듀퐁 CA16736

누가 프랑스 대표 명품 '듀퐁' 아니랄까 봐
백금 도금에 옷칠까지 해 귀티가 줄줄
흐른다. 이불도 안 깔고 찬 바닥에
놓아서 죄송합니다!
가격 1,850,000원 문의 에스티듀퐁

4. 뎡킨 미니 라이터

오일이 쥐 오줌만큼 밖에 안 들어가지만
뭐 어때? 이렇게 잘 빠졌는데?
가격 42,000원 문의 한강사

5. 틴더라이터

어두운 밤길에 유용한 플래쉬 기능이
장착된 USB 충전식 라이터.
가격 50,000원 문의 에스엠선전자

6. 마블러스 탱크 라이터

휠을 돌리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점화가 된다. 간지 작렬!
가격 80,000원 문의 한강사

7. US-106 USB 라이터

비바람이 불어도 문제없다!
USB 충전식 열선으로 불을 붙이니깐!
가격 22,000원 문의 옛지마네

8. 켈거 아스테리온 아웃도어 라이터

입력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불씨를 만드는 그림감 좋은 토치 라이터.
가격 98,000원 문의 제이미 파커스

9. 코리브리 원핸드 오일 라이터

작고 예쁜 자물쇠처럼 생겼다. 점화하는 순간
여자들의 사선이 확 꽂히겠지?
가격 78,000원 문의 한강사



자랑 폭발! MAXIM
할로윈 파티 지포 나이트
한정판 라이터

지난 1월 1일, 클럽 에덴에서 열린
MAXIM과 지포의 할로윈 파티를
기념하는 한정판 라이터가 제작되어
파티장에서 공개됐다. 파티를 찾은
관객들이 이 라이터의 미끈한 폼사에
균형을 잡지 못할 만큼 이루었다.
(뭐? MISS MAXIM 때문이었던고?)



Motor

CAR OF THE MONTH

혼란가중
混亂加重

NISSAN JUKE

개구리, 요다, 사무라이, 두꺼비, 외계인, 몬스터...
헉헉, 이 녀석 별명 다 말하려면 아직 멀었어! BY 박정욱

2,690만원~



SPEC CHECK

배기량 1,618cc | 최대 출력 190hp | 최대 토크 24.5kg.m

주크 vs. 포르쉐 911 소다운!



닛산은 이따금 틀을 깨는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여 왔다. 스타일 아이콘 이호리의 차로 유명한 클래식 로드스터 휘가모와 박스 카의 원조 큐브, 예사 디자인이 아닌 둘은 보편적 미의 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분명 멋지다. 반면 엄청난 괴력을 자랑하는 닛산의 슈퍼카 GT-R이나 주력 세단 일티마는 성능에 비해 다소 무난한 디자인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다. 닛산의 디자인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렸다. 당연히 바라보는 이들의 평가도 정반대로 나뉘어 호불호가 갈렸다. 닛산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에 혼란을 가중시킬 녀석, 주크가 국내에 출시됐다. 확실히 지금까지 국내에서 접할 수 없었던 디자인이라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특이해서 좋다.'와 '특이해서 싫다.' 전체적인 인상은 딱두꺼비처럼 생겼다. 자세히 보니 외계 생명체를 닮은 것도 같은 재밌는 디자인이다. 액셀을 밟으면 경충경충 점프할 것 같고, 상황등을 켜면 레이저 빔을 쏘면서 지구인을 모두 해치울 기세다. 확실히 강인한 근육질 몸매에 개구쟁이 얼굴을 한 독특한 디자인이다. 이 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면 시선을 한 눈에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실 주크의 독특한 디자인은 걱정거리였다. 주크는 '2009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 카 '카자나'의 양산형이다. 닛산이 카자나를 선보일 당시만 해도 이 디자인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놓고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2010년 일본에서 첫선을 보인 주크는 이후 세계적으로 66만 대나 팔렸고, 지금도 주크 운전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튜닝한 주크를 자랑하기 바쁘다. 특이한 디자인이 먹힌 것이다. 닛산도 개성 표출을 중시하는 2030세대를 잡기 위해 미래적으로 흉대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준중형 크로스오버차량(CUV) 시장은 이 요상하게 생긴 녀석의 등장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닛산은 주크의 경쟁 모델로 미니 컨트리맨을 지목했다. 출시를 앞둔 기아 올 뉴 쏘울, 르노삼성 QM3도 입이 바짝 말라울 것이다. 자, 이 특이하지만 매력있는 딱두꺼비는 얼마나 도약할 수 있을까? 🐸

Motor

This is My Car

차에 미쳐서 직장도 때려치우고 자동차 튜닝 회사를 차린 안세준 독자의 애마는 아메리칸 머슬의 정석 포드 머스탱이다. 주인의 손을 탈수록 더욱 섹시해진다는 머스탱을 손봐주기 위해 MISS MAXIM 김수아가 정비공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섹시한 정비공이라면 일부러 사고를 내서라도 찾아갈 텐데...
MODEL 2012 MISS MAXIM TOP4 김수아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7
**FORD MUSTANG
COUPE**



구두 슈즈원



안세준 / 35세 / 자동차 튜닝 업체 <카페인> 대표

활동 중인 동호회: 머스탱 클럽 코리아 - MCK
 내 차 애칭: 탱이
 드림카: 페라리 458 스파이더
 추천 드라이브 코스: 제주도 애월 해안도로



회사 대표라고 해서 대형 세단을 타고 줄 알았다.

고정관념 좀 버려라. 그런 고리타분한 대표라면 자동차 튜닝 회사를 안 차렸겠지!

왜 쿠페를 선택했나?

차는 무조건 문이 두 개여야 한다는 내 나름의 신조가 있다. 사실 두 개도 필요 없다. 내가 타는 차인데 문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 안락한 세단보다 작고 주행 성능이 좋은 쿠페를 선택했다.

머스탱은 주행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

3,000~4,000rpm부터 토크가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 미친다. 촬영장 오는 길도 뺑 뚱려 있어서 마음껏 달리면서 왔다. 바다도 보이고 좋던데?

머스탱의 라이벌은 뭐라고 생각하나?

역시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범블비로 나온 카마로지. 하지만 머스탱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한다. 카마로가 스펙은 머스탱과 비슷한데 영화 때문인지 가격이 더 비싸다.

여러 세대를 거치는 머스탱 중 몇 세대 머스탱이 가장 사랑스러운가?

영화 <식스티 세컨즈>에서 랜달이 마지막으로 탈취하던 그 차, 1967년식 엘리노어*가 아메리칸 머슬의 정석이 아닌가 싶다. 보면 침이 질질 흐른다. 내가 타는 6세대 머스탱도 레트로 디자인으로 그 차를 재해석해서 나온 거다. 반면 4세대 머스탱** 디자인은 내 취향이 아니다.

기름을 땅에 부어대던 머스탱은 1973년 1차 석유

파동 때 거의 망할 뻔했다. 요즘 연비는 어떤가?
 공인 연비는 9.3km/L이다. 그런데 잘 달리도록 튜닝을 좀 했더니 지금은 6km/L 정도로 나빠졌다.

연비가 뭐 깡뎀 수준이다. 그래도 마음에 드나?

뭔가 엉성하고 삐걱대는 맛이 매력적이다. 그래도 힘껏 달리면 장땡인 그야말로 마초적인 차다.

머스탱에 미녀를 많이 태워봤는지?

차만 보고 예쁘다고 관심을 갖다가 날 보고 관심을 꺼버리더라. 게다가 서스펜션이 단단해 승차감이 딱딱하다 보니 타본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머스탱의 장점과 단점을 꼽자면?

속을 썩인다. 그게 좋다. 아픈 거 매만져주면 그에 대한 보답을 꼭 하니까. 단점이라면 덩치가 좋고 그러령거리니까 독일 차를 타는 분들이 종종 오해를 한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머스탱으로 독일 차를 도발한다고 생각하나 보더라. 하지만 독일 차에 발리는 경우가 많아 그냥 짐차고 있다.

다음엔 어떤 차를 사고 싶나?

같은 모델에 컨버터블이 있는데, 그걸 못 산 게 아쉽다. 푸깅 열리는 차를 타고 싶어서 다음 차로는 벤츠 SLK와 BMW Z4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머스탱은 누구를 위한 차인가?

나 같은 상남자를 위한 차다. 🍺



1967년식 엘리노어*



4세대 머스탱**

Motor

This is My Car



자동차 튜닝 전문가 안세준 독자에게 듣는 튜닝팁 ITT



사람은
튜닝하지 마~



2인승 오픈카
태워 준다며...

Tip 1.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추구하는 바가 명확해야 한다. 주행 성능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승차감은 포기하는 게 좋다. 서스펜션으로 예를 들어보자. 서스펜션이 단단하면 고속 주행 중 코너를 돌 때도 핸들링이 안정적이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을 만나면 엉덩이가 따가울 정도로 승차감이 괴팍하다.

Tip 2. 자동차와 남자는 자고로 잘 서야 한다

자동차와 남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잘 서야 한다는 것이다. 튜닝은 바닥부터 올라오는 게 좋다. 성능 향상을 원한다면 생명을 위해 브레이크부터 보강하자. 로터(회전자)의 흠이 곡선 위주로 된 것이 소음이 적다. 또 로터의 반경이 클수록 제동력을 키우기 좋다.

Tip 3. 균형을 잃지 말자.

배기관만 튜닝하는 식의 균형을 잃은 튜닝은 양키(양이치 차)로 가는 지름길이다. 브레이크를 바꾸면 휠을 교체하고, 고출력을 위해 흡기를 대용량으로 바꾸면 공기를 많이 먹으니까 싸기도 많이 싸라고 배기관을 교체해야 한다. 또 출력이 좋아지면 힘이 부치니까 드라이브 샤프트를 바꿔야 한다. 튜닝은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MAXIM 스타크
촬영대가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특급 이벤트는 계속된다. MAXIM 화보로 당신의 애마에게 가장 최고의 호강을 시켜줘라!

“타 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뭐예요?”

지난 5년간 수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먹여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어느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 새 없이 달려준 바로 ‘당신의 차’다.

MISS MAXIM을 만나!

잡지로만 만났던 미스맥시름을 양팔에 끼고 맞을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간직해 뒀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MAXIM에 영원히 남겨주마.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자랑해라!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명팀, 에디터가 당신의 차를 멋진 화보로 남긴다!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차가 공짜 구독 혜택도 안겨준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호가 MAXIM 정기 구독 첫 권!

응모 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메일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 차에 얽힌 재미진 사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안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뺨은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된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A

Alberto Ascari

이탈리아 출신 전설의 드라이버 알베르토 아스카리. 그는 1952, 53년 연속으로 F1 그랑프리를 우승한 최초의 F1 챔피언인 연속 우승자이자, 한 시즌 그랑프리들 모두 우승한 유일한 챔피언이다. 그는 두 시즌에 걸쳐 9연승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고, 그 덕에 페라리도 14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그의 아버지 역시 뛰어난 레이서였는데 36세의 젊은 나이에 경기 중 사고로 사망한다. 30년이 지난 1955년, 불행히 그도 부친처럼 트랙 위에서 사고로 사망하는데 당시 그 역시 36세였다. 행운의 색이 '파랑'이라고 믿은 그는 헬멧, 티셔츠, 장갑, 고글 모두 파란색만 고집했는데, 그가 죽던 날은 파란 재킷과 타이, 헬멧 없이 운전을 했다. 참고로 영국의 슈퍼카 브랜드명 '아스카리'는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Black Champion

골프에 '타이거 우즈'가 있다면 F1엔 루이스 해밀턴이 있다. 흑인 아버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 레이서 루이스 해밀턴은 2008년 F1 사상 첫 흑인 챔피언이 되었다.

Champagne

F1 레이스의 우승자가 포디움(단상)에서 승리의 세리머니를 펼칠 때 삼페인을 터트린다. 세계 3대 삼페인인 검은 올헤로 14년째 그 순간을 함께해오고 있다. 그랑프리 챔피언만을 위해 만드는 보틀 '엠 제로보암'은 3,000mL의 대용량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과 챔피언을 상징하는 숫자 1이 새겨져있다.



Death

1954년 독일. 예선 경기 도중 오노프레 마리노 선수가 사망, F1 경기 중 첫 사망 선수로 기록된다.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는 가장 많은 사망자(7명)를 낸 서킷이며, 가장 많은 사망자(7명)를 낸 팀은 페라리다. 1994년 산 마리노 그랑프리에서 사망한 레이서 아일톤 세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19년 간 사망자는 없다.

Engine

현재 F1 머신은 배기량 2,400cc V형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쓴다. RPM(분당회전수)은 18,000까지다. 내년부터는 1,600cc V6 터보 엔진으로 바뀌며 RPM도 15,000으로 제한된다. F1 엔진의 수명은 겨우 2시간이다. 역대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엔진 제조사는 페라리다. 2~5위는 포드, 르노, 메르세데스-벤츠, 혼다 순이다.

Formula One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평가받는 포뮬러 원. 1950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모터스포츠 이벤트로, 국제 자동차 연맹(FIA)이 주최한다. 연간 TV 시청자는 6억 명.

G-Force

G-포스, 방향이나 속도가 변할 때 받는 중력. 땅위에서 평상시 받는 중력을 1G라 할 때, 2G에선 자기 체중이 2배로 느껴진다. 보통 사람은 4.7G에서 하늘이 까맣게 보이고 5.4G에 달하면 기절한다. 주행 중, F1 드라이버는 1시간 이상 높은 G포스를 견뎌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땐 5G, 가속 시 2G, 코너 돌 땐 4~6G에 노출된다. 한 경기가 끝나면 체중이 4kg 이하 줄 정도로 힘들다. 참고로 우주비행사가 로켓을 타고 지구 궤도에 진입할 때 8~9G를 경험한다. 존 글렌이란 우주인은 훈련 때 최고 16G까지 찍었다. 징하네.

눈앞에서 직접본 F1 레이싱 관람기



Formula one

Hydration

머신의 콕핏(조종석) 안은 무척 덥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경기당 2~3리터의 수분을 땀으로 배출한다. 인간이 자기 체중의 4%에 해당하는 체액을 잃으면 몸과 뇌 기능이 40%까지 떨어지므로 선수들은 경기 전에 물을 엄청 마시고, 경기 중엔 콕핏 안에 달린 물병으로 물을 마신다.

Italy

페라리의 고향 이탈리아. 1950년 첫 F1 챔피언 역시 이탈리아 출신의 주세페 파리나다.

Jochen Rindt

1970년 요헨 린트 선수가 예선 레이스 중 사망하지만 시즌 득점이 앞섰기 때문에 죽어서 챔피언 자리에 오른다. 전무후무한 사망자 챔피언.

Korea

한국은 2010년부터 전남 영암에서 F1 그랑프리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한국인 F1 레이서는 없다. F1의 허부 리그 레이스에 참가를 하긴 한다. 'A1 팀 코리아'가 포뮬러 레이스의 국가 대항전인 A1 GP의 08/09 시즌에 나갔는데 너무 못해서 외국 드라이버에게 "한국은 너무 느려서 (방해되니) 참가를 막아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실망하긴 이르다. 유럽 F3에서 뛰는 임채원 선수가 있으니까. 1984생 서울대 공대 출신의 그는 2009년 레이스에 입문, 4년 만인 올해 유러피안 F3에 데뷔해 우승, 준우승을 맛보고 올 시즌 종합 5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한국인 드라이버 최병길(1985년 생)은 2007년 독일 F3에서 시즌 종합 4위에 올랐고, 폴 포지션* 2회, 우승 2회의 기록을 세웠다. 대단해요!

*폴 포지션: 예선에서 1위를 하면 결승 레이스에서 가장 유리한 맨 앞자리에 서게 된다.

Legend

1960년 브라질 출생인 전설의 레이서 아일톤 세나. 그는 F1 챔피언을 3번이나 차지했다. 우천 시 물보라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각만으로 레이스를 할 만큼 불세출의 천재였던 세나. 그의 별명은 비가 오면 무조건 우승한다고 해서 '레인마스터'였다. 안타깝게도 1994년 5월 1일, 이탈리아 산 마리노 그랑프리에서 310km/h로 달리다가 방호펜스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온 앞 타이어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세나가 죽던 순간, 그의 뒤를 바짝 쫓던 무서운 신인이 바로 F1의 또다른 전설 미하엘 슈마허였다). 장례는 브라질에서 국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인생은 다큐 영화로 다루어져 (세나: F1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국내 개봉했다.



McLaren & Mercedes-Benz

1959년, 당시 최연소 우승자 브루스 맥라렌. 그가 탄생시킨 맥라렌 팀은 페라리에 이어 F1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팀이다. 브루스 맥라렌은 1970년 32세의 나이에 새 차 테스트 주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다. 맥라렌 팀은 현재까지 182개 레이스를 우승, 12명의 챔피언 드라이버를 배출했고 팀 우승도 8번이나 했다. 맥라렌 팀은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SLR 맥라렌(SLR 맥라렌)'을 만들었다. 2003년에 탄생한 SLR 맥라렌은 소위 '뚜껑 열리는 양산차' 중 최고 스피드를 자랑한다. 제로백 3.8초, 626마력에 최고 속도는 340km/h 가까이 된다. SLR 맥라렌은 2009년 한정판 모델을 끝으로 생산을 중단했다.

*기사 안에서 [우승]이라는 표현은 한 레이스, 한 그랑프리 경기의 승리를 말하며, [챔피언]은 한 시즌을 통틀어 1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Number

모든 F1 참가 선수에게는 번호가 주어진다. 전 시즌 챔피언은 1번, 그의 팀 동료는 2번이다. 이번에 베텔이 챔피언이니 내년엔 베텔이 1번, 팀 동료가 2번이다. 3번부터는 전년도 팀 성적에 따라 차례로 배정한다. 예를 들어, 2012년 팀 2위를 한 페라리는 2013년에 3, 4를 받았다. 불길한 숫자 '13'은 빼고 14, 15로 넘어간다. 실제로 13을 단 차량 사고가 빈번했다고 한다.

Oldest

F1에 참가한 최연장자는 1955년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출전한, 당시 56세의 루이 시론. 최연장 우승자는 루이지 파지올리. 1951년, 당시 나이는 53세(+22일). 가장 나이 많은 챔피언은 챔피언십을 5번이나 우승한 걸출한 레이서, 아르헨티나의 후안 마누엘 판지오다. 1957년 그가 챔피언에 오를 당시 나이는 46세(+41일)였다.

Pit In

피트 인. 경주차의 수리, 조정, 점검, 연료 보급, 타이어 교환 등을 위해 피트로 들어오는 것. 피트 크루들은 보통 3초 안에 급유와 타이어 교체를 마친다. 지난 11월 18일, F1 US 그랑프리에서 레드불 팀은 마크 웨버 선수의 피트 인 때 최단 스톱 기록을 세웠다. 이들은 기름 넣고 타이어 4개 가는 걸 1.923초 만에 마쳤다. 그게 가능해?



Qualifying

공식 예선(퀄리파잉)을 거쳐야 결승에 나간다. 제1세션(Q1)에선 22명의 드라이버가 트랙을 자유롭게 달려 랩타임 기록에 따라 밑에서부터 6명의 드라이버를 다음날 결승 출발 시 17~22번 그리드에 배정한다. 제2세션(Q2)은 하위권 6인을 제외한 16명이 트랙을 달려 랩타임 기록을 뽑아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6명을 결승 출발 11~16번에 배정한다. 제3세션(Q3)은 남은 10명의 드라이버가 타임어택 기록순으로 결승 전 1~10번 출발 위치를 결정짓는다. 여기서 1등이 결승 때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폴 포지션). 폴 포지션 최다 기록자는 미하엘 슈마허다. 308회 엔트리에 총 68회 폴 포지션을 기록했다. 드문 일이지만 1983년 22번을 배정받은 존 왓슨 선수가 우승을 한 일도 있다. 가장 최근엔 2008년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15번 그리드에서 시작해 우승을 차지했다.

Rival & Reel

대표적인 라이벌 관계는 아일톤 세나와 알랑 프로스트. 둘의 경쟁은 <세나: F1의 신화>에서 볼 수 있다. 1970년대 서킷을 호령한 두 천재 라이벌 제임스 헌트와 니키 라우다의 이야기도 영화 <러시:더 라이벌>로 만들어졌다.

Schumacher

모터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챔피언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7회 F1 시즌 챔피언에 오른 그는 최다 우승(91회), 한 시즌 최다 우승(13승), 한 시즌 7연속 우승(최근 베텔이 8연승으로 기록 같아치음) 등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독일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카트 대회를 휩쓸며 천재성을 드러낸 그는 2007년에 은퇴, 2010년에 복귀했다가 2012년 다시 은퇴를 선언한다. 최근 로터스로부터 현역 복귀 제안을 받았으나 사양했다.

A to Z



무화과, 산낙지 특산지로만 알았던 전남 영암에서 F1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는 마당에 우리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BY 유승민

Tyre(Tire)

2013 시즌 F1 타이어 독점 공급 업체는 피렐리사. 6종의 타이어를 제공하며 각각 로고의 색상을 달리해 구분한다. 타이어 안엔 일반 공기가 아닌 질소가 들어간다. 그리고 6만 ~10만 km를 교체 없이 달리는 일반 차량과 달리, F1 레이싱 타이어는 겨우 90~120km를 달린 뒤 교체된다. 경기를 마친 타이어는 표면이 고무지우개처럼 매끄럽게 마모되었다.

Vettel

독일의 세바스찬 베텔(1987년 생)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F1 드라이버다. 2013년 시즌 우승은 이미 확정, 이로써 4년 연속 챔피언에 오른다. 최근 미국 그랑프리까지 모든 대회를 승리해 시즌 12승을 기록했고 한 시즌 8연승을 한 첫 번째 선수가 됐다. 종전 슈마허의 기록(7연승)을 갱신했다. 아스카리가 두 시즌에 걸쳐 세운 9연승(최다 연승)은 베텔이 오는 25일 브라질 대회에서 우승하면 타이가 된다. 전설은 또 다른 전설로 이어지고 깨지고 새로 생겨나는 법!

Woman

1975년 헬라 롬바르디란 여성 드라이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F1에서 득점해 6위 입상.

X-mas Gift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실제 레이서에 쓰인 F1 머신의 브레이크 디스크 복시게는 어떤가? 로터스 F1팀이 쓰고 난 브레이크 디스크를 6개월 동안 작업해 탄생시킨 멋진 복시게! 로터스 F1팀의 공식인증서도 함께 포장되어 온다. 가격은 약 85만 원. 제조사는 upcycled motorsport.

Youngest

역대 최연소 레이스 참가자는 19년 125일을 산 하이메 알게수아르(스페인). 알론소, 베텔 모두 19세 때 첫 레이스에 참가했다. 최연소 우승자, 최연소 챔피언, 최연소 4회 연속 챔피언, 폴 포지션을 차지한 최연소자, 공식 세션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최연소자, 포디움에 올라간 최연소자... 이건 다 베텔의 기록이다.

Unhappy News

2014년 영암 F1 그랑프리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돈 때문이다. 돈, 지금까지 쪽 적자를 기록한 영암 F1 대회. "부채액이 7천억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Zero-100

F1 머신이 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2초가 채 안 된다.

MAXIM
시승기
#42

2013
LINCOLN MKZ



1980~90년대에 지나가던 링컨차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망해가다 MKZ를 출시하며 위기를 탈출했고, 이어진 MK 시리즈로 재도약의 전기를 맞았다...는 건 미국에서의 얘기고, 작년까지도 한국 시장에서 링컨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그랬던 링컨이 올해 파격적인 리뉴얼을 단행하더니,

기가 막힌 무결점의 세단으로 미국차의 쿠데티를 이끌고 있다.

링컨의 해결사는 이번에도 MKZ대!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승을 시작한 후 벌써 5명째 내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 써 놓을테니 그만 좀 물어봐라. 차랑 링컨 대통령이랑 '직접적 관계' 없다!

설립자가 그냥 링컨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 담아 이름만 따 왔다! 심플하지?

(각하께서 밤에는 뱀파이어 헌터로 활동하셨는데 그건 일고 지은 거겠지?)

WORDS 유승민 김희성 손안나 PHOTOGRAPHY YuD

MODEL 에디터 김희성





구두 슈즈원

안
추웠나고?
글쎄...



 희성 선배 일어 죽겠네. 우리 지금 12월호 하는 거 맞아요? 이 겨울에 '등짝을 보자 원피스'를 입히다니!

 찼. 하지만 봄에 영국에서 사온 '등짝을 보자 원피스'를 한 번도 못 쓰고 2013년을 보내려니 억울하더라고.

 그러게요? '등짝을 보자 원피스'는 왜 아직 한 번도 잡지에 안 나왔죠?

 원래는 표지 모델 입히려고 샀는데, 연예인 매니저들이 까탈을 부리며 '등짝을 보자 원피스'를 거부하더라고. 결국 희성씨 등짝이 차지했군.

 아깝다. '등짝을 보자 원피스' 나도 노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MKZ도 나를 등짝 노출 세단이니 일맥상통한다고 어거지를 쓰시겠군요.

 그게 왜 어거지야? MKZ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노라마 선루프를 가진 자동차라구. 등짝 노출 세계 1등 차를 시승하면서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험, 아간 추워서 물렸는데 땀별 아래 한참 서 있었더니 벽지랑 등짝이랑 다 빨갛게 익었어요. 모델비도 안 줄 거면서 피부노화 짜네. 흠...

 야, 너는 내가 태닝비 안 받는 걸 다행으로 여겨~ 이 겨울에 돈 주고 태우려면 몇 십 드는데, 너 오늘 돈 벌어가는 거야 임마.

 기가 막혀 진짜. 그런데 차 안에 들어와도 직사광선 작렬이네. 뭘 선루프가 이리 커? 완전 투명 지붕이네요.

 걱정 마라. 엄살꾼아. MKZ의 대형 선루프 글래스는 자외선 차단율 SPF=100+ 짜리 반사 유리니까.*

 그런데 이걸 열리는 선루프가 아닌거봐요? 지붕 전체가 통유리 한 장으로 되어있네?

 그럴 것 같지? 하지만 잘 봐. 강화유리로 된 지붕이 통째로 슬라이딩 도어처럼 열린다니까?

 우왕, 대박! 뒤에 좀 봐요. 우리 지붕 전체가 차 뒷 유리 쪽으로 내려 왔어요.

 알았으니까 빨리 닫고 히터 좀 틀어주세요. 감기 걸렸나봐. 덜덜덜덜...

 낄낄, 알겠다. 히터 풀 파워로 올려줄게.

 엇? 그런데 방금 히터 어떻게 튼 거예요? 뭔가 신기한 걸 봤어! 불빛이 선배 손끝을 따라다니며 움직였어요!

 아, 이거? 링컨의 거의 모든 조작 버튼은 이렇게 센서 터치 방식이야. 특히 오디오 볼륨이랑 바람 세기 조절은 이 금속 바에 손가락을 대고 좌우로 슬라이드하면 조절돼.*

선루프 개폐



자외선 차단 선루프



Motor Girl Talk

4,700 만 원~



2013 MKZ 실내

신기하네요! 저런 걸 익숙한 듯이 터치하는 모습은 왠지 그럴싸해 보일 것 같아요. 이 차 간지나다. 여자 꼬시기 좋겠네.

이게 신기한 한데 편하진 않아. 버튼이나 다이얼처럼 딱딱 손맛이 오질 않아서 오히려 섬세한 조절은 힘들더라고.

여기 푸르딩딩하게 라인 조명 들어간 것 좀 봐요. 인테리어가 완전 우주선 같아요.

우주로봇 MKZ호군. 게다가 회성씨가 그렇게 사이버틱한 원피스를 입고 옆에 앉아있으니 에스퍼맨이 우리매 탄 기분이야. 옆에 데일리 앉히고.

우리매* 가 뭐예요? 데일리는 누구예요? 여자 이름인가?

여자 이름이 데일리(Daily)라니. 왠지 야하다.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잖아.

우리매는 뭔지 모르겠고, 내가 보기엔 아이언 맨을 실내에 퍼발라 놓은 것은 느낌? 실내 디자인도 외관 못지않네요.

MKZ의 인테리어를 맡은 디자이너 중 대빵이 한국 사람이래. 이름이 강수영인가 그래.

남자? 남자? 남자겠네.

*우리매: 심형래가 타는 무적의 로봇

성 감별이 어려운 이름이라 잘 모르겠다. 강씨가 했으니 어렵히 잘 했겠지. 독하기론 우리나라 '인강최'가 먹어주잖아.

강씨도 거기에 들어가요? '최씨 고집'이라던지 '안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는 말은 들어 봤는데 강씨도 그런 게 있나?

내가 강씨의 무서움을 보여줄게. 잘 봐.

이 분이 한 인테리어에서 제일 쇼킹한 게 있거든. 이쪽 가운데 뭐 좀 허전하지 않나?

뭐지... 알레? 기어 레버가 없네요! 어쩐지 여기가 민둥민둥하더라.

P-R-N-D 모두 디스플레이 옆에 버튼식으로 붙어 있어. 진짜 우주선 같지?

그렇긴 한데, 좀 아쉬워요. 남자가 기어 레버를 힘차게 당길 때의 그 팔뚝이 난 참 좋던데. 그럼 버튼식이 더 비싼 거예요?

비싸기보단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수로 기어 레버를 툭 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다닐 때 걸리져 거리지 않아서 좋겠는데?

이게 진짜 까져갔고... 보통 사람들은 너처럼 운전석-조수석 사이를 넘어다닐 일이 없어.

어쨌든 자동차의 존슨을 상징하는 기어 레버를 뽑아 버리다니,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강씨가 진짜 갑이네요.

안나는 오늘 이 차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

흰수염고래! 이 차, 흰수염고래같이 생겼어요!

흰수염고래라, 왠지 그럴싸한데?

멍치도 산만하고 둥글둥글 유선형인데다 앞에 고래수염 달려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으레 저 그릴을 가리켜 독수리 날개 형상이라 하는데, 고래수염이라니... 독특해. 전 구형 MKZ는 눈여겨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별로였어요? 왜 별로 안 팔린 걸까요?

2012년형만 해도 연비 나쁘고 투박한 전형적인 미국 세단이었지. 기름 먹는 하마. 그것도 그렇지만 MKZ의 후면 디자인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난 신형에서 제일 좋은 게 바로 뒤태의 변화야. 구형 MKZ의 뒷모습은 단언컨대 모든 차를 통틀어 가장 촌스러웠거든.

ㅋㅋ, 그렇게나요? 아래 사진을 보니 웃기긴 하네요. 뭐랄까, 거대한 눈썹을 붙였는데 미간이 너무 좁은 얼굴! 관상학에서 미간이 좁으면 미련하다던데...

그 좁은 미간에 링컨 마크가 박혀있는데, 꼭 빈디(힌두교 여자들이 붙이는 장식용 점)를 붙인 인도 여자 같았어.

그랬었는데! 2013년에 엔진까지 싹 다 뜯어고치고 끝장나게 리뉴얼해서 나타난 거지.



MKZ 구형(2012년 형)의 디자인

신형 MKZ의 뒤통은 맘에 드시나 봐요?
 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존나 미라클이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를 모조리 망라해서
 후면 디자인 TOP5 뽑으면 이건 무조건 들어갈 걸?
 하긴 제가 봐도 이 뒤통은 도로에서 시선캐나
 받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등을 한 -자로 짝
 그어버리다니! <엑스맨>의 사이클롭스 눈 같애
 차 뒤통 정말 중요하긴 해. 얼마 전에 흥대
 골목에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한 대가
 수작 걸다 가길래 뒤통을 유심히 봤는데, 1억 7천짜리
 가 기아차 K7랑 똑같이 생겼더라? 그런 거에 비하면
 MKZ의 뒤통은 독창성 터지죠.
 푸핫, 1억 7천 줘는데 K7으로 오인받으면
 진짜 억울하겠다. 이 차는 길이가 거의 5m에
 육박하는 대형 세단인데도 투박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비누알처럼 유선형으로 미끈하게 빠진 게,
 보디라인만 보면 스포츠 쿠페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뭐랄까...
 비싸 보이고 좋다고?
 맞아요.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4천만
 원대라고 해서 감ભ했어요. 훨씬 더 비싸
 보였거든요. 비싸 보여서 좋다 그러면 된장녀 같나?
 비싸 보여야지, 싸 보이면 되겠어?
 '비싸 보이기' 그거 고급차를 표방하는
 회사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비싼 고급차가

비싸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거기 돈을 쓰겠어?
 그럼, 비싸 보여서 좋다는 건 된장 아니지.
 "비싸서 좋다" 그러면 된장 맞지만...
 그렇군요. MKZ는 이제 정말 충분히 비싸
 보여요. 그런데 보기보다는 훨씬 싸서 더
 좋아요. 요즘 미국차 싸다는 게 이런 거군요?
 디자인이 확실히 고급 라인다운 방향을
 잡았어. 링컨이 포드 그룹의 고급
 라인이라지만 지금까지 포드와의 차별화가 약했거든.
 맞대! 링컨이 포드 거죠? 포드에는 럭셔리
 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링컨이 있었군요.
 그렇긴 한데 특히나 MKZ는 위치가 애매했어.
 링컨에서 MKX, MKS처럼 아예 비싼 차는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MKZ는 포드의 '토러스'라는
 차량 포지션이 완전 겹치거든.
 아, 토러스! 토러스를 제가 좀 타 봤죠.
 예전에 만났던 남자가 토러스 몰았거든요.
 링컨의 MKZ랑 포드의 토러스는 배기량도
 출력도 똑같고 심지어 가격까지도 항상 별
 차이가 없었거든.
 그렇구나. 그때 그 토러스남은 MKZ랑 고객
 타기팅이 겹쳤겠네. 결정적으로 동급 세단인
 MKZ랑 토러스가 추구하는 점은 스타일도
 비슷했거든. 재삼 깎아먹기죠.
 심지어 난 고급 라인인 MKZ보다 포드
 토러스가 오히려 더 멋져 보였단니까?

토러스도 멋있긴 하죠. 이젠 진짜로 포드 차량
 역할 분담이 좀 되겠네요.
 링컨을 타고 다닌다고 하면 여자들엔 어떤
 이미지지? 좀 올드한 느낌인가?
 올드하다기 보다는 중후한 이미지죠. 왠지
 전문직이나, 금융권, 법조인, 정계, 관계...
 푸핫, 정 관계까지 나왔어. 선배 이제 그런
 남자 만나게? 링컨차는 이름이
 대통령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영화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나오는 엄청 긴 의전 차량
 같이 생긴 거요. 진짜 기름 엄청나게 먹었던데,
 그게 바로 링컨의 상징과도 같았던 링컨
 콘티넨탈이지. 지금은 2.0 에코부스트 엔진이
 올라간 MKZ가 에이스라니. 참 변화가 빠르다.
 에코부스트! 그런데 이름에 비해 연비는
 별로네요? 10.2km/L 밖에 안 되는데.
 에코부스트 엔진은 절대적으로 연비만 좋은
 엔진이라기보단, 상당한 힘을 내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엔진이야. MKZ가 무려 출력이
 234마력이거든. 겨우 2,000cc 짜리 엔진으로
 말이지.
 맞아요. 구형 MKZ의 3,500cc 엔진의 최대
 출력이 267마력이었으니까.
 아... 계속 얘기하다 보니 진짜 사고 싶다.
 지를...까? 🚗

SPEC CHECK

- 배기량 1,999cc
- 엔진 직렬 4기통 에코부스트
- 연료 휘발유
- 복합 연비 10.2km/L
- 최대 출력 234마력
- 승차 인원 5인승
- 구동 방식 앞비퀴 굴림
- 변속 자동 6단
- 최대 토크 37.3kg.m
- 차체 길이 4.93m



이달의 결다리 모터 뉴스

토크니, 매력이니 관심 없는 사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자동차 핫 이슈.



1



2



3

1 운전석에 앉아야 간지 나는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레이스'가 10월 29일 국내에 출시됐다. 팬텀과 고스트에 이어 어김없이 유령의 이름을 본뒀다. 레이스(Wraith)는 사망 후 육체를 떠나는 바람 같은 유령을 의미한다. 늘씬한 몸매로 빠르게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동명의 <스타크래프트> 유닛처럼 이 녀석은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 날렵한 유선형 패스트백 디자인부터 앞으로 고개를 숙인 '환희의 여신상'까지, 출발선에 선 육상 선수의 모습을 꼭 빼닮았다. 타고보고 싶은 롤스로이스가 아닌 운전해보고 싶은 롤스로이스. 어때? 구미가 당기나? 가격은 3억 9천만 원이다.

2 변신 로봇, 혹은 병신 로봇

'6천만 원+40만 원=7억 원'. 이게 무슨 아간 초등학교 휴학생 같은 계산법이냐고? 모르는 소리! 이 황당한 계산법이 통하는 자동차가 등장했다. 튜닝 카 전시회 '2013 세마쇼'에 등장한 이 자동차는 미국의 튜닝 업체 'JC오트스타일'이 크라이슬러 300C를 마치 롤스로이스 팬텀처럼, 하지만 조금 과하게 개조한 튜닝 카다. 놀라운 점은 <렛미인> 의료진조차 임무를 못 낼 이 차의 성형수술 비용이 단돈 375달러(약 40만 원)라는 사실.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지만 돈이 모자란다고? 일단 300C부터 질러라.

3 김 여사여, 어깨를 펴라!

운전을 지독히도 못하는 여성 운전자를 이제 '김 여사'가 아닌 '김 작가'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독일의 예술가 디르크 스크레버가 11월 7일 미국 밀워키 아트 뮤지엄에 전시한 작품은 다름 아닌 1996년식 현대 티뷰론. 그런데 기둥에 부딪혀 사고라도 난 듯 찌그러진 모양새다. 사실 이 티뷰론은 실제 사고로 망가진 차가 아니다. 작가가 작품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매해 찌그러뜨린 것이다. 뭐? 차를 사놓고 일부러 망가뜨렸다고? 티뷰론이 X나 만만한가? 15년 전엔 멋쟁이들만 타고 다녔는데...

대륙의 짝퉁 자동차 열전



GEELY GE vs. ROLLS ROYCE PHANTOM

짝퉁 모터쇼라는 평을 받은 2009년 상하이 모터쇼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뿐 아니라 '환희의 여신상'까지 롤스로이스를 그대로 모방했다. 길리는 이 차가 "크라이슬러 300C보다 싸다"고 홍보했다고...



BAIC BC301Z vs. BENZ B CLASS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 자동차(BAIC)가 벤츠의 등에 비수를 꽂으며 만든 BC301Z는 엠블럼과 파워 트레인을 제외한 모든 게 B 클래스를 빼닮았다.



LIFAN 320 vs. MINI COOPER

브라질에서 판매하는 중국 자동차 리판 320의 가격은 3만 헤알(약 1,700만 원). 그러나 15만 헤알(약 8,400만 원)의 원조 미니 쿠퍼가 브라질에서 팔릴 리 없지. 미니가 리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브라질 법원은 리판의 손을 들어주었다.

Motor news

스티브제이 앤 요니피와 'NOT NORMAL' 한 MINI

MINI가 유럽스타일의 독특한 디자인과 감성으로 패션 업계에서 주목받는 디자이너 부부 스티브제이 앤 요니피(Steve J & Yoni P)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스티브제이 앤 요니피는 직접 래핑한 MINI 페이스맨을 타고 다니며 낮 노멀한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할 계획. MINI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작된 한정판 티셔츠도 고객들에게 증정한다. 스포티한 MINI 페이스맨의 톡톡 튀는 변신이 기대된다. 작지만 큰 문화, MINI의 노멀하지 않은 라이프를 널리 널리 전파하라! **BMW미니(www.mini.co.kr)**



업그레이드 완성! 푸조 308 Sportium(스포티움)

프랑스 감성 자동차 브랜드 푸조가 대표 모델 푸조 308을 스포티하게 업그레이드한 푸조 308 스포티움을 300대 한정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역동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와 연료 효율성, 우아한 디자인까지 고루 갖춘 푸조 308에 크롬 프론트 그릴과 배지를 달아 시크한 매력을 어필한다. 거기에 한층 성능이 좋아진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해 더욱 즐거운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지만 가격은 기존의 푸조 308과 동일하다. 너 꽤 괜찮다?!

3,240만 원, 한불모터스㈜(www.epeugeot.co.kr)



폭스바겐 한국 수입차 시장 1위 등극

폭스바겐이 한국 자동차 시장을 계속 질주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폭스바겐은 지난 7월 경신한 최다 월 판매량을 다시 경신했다. 특히 폭스바겐의 대표 아이콘인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은 전월에 비해 판매가 50.5%나 증가하며 베스트셀링 수입차에 등극했다. 또 폭스바겐은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선보여 고객 연령대별 판매와 가격대별 판매에서도 각각 1위를 하며 수입 자동차 브랜드의 초강자로 자리를 굳히는 중이다. 이렇다 대한민국 도로는 폭스바겐이 딱 다 접수하겠구만!

폭스바겐코리아(www.volkswagen.co.kr)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프리미엄 스포츠 SUV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랜드로버 모델 중 가장 빠른 속도와 민첩성을 갖춘 스포츠 SUV다. 기존 모델보다 420kg이나 무게를 감량했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체의 강성도 높였다. 거기에 간결하고 매끄러운 유선형의 차체 디자인은 주행 성능까지 향상시킨다. 거기에 최고 출력 292마력, 최대 토크 61.2kg/m의 변강쇠 같은 힘을 자랑한다. 멋진 디자인에 성능까지 뛰어난 올 뉴 레인지로버, 당신은 거부할 수 있겠어?

1억 1,680만 원(HSE), 1억 2,650만 원(HSE 다이내믹), 1억 3,690만 원(오토바이오그래피 다이내믹), 랜드로버(www.landroverkorea.co.kr)



현대 i40 2014, 뭐가 바뀌었나?

더 안전해지고 똑똑해진 i40 2014를 만나보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문을 여닫는 것은 물론 시동도 걸 수 있다. 운전자 취향에 따라 핸들 강도와 변속타이밍을 변경해 더 즐겁게 주행할 수 있으며, 뒷좌석 사이드까지 탑재된 에어백은 탑승자의 안전까지 보장한다. 게다가 스마트키를 가지고 자동차 뒤에 3초만 서 있으면 트렁크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테일 게이트 기능 덕에 짐을 싣고 내리기 편하다. 뒤에서 접근해서 3초면 열린다니 왠지 말만 들어도 좋다.

2,715만 원~2,945만 원, 현대자동차(www.hyundai.com)

ICON



퍼 대함모피
시계 닉슨
목걸이와 반지 힙합크라운주얼리
너클 DOPE
바지와 벨트 브라운브레스
신발 나이키

돌아온 상남자 이현도

‘대한민국 힙합 1세대’, ‘전설의 듀오 듀스’ 이현도.
입을 열면 사자후를 쏟으며 카리스마 대잔치 벌일 줄 알았는데,
어라... 이 형, 진짜 웃기다. BY 조웅재 PHOTOGRAPH Zoo



이렇게 직접 만나다니, 정말 영광이다!
솔직히 성격이 더럽다는 루머를 들어서
처음 봤을 땐 엄청 놀랐다.

뭐, 예전에 돌던 루머가 아직도 돌고 있는 것
아니겠나. 내가 어딜 봐서 남을 힘으로 제압할
체형인가? 아마 젊은 시절 헬기 왕성할 때 주변
스태프에게 가끔 짜증내던 일이 그런 소문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싶다. 나도 이제 마흔둘이다.
과거에는 그랬을지언정 이제는 나잇값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럼 지금은 어떤가? 젊은 시절의 헬기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닐 테고...

원래부터 다혈질 기질이 좀 있긴 하다.
독볼장군이랄까? 하지만 후배 무시하고 선배한테
가는, 그런 비겁한 인간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천사는 아니지...(웃음) 특히 축구를 할 때 더 다혈질이
된다. 공은 날 제쳐도 사람은 날 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촬영 내내 빵빵 터졌다.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남들 웃기는 데는 나를
따를 자가 없었다. 예능감이 좋만했거든. 춤추면서
주목받고 남들과 농담 따먹기 하고... 원래 난 이런 걸
무척 즐기는 남자다. 개그맨 후배들도 그러더라.
“형, 맨날 선글라스 끼고 품만 잡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바이 잘 치는 줄 몰랐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본 ‘듀스’의 이현도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는 법. 내가 어렸을 땐
노주현, 임채무, 한진희 이런 분들이 요즘의 조인성,
장동건 급이었다. 근데 요즘은 “데이터가 남아돌아?!”
하고 계시잖은가.

전성기 때는 조금 슬림한 느낌이었는데, 살이 좀
찘지?

나잇살이라는 게 있잖나. 내가 스물두 살 때 얘기를
하면 어찌자는 건가! 오랜만에 본 PD 형님도
그러더라. “야, 너 요즘 보기 좋다? 그래, 잘 돌아왔어.
근데 왜 살이...”

듣자 하니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구기 중목을 좋아한다. 야구도 좋고, 하지만 역시
축구가 최고다. 내가 지금은 수비수거든. 긴 태클 짹짹
깔아주고 하는데, 이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언젠가는
못 하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는 계속 할 생각이다.

조기축구회에도 가입한 건가?

탁재훈이 단장이고 내가 부단장으로 있는 연예인
축구팀에서 활동 중이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기술
위주로 하다 보니 정작 연예인은 하나둘 관두고
오히려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한 프로 출신 선수가

빵빵 터지는
인터뷰 현장!



시계 휴고 보스
티셔츠 힐브르스
목걸이 굿우드
반지(왼손) 키크로치
(오른손) 블랙스케일
팔찌 굿우드
바지 스투시
운동화 나이키

이현도

생년월일 1972년 9월 5일
신체 174cm, 62kg

데뷔

1993년 듀스 1집 <Deux> '나를 돌아봐'

히트곡

듀스 굴레를 벗어나, 우리는, 알고 있었어,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상처, 악한 남자
감성재 말하자면

D.O 사자후

구본승 너 하나만을 위해

틀라 3! 4!

지누션 말해줘

유승준 열정, 비상, 비전, 연가

김범수 바보같은 내게

주석 정상을 향한 독주 2

에픽하이 Paris

마이티 마우스 사랑해

... 등 다수, 헉헉...

가입하고 있다. 왜 예전에 이천수가 조기축구회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게 우리 팀이다. 그뿐인가. 김병현도 축구를 좋아해서 잠깐 우리 팀에서 뛰던 시절이 있었다. 천수랑 병현이랑 잘 알더라고. 같은 아픔을 지닌 친구라서 그런가.(웃음)

좋아하는 다른 스포츠는 없나?

원래는 유도를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는데 스포츠 힙합과 볼링배 문화에 심취하며 방향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웃음) 지금 생각하면 유도를 관두길 잘한 것 같다. 그때는 몸이 사각형이었거든. 그 왜 <마음의 소리>에 나오는 조석 같은 체형 있었잖아.

축구 같은 동적인 활동 외에도 프라모델을 만드는 취미가 있다고 들었다. 의외인데?

디오라마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해 영화나 민화 속 한 장면을 연출한 것을 좋아한다. 뭔가 기억을 형상화하는 느낌이랄까? 어른들이 비싼 난초를 키우면서 즐겨워하는 거나 우리가 피규어에 몇백만 원씩 쏟아붓는 거나 마찬가지로 뭐.

그래서 프라모델로 상도 탔다며?

고등학교 때 아카데미가 개최한 프라모델 대회에서 T-34 탱크 단품을 출품해 전체 3등을 차지했다. 의심스러우면 아카데미 측에 문의해봐라. '3등 이현도'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사실 그때 SF 모형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영화 전용 미니어처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내 댄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컴퓨터 그래픽이 이렇게 발전할 줄이야! 이것 역시 관두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사자후'로 활동할 당시 쓰던 장갑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안 갖고 나왔나?

그게 언젠적 장갑인데... 당시 할리우드의 SF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맞춘 장비다. 1990년대 초에 유행하던 일본 민화 원작의 SF 영화 <가이바> 특수 효과 팀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주문하니까 꽤 놀라더라. 이런 걸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면서 말이다. 근데 그 장갑의 이름새가 라텍스거든. 나중엔 속이 다 썩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후두둑" 하고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폐기처분했다. 뭐, 잘 보관해놨자지. 미련도 없고 의미도 없다. 문희준은 갈고리를 아직도 갖고 있으려나...

여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뭐야? 난 여자 얘기가만 주구장창 할 줄 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미안하다.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인가?

일단 뉴욕 하이 패션 체형은 거부한다. 뭐 그렇다고 큰 가슴에 연연하는 건 아니다. 반면 엉덩이는 연연한다. 근데 기왕이면 밸런스가 맞는 게 좋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이즈 있잖은가. 그렇더라도 가슴이 너무 크면 곤란하지. 줄넘기하다 앞으로 넘어지면...

아니, 가슴 얘기 말고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말하다.

아, 미안. 하지만 나는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조건 성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컷이 암컷에게 끌리는 것은 성적인 생리 현상이거든. 개인적으로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여자들은 큰 키에

있는 법이다. 일하고 온 남자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남자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일. 그런 건 여성으로서 의무고 예의라고 생각한다. 남자들은 여자를 예쁘고 지켜주고 싶어서 대등하게 대우하는 거지 겁이 나기 때문에 견제하는 게 아니다.

그동안 이성으로 느낀 여자 연예인은 없었나?

솔직히 전지현이 정말 예뻐다. 고소영, 김희선 다음으로는 역시 전지현이 아니었나 싶다.

그만큼 고소영과 김희선은 굉장한 미녀라는 소린가?

어유, 고소영과 김희선은 정말 한국 연예사에서 손꼽히는 미녀가 아닐까 싶다. 참고로 고소영은 내 초등학교 동창이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못 한다고 놀리고 그랬거든. 동건이 형남에게는 비밀이다.(웃음) 소영이네 오빠도 우리 형이랑 같은 초등학교였지. 그런 고소영이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다. 개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다면서.(웃음)

결혼 생각은 없나? 주변에서는 이미 애가 둘인 친구가 많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해야겠다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지. 내 인생의 패턴이나 리듬이 워낙 불규칙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가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하지만 후배들은 그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 얼마 전에 최홍만이랑 이휘재 얘기를 보러 갔는데 참 예쁘더라고.

연예계 마당발이구먼? 모르는 사람이 없네?

아는 사람 얘기 다 했다.(웃음) 흥만이는 같은 아파트 옆 동네 살아서... 원래 그 친구가 랩을 좋아하더라고. 마침 나도 격투기를 좋아했고, 어느 날 흥만이가 쪽지를 보내왔는데 "형님, 저 격투기 선수 최홍만입니다. 형님 팬이에요. 듀스 춤도 다 출 줄 압니다"라고 적혀

있더라.

쪽지라면 싸이월드 쪽지 말인가?

그렇지. 싸이월드가 나한테 쪽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하!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슈퍼주니어가 소개시켜줬지. 보자마자 "형님, 말씀하세요"라면서 너스레를 떨더라. 흥만이는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다. 요즘도 자주 만나서 밥 먹고 TV도 같이 보면서 논다.

음악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키운 디베이스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 요즘 어떻게들 지내나?



남과 여는 결국 음과 양이다. 완벽한 평등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복잡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그런 모습이 무척 귀엽더라고. 굳이 성격을 얘기하자면 여장부 스타일은 질색이다. 오히려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한다.

의외로 여자 보는 눈이 꽤 보수적인 것 같다.

요즘 시대에 남녀가 평등하다는 게 50 대 50.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남과 여는 결국 음과 양이다. 완벽한 평등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럴 거면 아삿짐 옮길 때 여자도 같이 장롱을 날라야지!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만큼, 여자는 여자 나름의 역할이

아이구... 그 친구들 근황을 얘기하자면 좀 길다. 제일 잘생긴 멤버는 장가 잘 가서 신발 공장 하면서 살고 있고, 현준이라는 친구는 아직 꿈을 못 버리고 토니안 밑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다. 제드는 일다시피 임창정이랑 아삼육으로 붙어서 앨범 내고 있고... 멤버 중에서도 환호라는 친구가 특히 대변신을 했지. 예전에 슈퍼주니어 애들이 "디베이스 형님들 요즘 뭐 하세요? 진짜 멋있었는데..."라고 물어보길래 "아, 환호는 갱스터야 갱스터. 염구리에 칼 차고 다녀"라고 농담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웃음) 실은 그냥 제3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다. 식구의 연은 예전에 끝났지만 요즘도 가끔씩 서로 안부를 묻곤 한다.

오랜 팬들 입장에서는 당신의 실력이 과소평가되는 게 아쉬울지도 모르겠다. 알고 보면 히트곡 제조기인데 말이다.

콜라의 '3! 4!'나 유승준의 '비전', '연가', 지누선의 '말해줘' 등등 질나가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수만 선생님이 예전에 '행복'을 부른 가수였다는 걸 누가 아니? 요즘 애들은 심지어 양 사장이 뭐하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서태지와 아이들? 그게 뭔데?" 하겠지. 원래 그런 거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것들도 다 함께 물 흐르듯 흘러가는 거지.

자신의 히트곡 '여름 안에서'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 이 곡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비슷한 질문을 하도 받아서... 힙합이고 뭐고 다 떠나서 대중 작곡가로서 시즌 송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작곡가로서는 가장 뿌듯한 족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듀스 20주년 헌정 앨범에도 걸스데이 소진이 부른 '여름 안에서'가 수록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리메이크 곡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꽤 참견을 많이 했거든.(웃음) 다른 리메이크 곡과 달리 '무리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가장 무난한 '여름 안에서'라고나 할까?

이번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이 앨범을 많이 들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겠다.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올여름에는 해운대에서 듀스의 오리지널 버전만 종일 틀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20주년 앨범이 나온 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오...

매년 여름마다 저작권료 수입으로 배불리 지내겠구나?

플레이되는 만큼 저작권료가 들어오지. 꽤 쓸쓸한 편이다. 작사, 작곡 전부 이현도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뭐,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몸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죠. 문 내 게 달린 차도 있고요"

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드림카 같은 건 없나?

솔직히 남자라면 다들 차 좋아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김진표처럼 차에 엄청 빠져 있는 건 아니다. 물면서 자기도 뿌듯하고 희소성도 있는 그런 차라면 좋겠지. 굳이 꼽자면 페라리 정도?

어라? 김진표 씨는 얼마 전 우리 표지 모델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아는 사이인가?

진표는 상문고 후배다. 예전에 천리안, 하이텔 등 PC 통신이 유행하던 시절에도 가끔씩 "저는 패닉으로 데뷔한 김진표입니다. 현도 형의 음악은 너무 상업적이 되었습니다"라며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고... 당시 진표가 막 패닉으로 데뷔했을 때였는데 내 팬들이 그런 얘기 올라오면 다 퍼다 나르고 그랬거든. 아주 볼 같은 친구였지. 지금은 양복과 <탑기어 코리아>로 자신을 커버하고 있지만 그 녀석이야말로 진짜 볼 같은 친구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만난 김진표는 엄청 쎈데하고 멋진 사람이던데.

뭘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나. 농담이고, 나도 많이 좋아하는 친구다.



뭘야? 난 여자 얘기만 주구장창 할 줄 알았는데.



지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신경화와 고영욱 디스 얘기의 전말이 궁금하다.

아아... 그건 솔직히 내가 질뻔했다. 본인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일 텐데 <라디오스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좀 후회된다. 방송 콘셉트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술자리에서 할 얘기를 술 안 마시고 방송에서 하는 게 <라디오스타>거든.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영욱이랑은 요즘도 종종 서신 교환을 한다. 근데 박찬호 얘기랑 TV 무순 얘기는 사실이다. 어디 아니라고 해봐! 가족이라도 걸자고!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뮤지션이 있나?

뮤지다. 예전에 듀스의 오마주처럼 만든 '집행유예'라는 곡을 할 때 만났는데, 음악을 만드는 데 엄청나게 치밀한 친구더라. 오죽하면 '집행유예 아아아~' 같이 노래 못 하는 부분까지 캐치해서 살렸겠는가.(웃음)

얼마 전 후배들의 디스전으로 가요계가 시끄러웠다. 그때 당신도 한마디 거들었었지?

그렇지 않아도 그와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다가 트위터에 '켄드릭 라마(켄트럴 비트의 원작자)가 지른 불이 여기까지 번졌네?'라고 글을 남겼더니 찌라시 기자들이 그걸 또 퍼다 날라서는... 여기저기서 "아르헨도 너는 뭐냐 닥쳐라!"라는 악플이 달리고, 아니 내가 뭘 어썸다고!

후배 힙합 뮤지션들의 디스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디스전은 UFC 같은 거다. 를 안에서 심판이 말할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디스를 할 때 욕도 좀 맛깔나게 섞을 수는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시발 놈', '개새끼'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다. '시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라임을 만들어 공격한다든가 뭐 그런 윗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드하지만 더티하지 않게.' 솔직히 이번 경우에는 갈수록 흥탕을 싸움어 된 것 같아 좀 아쉽다. 하지만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 싸움 구경이랑 볼구경이 제일 재밌다더니...

UFC! 당신도 좋아하나? 우리도 엄청 좋아하는데!

격투기를 꽤 좋아한다. UFC에 나오는 한국 선수들은 특하나. 최근 정찬성과 조제 알도의 경기는 엄청났다. 라운드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곳곳하게 조제 알도를 견제하는 정찬성의 패기면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였다. 보다 보면 배울 점도 많다. 앤더슨 실바 같은 경우도 그랬지. "영원한 챔프는 없다. 건방짐 끝에 달하면 결국은 한 방에 훅 간다" 같은 교훈이랄까?(웃음)

역시 상남자다운 취미로군.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남자'란 무엇인가?

육체적으로 굳이 강해야만 남자가 아니다. 물론 이왕이면 센 게 좋겠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것이 남자 아닌가. 하지만 강자와 약자를 가리는 비겁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우리는 수컷이기 전에 인간이지 않다. 가끔은 일부러 약자에게 꼬리를 내려주기도 하고, 불합리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화도 내고, 그렇게 사는 게 멋진 남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끝으로, 자칭 애독자로서 당신이 생각하는 MAXIM은 어떤 잡지인가?

솔직히 나는 MAXIMI가 남녀가 함께 볼 수 있는 남녀 공용 잡지로 거듭났으면 한다. 야한 사진으로 도배한 도색 잡지라는 오해는 하지 말자. 그건 진짜 일부러가거든. MAXIM에 들어 있는 깨알 같은 드립과 유익한 정보는 남녀가 함께 봐도 무방한 내용이 많으니깐 말이다. 오누이가 돌려 보고, 남친 여친이 함께 보고, 아버지가 어머님도 하루씩 보시고... 아, 근데 MAXIMI가 여자한테도 인기가 있으려면 이현도 커버는 좀 아니지 않아?

괜찮아요 형님. 백커버거든요.

A woman with long brown hair is wearing a red Santa hat and a red velvet strapless dress with a leopard print top and a black bow. She is also wearing black fishnet stockings. She is posing in front of a white door with ornate carvings. Her right hand is raised near her face, and her left hand is near her chin.

Lonely
X Sexy
Christmas
with
Kang Ye Bin

BY 김희성 / WORDS 박정욱 / PHOTOGRAPH YuD



Invitation

매년 12월 최고의 섹시 산타를 표지로 선정해온 MAXIM 편집부.
2013년에는 독자들에게 어떤 산타를 선물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그녀가 떠오른다. 지난해 할로윈 화보를 끝내고
올해 크리스마스를 MAXIM과 함께 보내자고 약속한 섹시 스타 강예빈.
고민할 것도 없이 다이얼을 돌린다.
“예빈 씨, 올해 크리스마스 함께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한다. “당연하죠!” 역시 의리의 강예빈.
그녀가 약속을 지키러 한걸음에 MAXIM을 찾았다.
한층 더 섹시하고 성숙해진 그녀가 연 나홀로 크리스마스 파티.
그곳에 당신을 초대한다.





그동안 잘 지냈나? 작년 MAXIM 10월호 할로윈 화보를 찍으면서 다음번엔 크리스마스 화보를 찍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 이번 촬영은 어땠나?

예전에 촬영한 스태프와 함께해서 더 친근했다. 크리스마스 화보라 밝고 발랄한 걸 생각했는데, 초대도 못 받고 혼자 집에 남은 고독한 여자 콘셉트라니... 슬프고 어두운 느낌의 화보는 별로 찍어본 적이 없어서 색다른 기분이었다.

그나저나 1년 전 약속을 지키다니, 당신의 의리에 감동했다. 우리 약속 하나만 더 하자. 또 만나게.

한국 말고 외국에서 화보를 찍어보고 싶다. 보라카이 같은 해변에 혼자 여행 온 여자 콘셉트 어때? 필리핀에 준재벌인 친구가 있다. 그 친구 집에서만 촬영해도 멋지게 화보가 나올 거다.

일 핑계로 당신과 함께 보라카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가? 편집자에게 적극 건의하겠다. 당신은 산타가 없다는 걸 언제 처음 알았나? 다섯 살 때 엄마가 내 머리맡에 선물을 놓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다. 그다음부터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할 땐 꼭 엄마 앞에서 다 들리게 꼭 집어서 말했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얼 할 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시간이 된다면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겠지? 우리 집에 미러볼도 있고 냉장고엔 술이 가득 차 있다. 아, 산타클로스가 남자 친구를 선물로 준다면 감사히 받겠다.(웃음)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있나?

사실 밖에서 잘 노는 성격이 아니다. 오늘 촬영 콘셉트처럼 크리스마스엔 대부분 혼자 집에서 보냈던 것 같다.

큰아버지 같은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거 결혼은 언제 할 건가?

3년 후에 할 거다. 내년엔 남자친구 만들어서 1년 연애하고 바로 결혼할 거다.

어떤 직종의 남자가 좋은가?

같은 엔터테인먼트 직종의 남자에게 끌린다. 같은 일을 하니 여자가 새벽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더 이해해해주지 않을까?

MAXIM 에디터도 그런 거라면 잘 이해해줄 수 있다. 잡지사 에디터는 어때?

좋지! 비슷한 일을 하니깐(웃음).





크리스마스는 대부분
집에서 혼자 보냈다

예전에는 단순히 섹시 스타 이미지가 강했다면 올해는 드라마를 세 작품이나 하면서 연기자 이미지가 많이 강해졌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나?

코믹한 역할을 좋아한다. 주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배역에 욕심이 난다. 예전에 배우 김정은이 자주 보여준 코믹한 여주인공 역할을 맡고 싶다.

요즘 드라마 촬영하느라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금쪽같은 여가 시간엔 주로 뭘 하나?

주로 강아지들과 함께 놀거나 기타 연습을 한다. 코드를 하나하나 마스터하는 과정이 행복하다.

클라라, 이수정 등 2013년엔 유독 강예민의 라이벌이 많이 등장했다. 신홍 섹시 스타들의 등장엔 긴장되진 않나?

그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도 라이벌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라이벌이 등장할 텐데 같이 먹고살아야지. 라이벌이 없다면 내가 빛을 잃을 것 같다. 그분들과 함께 섹시 스타로 불리는 점이 고맙다.

섹시함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몸매를 관리하는 비법이 있다면?

군살이 붙지 않도록 꾸준히 식단을 관리한다. 이번에도 MAXIM 화보 촬영 때문에 일주일 동안 브로콜리만 먹었다. 인터뷰가 끝나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거다.

빨리 끝내고 같이 한잔하자. 하하, 이리다 당신 에디터랑 스캔들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올해 유독 스캔들과 가십이 많지 않았나?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니는 필자인가 보다.

사주를 봤는데 구설수가 많은 필자라더라. 크게 신경 쓰진 않는다. 어차피 진실은 존재하고, 나만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

그중에서도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뭔가?

권상우 씨와 난 스캔들이 가장 이슈가 됐다. 원래 권상우 씨가 이상형이었는데 그런 기사가 뜨고 나니 이상형에 대한 발언도 조심하게 되더라. 가정이 있는 분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

저번 MAXIM 인터뷰에서 추성훈 같은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주상욱이 좋다고 하고... 이번 기회에 정확한 한 명만 골라보자. 지조 없어 보이냐?(웃음) 해명할 게 뭐 있나. 어차피 내 남자도 아니고 단지 이상형일 뿐인데 그냥 막 던지는 거다. 아마 앞으로도 자주 바뀔 거다. 요새는 <상속자들>에 나오는 최진혁 씨가 좋더라.

한 달만 있으면 한 살 더 먹는다. 돌이켜 보면 언제 가장 예뻐던 것 같나?



필피 모드콘

안 그래도 가끔 예전 사진을 보면서 회상하곤 한다. tvN <tvNGELS>가 끝나던 무렵인 스물여섯 살에 참 청순하고 예뻐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

무슨 소리인가. 지금도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이렇게 완벽한 당신에게도 닳고 싶은 여자 연예인이 있나?

내 우상은 심은하였다. 다슬이 시절부터 팬이었다. 다시 방송에 나오시길 간절히 바란다. 예전에는 심은하를 닳고 싶어서 검은 머리에 빨간 티트만 바르고 다녔다.

강예민이 생각하는 섹시란?

섹시는 진실하게 연기해야 하는 거다. 나는 화보를 촬영할 때 카메라가 남자 친구라고 생각하고 바라본다. 그렇게 해야 섹시한 눈빛이 나온다.

남자가 가장 섹시할 때는 언제인가?

남들은 운전할 때, 일에 집중할 때 섹시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난 손이 큰 남자에게 섹시함을 느낀다. 날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첫 키스는 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키스가 나쁜 것도 아니고, 어미 참새가 아기 참새에게 모이를 주는 느낌이라 난 좋던데? 만난 당일에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스킨십에 거부감은 없다. 나도 만난 당일엔 뽀뽀해본 적이 있는데 뭘.

마지막으로 MAXIM 독자에게 인사 한 마디!

마지막 한 달 뭉긋게 보내시고, 귀찮겠지만 비타민도 꼭 챙겨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남성 여러분, 내년엔 더 멋진 남자가 되길 바라요! 

산타클로스가
남자 친구를 선물로 준다면
감사히 받겠다

구두 스타카토
팔찌 모드곤

예빈 홀로
집에



강예빈

본명: 강정미

생년월일: 1983년 1월 20일

신체: 170cm, 49kg

데뷔: tvN <tvNGELS 시즌1>

좋아하는 술: 소맥

드림카: 아우디 Q7

추천하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추천하는 음악:

브루노 마스의 'It Will Rain'

HAIR 박소희 MAKEUP 김영선(리뷰티프코아 02-544-0714) VIDEO 김상수 ASSISTANT 김소홍 길러온 이상훈 임지훈 LAYOUT 서윤정
COOPERATION 모드러(070-8241-0898) 슈즈웬(02-3443-1703) 스타카트(02-3443-1703)

구두 슈즈웬



VIVA! 유쾌한 녀석들 DICK PUNKS



7년째 무명이던 홍대의 한 인디 밴드는
(슈퍼스타K)를 만난 뒤 정말 슈퍼 밴드가 됐다.
그후 1년, <슈스케> 시청률은 예전 같지 않지만,
딕펍스는 여전히 건재한 홍대의 아이들이다.

BY 손안나



2006년, 갓 대학에 입학한 실용음악과 06학번 새내기들은
벤 폴즈 파이브(Ben Folds Five) 같은 피아노 록 밴드를
결성하고자 의기투합한다. 키보드, 드럼, 베이스, 보컬...
그렇다. 이 밴드에는 기타가 없다. 록밴드에 기타가 없다니, 그것도
강렬한 펑크록을 지향하는 밴드에 디스토션* 사운드가 없다는 게
왠지 덜 없는 공작새를 상상하는 것만큼 비현실적이지만 막상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다이내믹한 리듬에 위트 있는 멜로디
그리고 탄탄하게 쌓아올린 화성까지! 음악을 듣는 내내 퀸(Queen)이
떠올랐다면, 현재진행형인 이 20대 뮤지션들에게 너무 과한 칭찬일까?

*일렉트릭 기타에서 발생하는 일그러진 소리를 가리키는 말로, 록 음악의
주된 표현 요소 중 하나다.



만나면 물고 싶었다. 디핑크는 무슨 뜻인가?
진짜 그 '딕'? 그게 "핑크" 하고 터진다든 건가?

재홍: 당신이 생각하는 그 '딕' 맞다. 그렇다고 거기가 폭발한다는 뜻은 아니고(웃음) 어감이 좋아서 Dick, 여기에 펑크록의 Punk! 근데 멤버가 4명이니까 복수형으로 'S'를 붙여서 지금의 '딕핑크'가 된 거다.

방송에서는 영화 <뽀뽀한 딕&제인>의 '딕(짐 캐리)'에서 따왔다고 말하던데...

재홍: 방송용이다. 그거 지어내느라 무지 힘들었다.

태현: 솔직히 우리가 이 이름으로 방송에 나가고 앨범을 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멤버 모두 실용음악과 출신이다. 의외로 실용음악과 출신 밴드가 희귀하더군.

재홍: 디어클라우드, 메이트, 버즈, YB 등 찾아보면 꽤 있긴 한데, 요즘은 확실히 학생들 중에 밴드를 하려는 이들이 많지 않다. 돈이 안 되니까 도전하기 무서운 거지.

가람: 우리도 학교에서 진짜 무시 많이 당했다. 다른 애들은 세션으로 세계 투어 하는데, 우리는 흥대 가서 공연한다고 하니, 다들 "그래, 열심히 해 봐."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나 할까?

태현: 우리 우리만의 음악을 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외국에 기가 막힌 피아노 록 밴드가 있는데, 우리도 한 번 해 보자!"하고 의기투합해서 시작했대며?
그 기막힌 밴드는 킨(Keane)이었나?

재홍: 아니다. 벤 폴즈 파이브(Ben Folds Five)다. 현실적으로는 벤 폴즈 파이브, 이상적으로는 퀸(Queen)이 우리의 롤모델이다.

태현: 퀸의 '보헤미안 랍소디'처럼, 들으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차르륵 떠오르는, 그런 영화 같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

딕핑크! 감상하기



김현우
키보드, 코러스

김옥빈과 오케이 핑크 멤버로도 활동했다. 키보드가 필요 없다는 멤버들을 향해 "진짜 개 X 같았다"고 말하는 짤방으로 유명해졌다.



김태현
보컬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무대에서 앞머리가 갈라지는 일. 요즘 고민: 탈모. "올 아버지 술이 요새 애매~하더라고".



박가람
드럼

한때 "빠드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른 체형이었으나 최근 10kg 정도 증량해 비주얼 폭발 중이다. 언뜻 보면 장우혁 닮았다.



김재홍
베이스

엠넷 뮤직 드라마 <몬스타>에 수학 선생님이 출연해 비음 섞인 자작 랩을 선보였다. 본인 말에 따르면 비음은 코 수술 부작용 탓이라고.



에디터가 추천하는 딕펄스 노래 3

〈슈스케〉 이후 딕펄스가 발매한 미니 앨범 〈VIVA PRIMAVERA〉. 요게 아주 왕건이다.



Track 2. VIVA청춘

〈꽃보다 할배〉 삽입곡으로 유명해진 이 곡. 전주만 들어도 당장 배낭여행 떠나고 싶어진다.

Track 3. Newyorker

드럼&베이스 사운드가 정말 뉴요커처럼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이다. 음성 변조 톤의 독특한 코러스를 듣는 재미도 쏠쏠하다.

Track 6. 악국에 가련

딕펄스표 발라드란 이런 것!! 일단 믿고 한 번 들어 보.

〈슈스케〉로 뒤흔치던 흥대 인디 밴드 짬밥만 벌써 7년이다. ‘흥대 아이돌’이라는 별명도 있었다며?

태현: 그 말은 정말 부끄럽다!! 제일 부끄러워!! 밴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 멤버 모두가 20대 초반이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다. 그땐 인디씬에 우리만큼 어린 애들이 없었거든. 같이 음악하는 형님들도 대부분 서른줄에 가까웠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나이네? 후우...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지만, 슬자리는 같이 안 한다고 들었다.

현우: 그렇다. 우린 비즈니스 관계니까. 농담이고 워낙 가족 같아서... 부모님한테 “엄마, 술 마시러 가요!” 이런 거 안 하잖아?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 역할인데?

현우: 애(재홍)가 둘 다 한다.

밴드의 엄마로서 멤버들이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하나씩 꼽아 보라.

재홍: 현우는 자질한 지각이 많다. 그래 놓고 어쩌다 한 번 제시간에 오면 생색이 장난 아니다. 가람이는 자기 PR의 달인이다. 딱히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한달까? 예를 들어, 휴대폰을 바꾸면 본인이 질릴 때까지 휴대폰 자랑을 매일매일한다. 태현이는 저만 살면 된다.(웃음) 얼마 전에 다 같이 분식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테이블이 접시로 꼭 차있는 상태에서 아주머니가 순대를 가져오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접시 치우고 있는데,

애는 혼자 아줌마가 들고 있는 순대 접시에서 순대부터 집어먹더라고. 정말 대단한 놈이다.

그럼 멤버들이 봤을 때 재홍은 어떤 사람인가?

현우: 고맙다. 그 말만을 기다렸다. 애는 여자랑 얘기해도 안 지려고 한다. “그래서? 아난데? 내가 아난데?” 이러면서 꼭 이기려고 한다. 자존심 강한 녀석...

밴드 생활하면서 싸움은 없는 편인가?

현우: 오늘 인터뷰 끝나고 할 것 같다.

많은 뮤지션들이 순전히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한다.

재홍: 나도 그랬다. 교회에서 밴드를 했는데 신앙심은 없었고 누나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다녔다. 기타를 치면 누나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거든.

현우: 피아노와 드럼 중 대학 진학 때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 피아노를 택한 이유는 당연히 여자한테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였다.

투잡으로 레슨 뒀던 시절, EXO의 백현에게 피아노뿐만 아니라 여자를 사로잡는 법도 가르쳐줬다며?

현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난 남자가 피아노를 잘 치면 여자를 유혹하는 데도 좋은 것 같다고 딱 한 번 말했을 뿐인데, 개가 그것만 기억한 거다!

태현: 사실 남자애들한테 이만한 동기

부여가 없다. 레슨 들어가면 먼저 “너 좋아하는 애 있어, 없어?” 이걸로 시작해야 한다.

인디 생활을 오래한 것치고, 디펍스에게선 형그리하고 짝이 있는 느낌이 없어서 좋다.

태현: 그게 다 있어 자라서 그런 거다. 농담이고(웃음) 팀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현우: “디펍스는 유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옛날 록 스타일을 고수하거나, 추구하는 음악 자체가 어두우면 아무래도 생활에서도 그런 게 많이 묻어나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재미있는 게 우선이거든. 대중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우리도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무명의 실용 같은 걸 말하는 건가?

태현: 그건 요즘이 더하다.(웃음) 위치가 애매해졌다고 할까? 메이저랑 인디 사이에 살짝 걸치고 있거든. 공중파 음악 방송에 가도 열외종이고 인디씬에서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고.. 요즘엔 어딜 가도 환영을 못 받는 느낌이다. 앞으로 우리만의 씬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 크라잉넛이나 YB 형님들처럼.

“디펍스는 항상 증박”이라는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태현: 맞는 말이다. <슈스케>도 매번 턱걸이로 올라갔고, 지금껏 대박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도 소박 아닌 게 어딘가.

현우: 지금 이 속도서 서서히 올라가면 마흔쯤엔 우리도 대박 한 번 치지 않겠어?

<TOP밴드>도 있는데 <슈스케>에 참가한 이유는 뭐였나?

가람: 사실 나가려고 했다. 전 시즌에 특식이 1등 하는 거 보고 어찌나 배가 아프던지.

재홍: 그렇게 <TOP밴드 2> 지원 영상까지 다 찍어냈는데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너네는 진지한 <TOP밴드>보다 <슈스케>가 더 어울리지 않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꽂힌 거다. 하도 고민해서 점까지 보러 갔다. <TOP밴드>에는 썸이 하나 없고 <슈스케>에는 썸이 세 개 붙어서 <슈스케>로 결정했지. 어지간한 인디 밴드는 다 <TOP밴드 2>에 몰렸다. “디펍스 뭐하나”, “얼른 나와라” 말들이 많았다. 못 들은 체하고 있다가 접수 마지막 날 딱 <슈스케>에 지원했다. 이런 마음이었다. “너희는 피 터지게 싸워라 우리는 <슈스케> 간다!”

<슈스케> 합숙 중에는 보톡스도 맞았으며?

현우: 겁나 맞았다. 애(재홍)는 한 200방 맞았을 걸? 코랑 눈도 한 거다.

재홍: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관상을 믿는다.(웃음) 코가 낮아서 돈이 줄줄

새는 관상이라며 5년간 날 설득하셨다. 그런데 정말 코에 실리곤 넣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리고 있다!

김태현 게이실이 있다. 항변할 기회를 주겠다.

현우: 게이라니. 쟀 여자애 마친 새끼다.

재홍: 사실 우리끼리 게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멤버 중에 누군가 여자 친구랑 헤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멤버는 게이가 된다. 몇 개월 지나면 준게이, 1년이 지나도 여자 친구가 안 생기면 우리를 사이에선 프로 게이로 불린다.

<슈스케> 공연 중 흥대광의 무릎이 아니라 애매한 곳에 앉았다며?

태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웃음)

현우: 너 정말 게이 아니냐고.

재홍: 왜 대광이 형 고추에 앉았냐고 묻는 거잖아.

태현: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 무대 동선이 너무 복잡한 데다 긴장해서 그랬다. 정말이다.

‘선글라스’ 뮤직비디오에 MAXIM이 나오던데?

현우: MAXIM 좋아한다. 내용도 다이내믹하고 에디터들 필력이 장난 아닌 것 같다.

재홍: MISS MAXIM 보고 싶다! 의자왕 느낌으로 화보 한번 안 되냐?

태현: <슈스케> 합숙소 침대 머리맡에는 언제나 MAXIM 화보가 붙어있었다.

재홍: 그리고 그걸 붙인 게 아마 정준영이었지! ☺

디펍스가 추천하는 피아노 록 3

1 Philosophy - Ben Folds Five



발라드 느낌으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벤 폴즈 파이브의 곡. 곡 후반부에 폭발하듯 터지는 연주가 인상적이다.

2 Beatles - Lady Madonna



폴 매카트니가 작곡했다. 곡 전반에 흐르는 건반 사운드가 마치 피아노를 장난감처럼 다루면서 연주한 듯 재밌게 들린다.

3 디펍스 - 선글라스



올여름에 발매됐지만 계절과 무관하다는 본적 심리 환타지 송. 전주와 간주에 흐르는 건반의 미친 듯한 속주가 감상 포인트다.



군밤 팔이 멸망 보고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BY 손안나 



당신이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소엔 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 없다." 그렇다. 이젠 내 인생 모토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미어터진다는 금요일 밤, 홍대입구 9번 출구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지금 군밤을 팔고 있다. 연탄불에 밤이 구워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진다. 코끝에 전해지는 맛있는 스멜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씩 힐끔거리지만, 돌아오는 건 동정 어린 시선뿐. "저 언니, 불쌍해..." 한 커플이 지나가면서 속삭인다. 애, 동정할 거면 돈으로 주시던가요!

돌이킬 수 없는

편집장이 "지난달 조웅재의 고양이 탈 체함에 이어 이번 달에도 에디터 중 한 명이 일반 체험기를 쓰게 될 거다."라고 말할 때 사실 별로 귀담아들지 않았다. 희생양은 제비뽑기로 선정한다던데, 설마 10분의 1의 확률로 내가 걸리진 않겠지... 누가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아이템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진땀 신이 난 에디터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다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보로 막 던지는 모양이었다. "겨울이니까 군고구마나 군밤 장사는 어때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그 말을 내뱉은 내 주동이를 끝없이 원망하게 된다.

황학동의 중심에서 연탄을 외치다

황학동에 가면 불어빵 기계, 땅콩 굽는 기계, 약초 건조 기계 등 식품 기계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주는

골목이 있다는 고급 정보를 입수했다. 정형돈이 지드래곤에 소개해 준 핫스팟 동묘 벼룩시장에서 출발해 어르신들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 황학동 중앙시장 뒤편 주방기구 골목까지 왔다. 외식업의 만물상이라는 이곳에는 업소용 싱크, 작업대, 냉장·냉동고 등 없는 게 없다. 물론 군밤 기계도 있었다. 근데 이거... 내가 상상하던 비주얼이 아니었다. 전기로 작동하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군밤 기계. 무려 60만 원이다. 이 진격의 군밤 기계를 리어카로 혼자 강강대며 옮기는 내 모습을 잠시 상상해 봤다. 우리데쓰네, 조금 더 아기자기한 게 필요했다. 이를테면 연탄으로 구울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보면, 십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자그마한 화덕에 구운 군밤을 파는 할머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아가씨도 참. 누가 요새 군밤을 연탄에 구워, 정 필요하면 그냥 연탄불 때는 화덕에 굽든지." 맞아, 화덕이 있었지. 어쩐지 췌-한 느낌에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연탄 화덕'을 검색했다. 네이버 지식쇼핑에 총 356개의 상품이 검색됐다. 거기에 무료 배송! 탈색...!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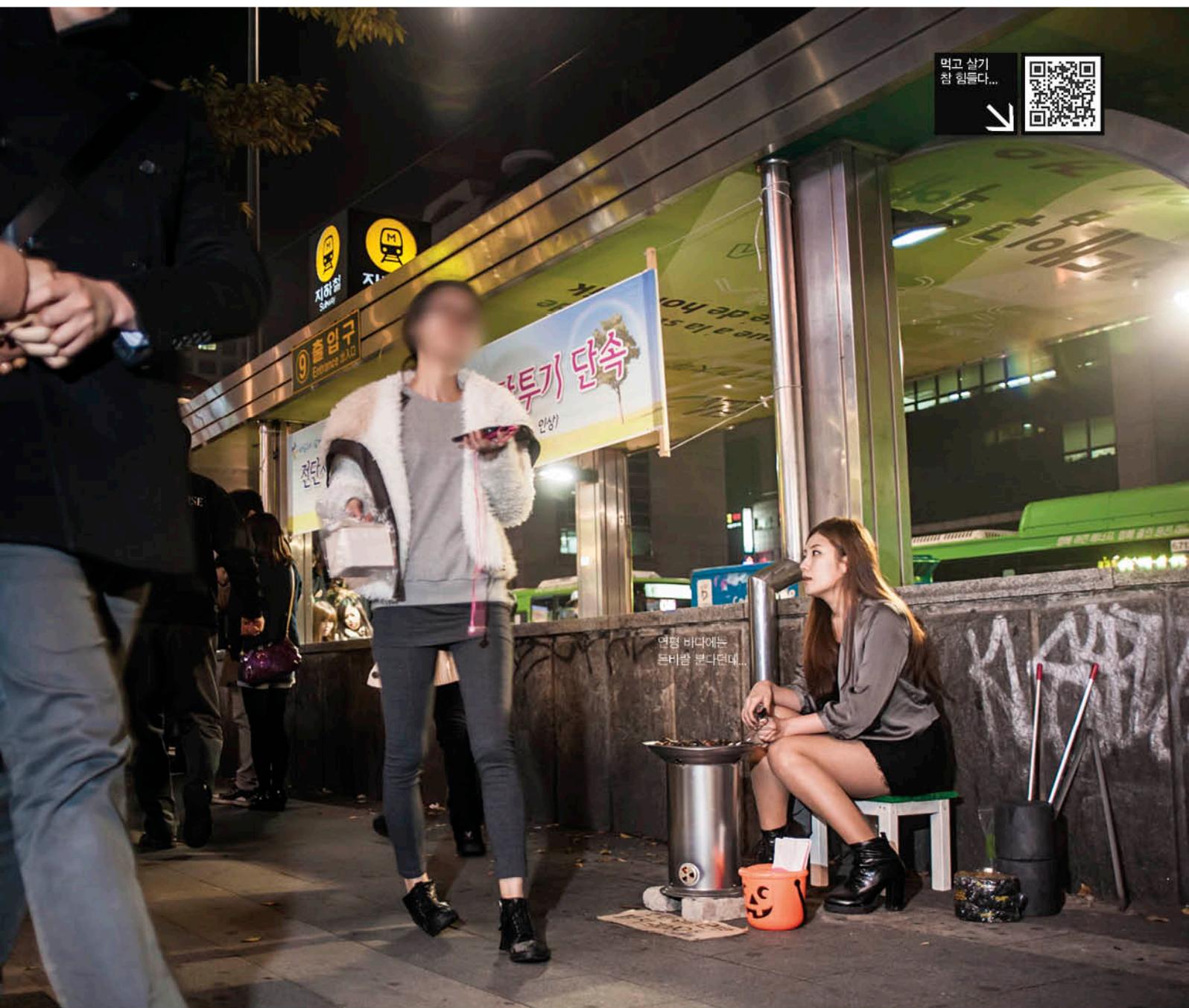
연탄가스에 취하다

11월 15일, 날씨 맑음. 장사할 준비를 갖춰서 홍대입구 9번 출구 앞에 자리를 잡았다. 불금이라 사람이 미어터졌다. 이들이 다 내 잠재적 고객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바쁜 걸음 만큼이나 내 마음도 급해졌다. "준비해 둔 군밤이 너무 적은 건 아니겠지?", "1시간도 안돼서 완판하면 기사는 뭘로 쓰지?" 억지로 시작한 일이건만, 돈 버는 상상을 하니

금방 마음이 훈훈해진다. 매주 로또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거구나...

문제는 연탄 불붙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였다.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나 1990년대 초반 즈음 가장아장 걸기 시작한 내가 연탄에 불을 붙여 봤을 리 없다. 하지만 고작 나보다 2~3년 먼저 태어난 주변인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연탄을 경험해 봤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이 허풍이 아닌 게, 연탄으로 겨울을 나던 가정은 1988년에 80%에 육박했다가 1993년에는 30%대로 급격히 추락했다. 5년 만에 대다수의 가정이 연탄보일러에서 석유·가스보일러로 급갈아탄 그야말로 난방계의 격변의 시대였던 것이다.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연탄 바다에는
돈더랄 분다던데...



군밤 장수 번호는
일어서 뭐하시게요



말해봐...
마음이 식은 거...



연탄불과의 사투 끝에 남은 잔해
(전부 깨끗이 치우고 왔습니다).



밤 10시, 술 마시러 가는 길에 들른 선배들이 행동양 행패를 부리고 사라졌다.

소식적에 연탄 구이 고깃집에서 일바 좀 해 봤다는 조용재 에디터에게 자문했다. 그는 "번개탄에 불을 붙여서 화덕에 넣고 그 위에 연탄을 올리면 30분쯤 후에 손오공이 모은 원기옥처럼 점점 연탄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원기옥은 개불. 실패로 날린 번개탄만 3장.. 2시간이 지나도록 불이 붙지 않는 연탄에 힘이 쭉 빠졌다.

방금 실연당한 여자처럼 뉘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내 모습이 꼴사나웠는지 지나가던 아저씨가 한마디 한다. "구멍을 맞춰서 불길기 통하게 해야지!" 세상의 모든 구멍에는 다 존재 이유가 있다. 연탄에 22개의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건 다 여기로 산소를

통과시켜서 화력을 높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30분 정도 연탄구멍과 사투를 벌인 끝에 간신히 연탄에 불을 붙였다. 그때였다. 헛! 갑자기 오함마로 뒤통수를 가격당한 듯 머리가 멍-했다. 아무래도 연탄가스(일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다.

생울밤이로구나

시뻘건 연탄위에 석쇠를 장착하고 준비해 둔 밤을 하나씩 올렸다. 경동시장에서 떼 온 알밤이 보기에도 참으로 실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마른 장작 타듯이 "펑! 펑!" 소리를 내며 연탄불 위에서 오두방정을 펼던 밤들이 딱하니 입을 벌리고 황금색 속살을 드러냈다. 그대로 호호 불어서 양손으로 툭 꺼내 일맹이만 쏙 빼진다. 군밤이 바삭하게 익어가면서 내 주변 2m 반경으로 고소한 향기가 퍼져갔다. 그제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내게 관심을 주기 시작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맛있겠다!" 그렇게 맛있어 보이면 사면 되잖아... 하지만 1봉지(10알)에 2천 원,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팔았음에도 사람들은 쉽게 주머니를 열지 않았다.



밤 잘 굽는 법

1. 밤을 30분 정도 물에 담가 둔다. 그렇지 않으면 껍질에 수분기가 없어서 구웠을 때 밤이 터지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2. 밤 눈, 그러니까 털이 달린 세모꼴 모양의 모서리에 가로세로 칼집을 내야. 다 구워졌을 때 조개구이처럼 입이 찢 벌어져서 알맹이만 쏙 빼 먹기 편하다.
3. 굽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 적당하며 7분여 정도 지났을 때 딱 한 번만 뒤집어 준다. 껍질이 새까맣게 타도 알맹이는 이상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

나의 불행은 곧 너의 기쁨

게다가 너무 추웠다. 남은 밤을 다 필려면 적어도 5~6시간은 쯤고리고 앉아서 이 짓을 계속 해야 할 텐데... 눈앞이 캄캄해졌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리다 일어 죽겠다. 퇴근 시간이 한참 남은 밤 8시. 이쯤에서 대중 장사를 접고 도망간대도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야근하는 후배에게 까독을 보내 회사 분위기를 살폈다. "편집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는데요?" 아오... 젠장! 30분쯤 지났을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 편집부 인턴 A가 뜬금없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고생하십니다."라며 꾸벅 인사를 하더니, 카메라를 꺼내 수줍게 내 사진을 찍고... 도망가버렸다. 훗, 재 나 좋아하나 봐... 밤 9시. 이번에는 인턴 B가 찾아와 "장사는 잘 돼 가지세요?"하고 묻더니 역시나 5분간 격렬하게 셔터를 눌러대고 자리를 떴다. 뭐지... 9시 반. 인턴 C가 내 주변을 배회하며 몇 장 소심하게 사진을 찍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다. 편집장은 무서운 사람이었다. 편집장은 30분 간격으로 사람을 보내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빠르게 머리를 굴려 봤다. 편집장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한, 어차피 도망가긴 글렀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제대로 열심히 팔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시장 경제의 논리

연탄과 번개탄을 구입하는 데 5,000원, 연탄 화덕은 13,500원. 경동시장에서 떼어 온 알밤 4kg은 15,500원으로 초기 투자 비용은 총 3만 4천 원이었다. 한 봉지당 1,000원이 남으니 34봉지를 팔아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30분에 겨우 한 봉지씩 팔리는 수준이었다. '열심히 팔아보리라'던 다짐은 추위와 배고픔에 점점 희미해져 갔다. 욕심을 버리기로 했다. '손익분기점만 넘기자.' 아무래도 연탄불 붙이는데 힘을 너무 많이 쏟은 것 같았다. 데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아까년부터 코앞에서 나를 유혹하던 켄터키 대령의 품에 안겼다. 세트 메뉴 7,000원. 배가 든든하게 차자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 7봉지 더 팔아야 하잖아..." 어째 물건은 안 팔리고 자꾸 빚만 늘어 간다. 단단계 회사 영업 사원이 이런 기분일까?

어차피 인생은 쇼야!

처음에는 나도 의욕이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군밤 사세요."라고 외쳤다.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화덕 위에 군밤을 한 번, 나를 한 번 스мок 보고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이젠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입장 바뀌서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감이 왔다. 길가에서 손나발을 만들어 "붕어빵 사세요~" 혹은 "군고구마 사세요~" 라고 외치는 장사꾼이 어디 있던 말인가. 나는 좀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오직 혼을 담아 군밤을 뒤집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즉,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었다는 얘기다. 다만, 어느 정도 설정은 필요했다. 불쌍한 척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고개를 45도로 떨구고 시선이 닿는 바닥을 멍하니 응시한 채로 손님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 상태로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내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한 남자의 신발이 보였다. "저기요.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이 장사 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연 있으세요?" 조금 웅얼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저기요. 한 봉지 살 테니까 말해 주면 안 돼요?" 오호라. 이 방법, 꽤 효과가 좋았다.

밀바닥에서

낮은 의자에 앉아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올려다본다. 모두가 행복한 금요일 밤이다.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똥 맞은 듯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나는... 춤다. 너무 춤다. 입이 돌아갈 것 같다. "(편집장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아직 2명의 편집부원을 붙잡아 놓고 있다." 밤 11시까지 편집장에게 붙잡혀있다가 겨우 탈출한 후배가 찾아와 소식을 전한다(이XX 역시 사진을 찍어 갔다). 편집장은 12시까지 나를 감시할 셈이다. 종일 내 옆자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던 한 버스커가 비틀즈의 '애니'를 부르기 시작한다. "To set you free, girl, To set you free, girl..." 네. 저도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폴 매카트니 오빠...

이날 내가 판 군밤은 112알. 두 일은 마지막 손님에게 서비스로 줬으니 총 110개 11봉지를 판 셈이었다. 현금으로 2만 2천 원을 벌었고, 끝내 손익분기점은 넘기지 못했다. ☹

스무살

어쩐지 나쁜 마음 먹게 하는 그녀의 우윳빛 피부,
자그마한 발... <응답하라 1994> 한 편으로 대세가 된
소녀, 스무 살 도희 훑쳐보기.

PHOTOGRAPH YuD



니트 아메리칸어패럴
쇼츠 스타일난다



She Was In...



그녀는 《응답하라 1994》에서
칠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윤진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멤버 전원이 150cm대의 양중맛은 키를
자랑하는 4인조 걸그룹 타이니지에서
부컬을 맡고 있는 도희.

니트 아메리칸어패럴
쇼츠 스타일난다

탑 아메리칸패럴
쇼츠 스타일난다

“

거친 남자가 멋있어요
팔뚝에 힘줄 딱!

”



〈응답하라 1994〉에서도, 실제 나이도 스무 살이다. 10대 때랑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우선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얼마 전, 아빠한테 처음으로 맥주를 받아 봤어요. 이제 어른이라고 밥 먹으면서 “한잔할까?”라며 장난도 치고, 치킨 먹을 때도 친구들한테 “치맥 몰라, 치맥?”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해요. 스무 살이 되고 나니까 친오빠가 “넌 이제 아기가 아니니까 어리광 부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른스러운 방식으로 어리광을 부려요.(웃음)

스무 살이 됐으니 이제 남자 친구도 사귀고 싶겠군. 당연히죠! 지금은 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톱스타를 만날 거예요! (웃음)

〈응답하라〉에 나오는 ‘쓰레기’ 같은 남자는 어때?

처음에는 너무 맛있는 척 하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지금은 진짜 좋아요. 극 중에서 나정(고아라)가 디스크 때문에 누워 있는데 과자를 툭 던지고 나가는 장면이 특히 좋았어요. 완전 로망이에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자상한 사람이 좋았는데, 스무 살이 되고 나서 바뀌었어요! 요새는 거친 남자도 멋있어요.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 팔뚝에 힘줄 딱! 피 뿜을 때 힘주지 않아도 되는, 주사기 그냥 갖다 꽂아도 되는 분들요.

아담한 사이즈다. 키가 작아서 좋은 점이 있다면?

슬픈 에피소드지만, ‘머리조심!’ 이런 문구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작아서 체육 시간에 구르기 동작도 엄청 잘해요. 수업 시간에도 맨 앞이라서 항상 선생님 말씀이 잘 들렸어요. 뒤에 있으면 잘 안 들린대요. 정말이에요! 단점이라면, 이미지 변신하기도 어렵고 항상 잘 어리게만 보시는 거죠.

키 크려고 어떤 노력을 했었나?

우유 급식 신청해서 열심히 마시고, 한약도 먹어 보고, 멀치도 엄청 먹었어요. 그런데 키는 선천적인 요인이 크잖아요, 저희 가족이 다 작아요...

갑자기 키가 커진다면, 무얼 해 보고 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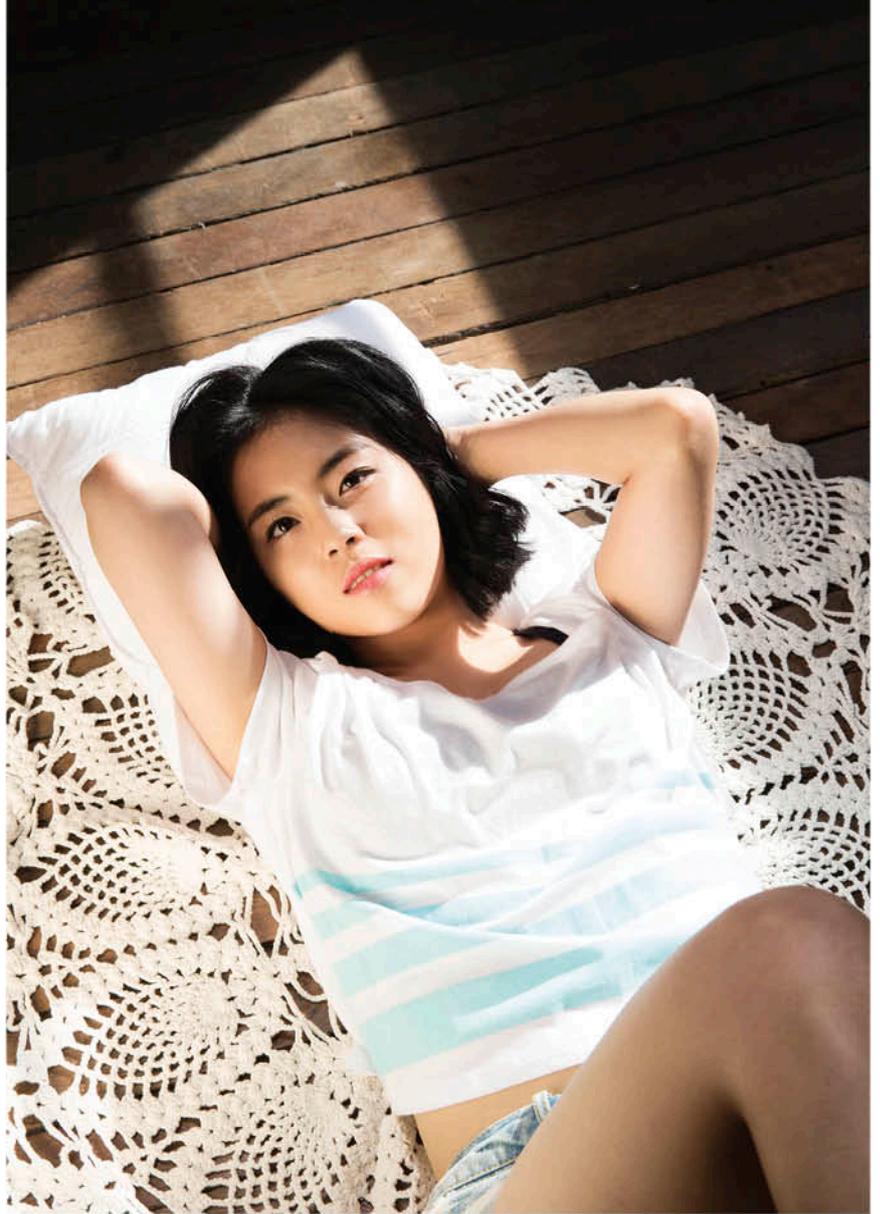
아... 생각만 해도 엄청 떨려요! 롱코트도 사 입어 보고 싶고 청바지도 사서 안 자르고 입을 거예요. 높은 곳에서 괜히 물건도 꺼내 보고요. 의자의 도움 없이! 다음 생엔 175cm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안 바라요. 163cm 아니 158cm이라도...!

평소에 귀엽다는 말 지겹게 많이 듣지?

네. 특히 길에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을 만나면 엄청 귀여워해 주세요. 대부분 첫 마디는 “어머~ 몇 살이야?”예요.

귀엽다는 수식어 말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쁘대!” 저도 여자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키 말고 다른 콤플렉스가 있나?

제 코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가끔 세수하다가 코를 이렇게 저렇게 만져 보곤 해요.

지방 출신이라며? 서울에 온 건 언제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왔어요. 여수에 살았는데 거긴 지하철도 없고 백화점 가려면 2시간 정도 거린인 광주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서울은 건물들도 엄청 높고 차도 셀 수 없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 할까? 너무 바빠요, 다들.

고향말이라 그런지 드라마에서 전라도 욱을 찰지게 잘하더라.

역양을 강하게, 발음을 세게 하면 돼요. 그리고 전라도 말은 ‘염병, 지랄’이 항상 붙거든요. 밥 먹을 때도 “염병, 밥 먹어라” 이리는데 그게 서울 사람들에게겐 욱처럼 들리나 봐요. 편한 사이에서는 이렇듯 잘 안 불러요. “야, 거서가” 이리죠. 서울에 왔더니 “도희야.” 이리길래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맡아보고 싶은가?

말괄량이 캐릭터를 해보고 싶어요. 나정 언니 같은 무척 재미있어 보여요. 촬영장에서 다 같이 웃는데 저만 안 웃는 캐릭터라 맨날 웃음 참느라 힘들었거든요.

평소에는 주로 뭘 하고 노는가?

그냥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서 목이 쉴 정도로 수다를 떨어요. 못 만나면 전화로라도!

클럽이나 파티에는 가 봤나?

아직 안 가 봤어요. 혹시 제 키가 작아서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제 친구가 민중 이미에 붙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웃음)

물렀나? 정말 이미에 붙어야 입장할 수 있다.

진짜요? 오오...! 서울은 그렇구나.

미안. 땡이다.

에이!! ☹



“빛고를 출신 편집장의 사투리 풀이: 상대 이름을 ‘거서기’로 생략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말. [주의] ‘서’ 발음은 ‘서’와 ‘스’가 7:3 정도일 때 가장 유려하다. [유] ‘아이, 거스(거숙아), ‘아이(있나), 나’

☺
탐 아메리칸어패럴

☺
탐 아메리칸어패럴
블라우스 스타일난다

→
도희

본명: 민도희

생년월일: 1994년 9월 25일

신장: 151cm

별명: 명꼬마, 난쟁이 똥자루

소속 그룹: 타이니지(Tiny-G)

대표작: <응답하라 1994>

서태지 열혈팬 윤진 역

가장 좋아하는 서태지 노래

'마지막 축제'와 '난 알아요'

트위터로 친구가 되자

@Real_Tiny_G



“
귀엽단 얘기 말고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도 여자니까
”

HAIR&MAKEUP 장혜민 VIDEO 감독수 ASSISTANT 장석영 LAYOUT 서윤정
COOPERATION 스타일난다(www.styletanda.com) 아메리칸어메럴(02-545-9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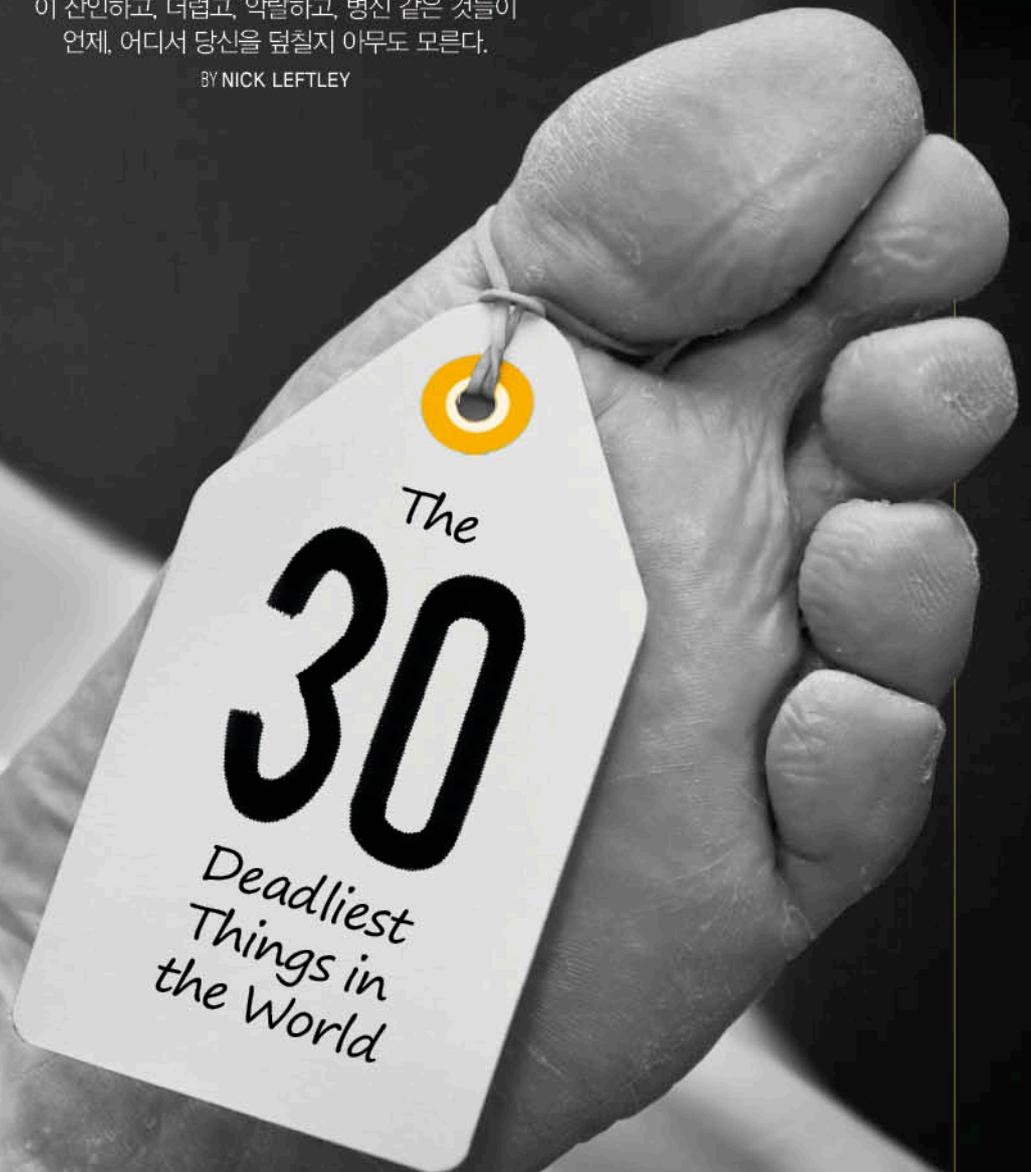
소녀도
여자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30가지

이 잔인하고, 더럽고, 악랄하고, 병신 같은 것들이
언제, 어디서 당신을 덮칠지 아무도 모른다.

BY NICK LEFTLEY





가장 치명적인 총알

9mm 재키티드 할로 포인트

물론 세상에는 이보다 더 크고 빠른 총알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만큼은 이 총알이 가장 치명적이다. 9mm 재키티드 할로 포인트는 목표물에 맞는 순간 탄두가 꽃처럼 활짝 펼쳐지기 때문에 몸에 박히면서 피부 조직을 더 많이 파괴하고, 탄알을 몸에서 뺐내기도 훨씬 힘들다. 이런 특징 때문에 총알이 타깃의 몸을 뚫고 통과해 주변의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할 확률이 높다. 근데 왜 하필 미국이냐고? 이 총알은 헤이그협정으로 국가 간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금지됐지만, 미군은 아직도 자국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국 땅에서 미군 뺨치게 하지 말자. 당신 몸뚱아리에 이 치명적인 총알이 코스모스처럼 피어날 수 있다.



2

가장 치명적인 비행기 차이나 에어라인

차이나 에어라인은 지난 30년간 8번의 사고로 755명의 사망자를 냈다. 1년에 최소 25명이 죽는다고



3

가장 치명적인 겨드랑이 슬로 로리스

보르네오 섬에 사는 영장류 슬로 로리스는 긴장하면 겨드랑이를 굽는 더러운 습관이 있다. 그래도 무시하지 마라. 적을 물기 전에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독을 자신의 이빨에 묻히는 더럽게 무서운 놈이다.



4

가장 치명적인 시간 오전 11시

오전 11시가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노인들이 자연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오전 11시라는 연구 결과 때문이며, 두 번째는 점심시간까지 한 시간이 '정신과 시간의 방'만큼 느리게 가기 때문이다.



5

가장 치명적인 치과 의사 글레논 잉글맨

이 치과 의사는 돈을 목적으로 30년 동안 7명의 사람을 죽였다. 한번은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우물 안으로 던진 후 다이내마이트를 터뜨려 증거를 없앴다. 이런 새끼한테 사다코의 저주가 담긴 <링> 비디오 한번 보여줘야 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병신 가는목먼지벌레

이 조그만 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병신 짓을 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 가는목먼지벌레는 위협을 느끼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강한 산성 액체를 엉덩이에서 내뿜는데, 문제는 그 액체를 자기 몸쪽으로 뺏는다는 거다.

6

The
30
Deadliest
Things in
the world



가장 치명적인 잠수함

HMS 앰부시

아이언맨처럼 핵 원자로로 동력을 얻기 때문에 한 번 연료를 넣으면 25년 동안 가동된다. 그래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바다 밑에서 계속 지구를 빙빙 돌 수 있다. 이 괴물 같은 영국 잠수함은 토마호크 블록 IV 순항 미사일을 장착해 약 2,000km 밖에서도 타격을 명중시킬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영화 속 살인마 10

제이슨 부히스

<13일의 금요일>로 데뷔해 잔혹 살인마의 아이콘이 된 제이슨은 그동안 영화에서 300명이나 죽였다. 그것도 모자라 라이벌 프레디까지 처치한다. 그러니까 임마, 니가 친구가 없는 거야.



8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선 안 될 치명적인 인물

미스터 메탄

방귀 연주가인 미스터 메탄은 요가를 하다가 방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 그는 방귀로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을 연주할 수 있다.



9

가장 치명적인 노래

마이 웨이

필리핀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는 걸 좋아한다. 특히 올 블루 아이즈의 노래 '마이 웨이'는 손꼽히는 애창곡인데, 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노래를 망쳤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6명이 살해됐다. 언론은 이 사건들을 묶어 '마이 웨이 살인'이라고 부른다.

절대 업어 타선 안 될 가장 치명적인 차

닛산 350Z

100만 대 중 143명 꼴로 탑승자 사망 사고를 기록하면서 가장 화끈하고 살벌한 차종으로 등극했다.

11



12



가장 치명적인 공격기

A-10 선더볼트 II

'멧돼지'라는 별명을 가진 이 전투기는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지상 지원 공격기다. 1분에 4,100발을 쏠 수 있는 30mm 기관총을 장착했고, 7톤 이상의 갖은 폭탄과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로켓 추진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미사일 포함). 이 전투기가 눈에 띄는 순간 적군들의 입에서는 "오 씨발 X 됐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고 한다.



13

가장 치명적인 다리 펜실베이니아의 다리

미국에 있는 다리 9개 중 한 개는 부실하다. 그리고 걷는 순간 '이게 원래 흔들 다리였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다리 중 24.5%는 펜실베이니아에 있다.



16

가장 치명적인 스포츠 맨 섬 투어리스트 트로피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위치한 맨 섬의 절벽 도로에서 펼쳐지는 모터사이클 타임 트라이얼 경기다. 이 경기에서는 지난 100년간 240명의 사망자를 냈다. 1970년 경기에서는 한번에 선수 6명이 죽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20명의 선수가 사망했다.



14

가장 치명적인 길

볼리비아의 용가스 로드

'죽음의 길'이라고 불리는 볼리비아의 용가스 로드에서는 매년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섬뜩한 별명치고 별로 많지 않다고? OECD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인 대한민국 국민다운 지적이다. 하지만 용가스 로드의 길이는 약 64km밖에 안 되며, 하루에 이 길을 사용하는 사람 수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가드레일도 없는 일차선 도로 바로 옆으로는 약 1km 높이의 천길 낭떠러지가 있지만, 벌벌 떨 일은 아니다. 어차피 짙은 안개 때문에 옆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테니까.



15

원숭이의 가장 치명적인 부위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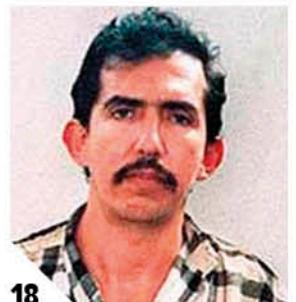
원숭이 뇌를 먹으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쉽게 말해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원숭이 뇌를 먹는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만 좀 먹어라!



17

가장 치명적인 피자 토핑 광대버섯

친근한 이름과 달리, 독버섯을 먹고 죽는 사고의 대부분이 이 광대버섯 때문이다. 버섯 머리 부분의 반만 먹어도 죽음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며, 아직 해독제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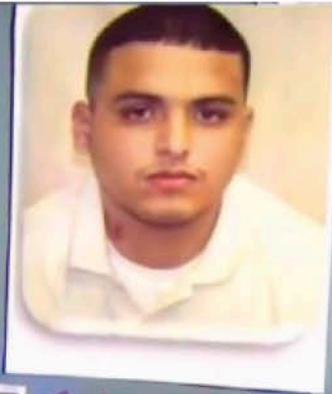


18

가장 치명적인 연쇄 살인범 루이스 라 베스티아 가라비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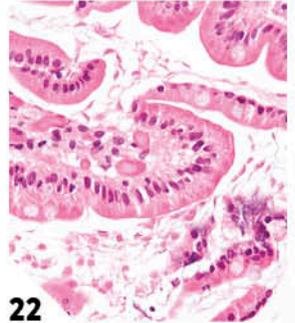
콜롬비아의 이 연쇄 살인범은 14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실제로 300명 이상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놓고 그가 받은 형량은 불과 24년, 말도 안 돼!

The
30
Deadliest
Things in
the world



Gabriel
CARDINA

19



22

당신의 뇌를 파 먹을 가장 치명적인 아메바 파울러 자유아메바

호수나 강에서 유유히 헤엄치며 사는 이 아메바는 치사율 99%를 자랑하는 무시무시한 놈이다. 물에서 노닐다 평화롭게 당신의 코로 헤엄쳐 들어가 뇌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뷔페 먹듯 골라 먹는다.

가장 치명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길버트 U-238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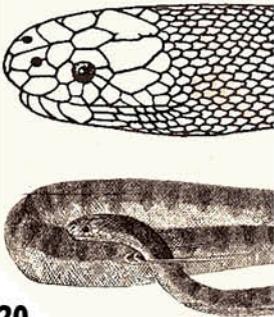
꿈 많고 호기심 넘치는 소년들을 위해 1950년에 탄생한 걸작이다. 소년을 단숨에 인기 있는 아이로 만들어줄 이 장난감 세트(?)에는 각종 실험 도구와 우라늄 광석이 들어 있다. 소년이어, 야망을 가져라! 방사능도!

가장 치명적인 갱

로스 제타스

멕시코에 기반한 세계 최대의 국제 마약조직. 뿌리는 놀랍게도 멕시코 특공대다. 조직 핵심 인물은 1999년 멕시코 특공대를 나와 걸프 지역의 조직에 몸담았던 예비역들이다. 이들은 그 안에서 세력을 키우다가 후에 따로 나와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로스 제타스'다. 그들은 라이벌 갱단과 전쟁을 선포하며 멕시코를 아작냈다. 로스 제타스는 멕시코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군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과테말라, 미국에도 마수를 뻗고 있다. 극들의 악행은 자동차 폭파, 참수, 고문, 살인, 대학살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 8월, 총 두목 모랄레스가 검거됐는데, 그는 납치된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고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맞짱을 뜨게 할 정도로 잔인했다.

23



20

가장 치명적인 뱀 매부리코 바다뱀

수많은 독사 중 이 뱀의 독이 가장 독하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존나 못생기기까지 했네.



21

가장 치명적인 액션 히어로 돌프 룬드그렌

무지막지한 액션 영화의 주인공 중에서도 스위스 출신의 돌프 룬드그렌이 가장 막강하다. 그는 23편의 영화에서 악당 622명을 물리쳤다.



가장 치명적인 뉴시터

러시아의 카라차이 호

전 세계 환경보호 운동가들도 두 손 두 발 다 놓은 지역이다. 이 호수는 구 소련의 핵무기에서 나온 핵 쓰레기 처리장으로, 지구에서 가장 심하게 오염된 곳이다. 물가에 서 있거나 해도 한 시간 내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활화산

옐로 스톤 칼데라

210만 년 전 옐로 스톤의 슈퍼 볼케이노가 뿜 터졌을 때 그 위력은 1980년, 미국에 가장 큰 손실을 낸 세인트헬렌스 화산 분출의 25,000배에 달했다. 이 화산이 최근 몇 년간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다시 웅기하는 모습을 관측한 전문가들은 조만간 60만 년 만에 네 번째 화산 폭발이 있을 거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게 진짜 터지면 미국 영토의 66%가 초토화된다.



가장 치명적인 스나이퍼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의 지휘관 크리스 카일

미국의 전쟁 영웅 크리스 카일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치명적인 저격수였다. 그는 11년간 네이비 실의 저격수로 복무하며 160킬 (비공식적으로는 260킬)을 기록했다. 전해진 바로는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제시 '더 보디' 벤추라에게 죽병을 날린 적도 있다고. 안타깝게도 그는 지난 2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전역한 전직 해군의 치료를 돕다 환자에게 사살당했다.



가장 치명적인 도시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10만 명당 169명이 살해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다.



가장 치명적인 감옥 베네수엘라의 감옥

원래는 14,000명의 죄수를 수용하도록 설계했는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45,000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리니 수만 가지 질병이 난무하는 건 당연지사. 더 무서운 사실은 죄수 대부분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거다. 지상 지옥이 따로 없구먼!



가장 치명적인 조류 타조

키 3m, 최대 속도 70km/h, 사람 장기쯤이야 발톱 하나만으로 적출해버릴 것 같은 거대 조류. 생긴 건 프랑스 아줌마가 청소할 때 쓰는 커다란 먼지떨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여러 차례 사람을 공격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당신의 고추를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곤충

브라질 방황거미

이 못생긴 벌보 거미는 매우 공격적이다. 물 때마다 치명적인 신경독을 주사하는데 문제는 이 독의 부작용이다. 독에 심하게 중독되면 목숨을 잃지만, 운이 좋아 살아남으면 거시기가 엄청 단단하게 발기한다. 좋아할 일이 아니다. 너무 아파 정신이 혼미해질 테니 그 물건을 휘두를 여유는 없을 거다. 발기 상태는 며칠간 지속되기도 하며, 이후 발기부전이 될 수 있다. 고추에 치명적인 독이라니! 지금까지 살피면 29가지는 애들 장난 수준이네?



스킨십의 심리학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첫 만남에서 섹스까지...
지금 당신이 만지고 있는 건
그녀의 어디쯤일까?

BY 손안나 PHOTOGRAPH YuD

MODEL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임상미, 이재의



Step 1. 유혹의 눈맞춤

동물학자 데스몬드 모리스는 눈맞춤이란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남녀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스킨십이라고 정의했다. 가장 손쉽게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눈맞춤이다. 몇 초간의 눈맞춤만으로 당신은 그녀의 혈관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페니에틸아민을 마구 솟구치게 만들 수 있다.

이까부터 건너편 테이블 그녀가 자꾸 신경 쓰인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녀와 첫 번째 아이 콘택트를 시도하자. 시간은 단 3초.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슬쩍 비추는 거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3초간 그대로 응시한다면, 오케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좋다.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좀 더 진지한 눈맞춤 단계로 들어가자.

당신이 이병헌 급의 매력적인 저음이나 유재석 급의 말발을 지닌 게 아니라면, 그저 그런 시답잖은 집담만으로 그녀를 매혹시키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눈맞춤을 이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녀와 대화하는 내내 (10초 중 8초 이상) 그녀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냥 누긋이 기다려라. 호르몬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구두 메일리엠펜
팔찌 먼데이 에디션
셔츠 에드워드크



Step 2. 탐색의 키스

입은 원래 포유류의 탐색 기관인 수염이 있던 자리다. 그 흔적이 남아서 입은 손만금이나 예민한 감각을 지닌 곳이 됐다. 사람이 애무할 때 손과 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필피 멘데이 에디션
셔츠 커스텀벨로우

꽤 진도가 나간 연인 사이의 농밀한 애정 행각으로 여겨지는 키스는 생물학적으로는 상대방을 '탐색'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옛날 기생들이 "몸은 허락하지만 입술은 허락하지 않겠어요"라고 한 건 "육체적인 쾌락은 받아들이겠지만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 고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매번 키스만 하다 끝낼 뿐 더 이상 진도를 뽐지 않는 그녀가 불만이라면 혹시 당신, 그저 다음 단계로 빨리 가고픈 마음에 건성으로

키스를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라. 키스가 시작되면, 여자는 당신의 입을 통해 많은 정보를 탐색한다. 그녀는 당신이 믿을 만한 녀석인지, 당신의 진심은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당신이 단지 욕정을 쏟아 낼 심산으로 자신을 만나는 건 아닌지 귀신같이 당신의 속마음을 읽어낸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건, 현재 그녀가 당신에게 보류 판정을 내렸다는 의미다. 어찌 보면 Kiss는 그녀의 잠금 장치를 열 Keys(열쇠들)

를 맞춰 보는 과정이다. 당신의 하는 올바른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대체 그 패스워드가 뭐냐고? '진실한 사랑' 따위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녀가 열심히 당신을 탐색하는 동안 당신도 주동이에만 온 신경을 쏟아라. (제발 그녀의 손 좀 잠시만 멈춰) 그리고 그녀가 하는 것처럼, 점막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읽어내는데 주력하는 거다. 집중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Step 3.
털을 만지다

털이 있는 신체 부위에는 정서적 반응을 주관하는 C섬유가 있다. 이 신경 섬유가 피부와 접촉할 때, 우리는 자기 털 고르며 행복해지는 원숭이처럼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털이 난 곳은 체취, 즉 페로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성적인 부위다. 헤어숍에서 절고 섹시한 여자 미용사가 당신의 머리를 매만지고 면도를 해주었을 때, 당신의 풀풀이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단지 미용사의 섹시한 매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녀가 만진 부위가 하필 당신의 머리카락이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은 우리가 타인에게 쉽게 내보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체모 부위다. 당신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건 결코 가벼운 터치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성적인 부위를 건드리고 있다.

Touch Her Spot

Step 4. 은밀한 엉덩이

대화 중에 이성 동료가 당신의 팔을
톡 하고 건드렸다. 남자는 그러한
일상적 터치에도 쉽게 동요하고 성적
해석을 시도하는 반면, 여자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반면, 여자는
옷 속에 감춰진 은밀한 부위가
만져졌을 때 반응한다. 대표적인 신체
부위는 바로 엉덩이다.

거리에서 서로의 바지 뒷주머니에
자연스럽게 손을 넣고 걷는 커플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재네 잤네, 잤어."
엉덩이를 터치하는 건 그만큼 강력한
친밀감의 표현이다. 아직 그녀와 잔
건 아니지만, 섹슈얼한 사인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면 그녀의 엉덩이를 가볍게
터치해 보자. 당신이 엉덩이를 만지는
순간, 그녀는 신경세포 하나 하나가
일어선 듯한 극도의 긴장 상태로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수컷을 명확히
응시하게 될 것이다.

속옷 캠티 블라인 언더웨어
팬츠 DL1961

Step 5.

그 여자의 목

서양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는 최초의 동기는 뒤에서 여인의 목을 자유롭게 감상한 후"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여자의 목은 신체 중에서 여성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다.

이런 이유에서 성적 콤플렉스가 있는 살인마들은 여자의 목을 즐라 죽이는 교살을 많이 택한다. 여성성을 짓밟으면서 상대적으로 발현되는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섹스할 때 여자의 목을 조르는 남자들 역시 자신의 마초적인 면모를 드러내거나 남성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아도취 성향이 강한 편이다. 당신과는 무관한 별종들의 얘기라고? 다음번 거사가 끝난 후에는, 돌아누워 잠든 그녀의 목을 한동안 가만히 감상해보라.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에 당신의 입꼬리가 저절로 씨익 올라가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될 테니까. 

HAIR&MAKEUP 장혜민 VIDEO 김상수 ASSISTANT 장석영 LAYOUT 서용정 COOPERATION DL 1961(02-547-5707) 민데이 에이전시(www.monday-edition.co.kr) 퍼블리셔(02-546-0203) 에드워드(02-3442-0220) 커스텀헬프우(02-546-7764) 펄빈 토크인 언더웨어(02-540-4723)

남자 모델
게 봤네!





성매매 특별기획 Part.1 〈성매매 특별법〉을 파헤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바로 매춘이라는 얘기. 한 번 짚은 들어 봤을 거다.
생겨난 지 5년 남짓한 이 법이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매춘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인가?



BY Devil's Advocate
대한민국의 현직 변호사로서,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6년간 MAXIM을 구독하던 중,
2013년부터 MAXIM 객원 에디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혹자는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바퀴벌레 같은 직업이 바로 이 매춘이라고 한다. 실제로 밤에 변화가를 둘러 보면 온통 안마, 휴게텔, 룸살롱이 지천에 널려 있고, 윤락을 암시하는 피라시가 발밑에 모내기라도 한 듯 뿌려져 있다. 단속이 강화되자 요즘은 업소가 아닌 개인의 오피스텔에 방을 잡아 놓고 은밀하게 영업하는 신종 성매매까지 성행한다고 하니(속칭 '오피'), 이 정도면 윤락의 왕국이다. 현행 법률은 이러한 현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 되겠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자 윤락업 종사자 및 단골 성매매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사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전 보건사회부)에서 지정한 전국 104곳의 집창촌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는 사실상 합법화되어 있었다.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인신매매,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가 급증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암묵적 허용은 사라졌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성매매는 예외없이 본격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집창촌 형태로 밀집해 이뤄지던 성매매는 안마시술소나

풀싸롱, 오피 등 다양한 변종을 낳았다. 단속을 피해 진화한(?) 성매매는 심지어 주택가까지 침입하기 시작했다. 확대도 과거의 집창촌 시절보다 훨씬 비싸졌다.

서론이 길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 얘기일 테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을 파헤칠 차례다. 이번 호에선 '성매매'의 법적인 정의는 무엇이며, 여기저기 퍼져 있는 다양한 유흥업태들이 현행법 하에서 어떻게 규율되는지 알아 보기로 하자.

1 안마시술소

집창촌이 성행할 때만 해도 안마시술소 하면 터키탕 정도로 여겨 졌다. 그러다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초창기엔 변종 성매매의 대표 유형으로 손꼽히더니, 이제는 성매매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실 이름만 안마시술소지, 이곳의 서비스는 유사 성교행위로 시작하여 성교행위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매매다. 진짜 안마만 받았다고? 어디서 약을 팔아?

2 대말방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말방은 가난한 고시생을 상대로 과거 집창촌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신림동을 넘어 서울 전역에 퍼져 있다. 안마시술소 확대의 1/3 정도 가격에, 믿을 순 없지만 여대생들이 한판을 해

성매매 개념 원리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항 1호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인을 상대로'란 말은 돈을 낸 사람이면 누구에게든(불특정) 몸을 팔아야 성매매라는 얘기다. 특정인만을 상대하는 행위는 본 법률에서 말하는 '성매매'가 아니다. 왜냐고? 남녀 사이에 몸정, 애정이 쌓이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오갈 수도 있잖아. 그것까지 전부 성매매로 규정할 경우, 자칫하면 국민 상당수를 법적인 윤락녀(또는 남창)로 전락시킬지도...





성매매 개념 원리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항 1호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 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약속: 섹스는 했지만 아직 돈은 주고받지 않았으니 성매매가 아니라는 발뺌은 소용없다.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섹스를 했다면 성매매다. 후불이나 선불이나 똑같은 얘기.

**유사 성교행위: 쉽게 말하면 오럴, 손장난, 항문 성교, 도구를 사용한 삽...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준다니... 욕구가 넘치다 못해 폭주하는 고시생들이 훔칠 수 밖에 없는 아이템이다. 썰만 잘 풀면 떡도 칠 수 있다는 속칭 ‘대말’ 홀린 후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성황을 이뤘다.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때만 하더라도 ‘성행위’만 금지된 윤락행위였다. 즉, ‘유사성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성매매 특별법은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말방 역시 금지대상에 포함되었다. 신림동 고시촌 대말방까지 단속의 칼날이 들어서자 향후 출세길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한 고시생들이 발을 끊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대말방은 차츰 저물어가기 시작했다.

3 룸살롱

룸살롱은 그 안에서도 업태가 다양하니 나누어서 설명하겠다. (점점 이게 법을 칼럼인지, 대체 무슨 칼럼을 쓰고 있는 것인지 혼란이 온다.) 필자가 알고 있는 룸살롱의 종류는 텐프로, 찜오, 풀싸롱, 랜제리, 하드코어(속칭 ‘복창동식’) 정도다. 넓게 보면 가라오케나 노래방에서 보도를 부르는 것이나, 룸카페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룸살롱은 모두 불법이라고 인식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 소위 2차, 즉 성교행위가 제공되는 풀싸롱이나 이른바 ‘전투’라고 하는 유사 성교행위가 전제된 하드코어는 두당 가격이 2차나 전투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빼도박도 못할 성매매대(물론 돈은 낫지만 2차나

전투는 안 했다면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포돌이 형님이 아만 믿어줄 거다). 하지만 술집에서 종업원과 좀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다. 품위 유지를 위해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해야겠다. 유사 성교행위란, 쓰이는 신체 부위가 구강이건 항문이건 손이건 성교행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존슨형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상의를 모두 벗고 몸을 아무리 비벼대 봤자 그건 성교행위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성교행위가 아니다. 입술을 아무리 오래 쪽쪽 빨아대고, 숨가를 손으로 애무해도 이건 성교행위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성교행위가 아니고, 고로 성매매도 아니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풀싸롱이나 하드코어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안에서 어지간히 더럽게 놀아도 도덕적으로 비난은 좀 받을 지언정 이게 범죄 행위는 아니다. 유의할 점! 대부분의 랜제리 업소들은 2차를 옵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옵션을 택하는 순간 성매매 특별법 위반자가 된다. 이 때문에 우리 포돌이 형님들은 강남의 유명 랜제리 업소들을 포함해, 풀싸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2차를 코스처럼 주선하는 업소들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기왕 룸 이야기를 꺼냈으니 조금만 더 해 보자. 룸살롱에서 진하게 놀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가 본 사람은 일겠지만 꼭 룬살롱이 아니라 그냥 보도 아가씨를 불러서 나름대로 건전(?)하게 노는 가라오케 같은 곳에도 종종 단속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업소들이 영업정지를 받기도 한다. 어찌된 일인가?

이건 성매매 특별법과는 관계가 없다. 식품위생법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접객업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나누는데, 일반음식점은 음식과 술만 팔 수 있는 곳이다. 단란주점은 술과 음식을 팔면서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는 곳이며,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까지 출 수 있는 곳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놀랍게도 룬살롱의 여성접대부는 법으로 인정된 직업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흥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면 일반음식점에 비해 4배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유흥 업주들은 걸리면 과태료 내고 말지 하는 속셈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버젓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노래/춤 시설을 갖추고 영업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전한 룬살롱이나 가라오케도 단속을 당한다. 물론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이며, 그 안의 손님들과는 무관하다. 그러니 본인이 성매매 같은 쟁기는 짓을 한 게 아니라면 괜히 쫓 필요 없다.

4 잡동사니-키스방, 귀청소방, 유리방, 돌(Doll) 체험방 등등

참 징하다. 진짜 별의별 방이 다 있다. 업소 형태의 거짓수모만 보면 이미 성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대부분의 이런 희한한 방들은 원조 성진국에서 영감을 받아 들어온 것이다. (문화를 선도하는 트렌디한 매거진 MAXIM은 이미 키스방과 귀청소방 체험 르포 기사를 작성하여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었다. 궁금한 분은 그냥 그 기사를 보시도록. 아주 자세히도 써 놨더라고.) 일단 키스방은 여자랑 입술이 부르트도록 키스를 하는 곳이다. 해 봐야 숨가 터지 정도라고 한다. 나름의 스킬로 썸을 풀어서 진도를 더 빼지 않는 이상, 이걸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업소 자체는 단속 대상이지만 손님까지 어찌되는 못할 것이다). 귀청소방은 정말 귀만 파 주는 건지, 그 이상의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여자가 무릎베개 해주고 귀를 파 준다는데 끝나면 자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샷, 핸플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별 문제될 게 없다. 유리방은... 자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유리에 구멍을 뚫어 유사 성교행위를 해 주는 곳이라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돌(인형) 체험방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 가지 마라, 우리, 인간적으로 마지막 존엄성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보충 학습: 스폰서

스폰서 관계라는 말, 들어 봤지?

끝나면 반남이장~
정말로 주는 줄
알았어?
쿄로



어떤 여성을 만날 때마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스폰서. 전문 용어로 '들어 앉힌다'고 한다. 돈을 주고 떡을 치니 성매매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 명과 진득하게 만나면서 만날 때 용돈으로 돈을 주는 것이니 외모만 보는 남자, 돈만 보는 여자가 연애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지? 우리나라가 성매매 특별법으로 다스리는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폰서 관계처럼 돈을 매개로 '특정인'과 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니까.



성매매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처벌되나?

물론 포들이 형들에게 과연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지만, 전국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수천 곳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업소를 단속해 봐야 업소 사장들은 죄다 바지들이고 영업 정지 먹여 봐야 조만간 다른 이름으로 또 개업하여 괜히 단속 날 현장에 있던 불쌍한 중생(?)들만 좌절하게 된다. 그런데 뉴스에 성매매 업소 단속 기사를 보면 꼭 현장에 있던 사람만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닌데, 왜 걸리는 걸까?

안마의 경우 다 카드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단속반은 제일 먼저 신용카드 승인 내역부터 살피고 도저히 건전한 안마만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승인 내역을 추려내 해당 카드 주인들에게 연락을 뿌린다. 당일 결제 시각에 명확한 일리바이가 없는 이상 거의 대부분 혐의가 입증된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서 카드를 긁는 사람은 나 좀 잡아가라고 발버둥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연히 '꾼'들은 이를 잘 알고 현금 결제만 할 것이고, 호기심에 한 번 가 봤다가 카드를 긁는 어리숙한 초범들만 줄줄이 잡혀 들어간다. 오피는 예약을 받는 담당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조회한다. 일단 통화수가 많은 번호부터 추린 후, 기지국 내역 중에 단속 장소 인근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들을 추려낸다. '내가 통화한 게 아니다. 당시 핸드폰을 분실했었다' 등의 일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를 벗지 못한다. 특히 아가씨들이 자기라도 가볍게 처벌받기 위해 경찰에게 전적으로 협조하면서 "저 사람 내가 받은 손님"이라고 진술이라도 하는 날엔 그대로 철경철경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범법 행위와 단속 행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했다. 흔적 안 남기고 성매매 하겠다고 현금 싸 들고 나가서 힘들게 공중 전화 찾아가는 모습이라니, 진짜 가요 안 선다. 게다가 그거 한 번 하겠다고 비밀 요원마냥 007작전을 벌인다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하겠나? 그냥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라, 줌.

그럼 성매매를 하다 걸리면 어떻게 처벌되나? 일단 초범은 거의 100% 기소유예이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아직까진 형사처벌할 만큼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으니 한 번 봐주겠다는 의미이다. 대신 성매매로 걸린 사람들은 성매매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한다. 이른바 존스쿨이라고 하는 이 교육을 일정 기한 안에 받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기소된다. (참고로 존스쿨은 미국에서 성매매 위반으로 걸린 사람들이 죄다 자기 이름을 존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전 세계의 존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두 번째로 걸리면 거의 대부분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게 된다. 중·고배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성매매를 했다고 바로 구속을 시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성매매는 현행법상 범죄 행위이다. 술 한 잔 걸쳤을 때 찾아오는 강렬한 성매매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술이 딱이 되어 충동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가 성매매범이 된다면... 엄,청,나,게,후,회,한다. 차라리 아동을 보며 손양과 만난 뒤 밀려오는 개운한 현자 타임을 통해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현자가 될지어다. 

떡으로 사기치기

그럼 성매매 하고 돈 때먹어도 돼?



니가 질루 나쁜 새끼야

돈 준다고 하고 떡을 친 후 돈 안 주고 배째라 하는 천하의 파렴치한들이 가끔 있다. 그런데 한 수 더 뜨는 것은 이 녀석들 자기는 돈 준 것이 없으니 성매매도 아니라고 뻔뻔하게 군다. 앞서 밝혔듯이 성매매는 돈을 준다고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 안 줬으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폼수파들은 철퇴를 맞게 될 거다.



修能神功

수능신공

언제나 새 옷 같은 기분!

맥심 학생복

(물에 막 빨아도 좋습니다)

★ 좀나가 보이는 X세대의 학생복!
★ 줄여입은듯 재봉터지게!
★ 나팔바지로 쿨하게!

맥심합섬 직물주식회사

나오는이 2011 MISS MAXIM 준우승자 김지예, 에디터 김진욱, 김희성, 손안나, 조용재, 박정욱, 임원비서 정석영
사진 촬영 Zho 분강 정혜민

Chapter.2

수험의 새해가 밝았네

수능이 끝났다. 밝은 연말에, 성탄절에 어수선해도 내년 수능을 향한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다. 고3 독자를 위한 <수능신공> 2편을 위해 맥심의 수능 고수 2인이 다시 나섰다. BY 유승민 이영비



편집장 이영비

수능 점수: 393.5점(400점 만점)
주특기: 4교시 외국어 영역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수석에디터 유승민

수능 점수: 396점(400점 만점)
주특기: 1교시 언어 영역
서울강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지난 호 이야기...

- <수능신공> 첫 시기이었던 11월호에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를 당부했다. (궁금하면 과월호로 GoGo)
- 첫째**, 수능 점수를 올려주는 건 공부라 아니라 기술!
- 둘째**, <수능신공>의 핵심은 어려운 문제를 버리고 쉬운 문제만 찾아 먹는 것!
- 셋째**, 안 풀리는 문제를 포기하는 마인드 컨트롤 법!
- 넷째**, 과목마다 다른 1문항당 제한 시간
- 다섯째**, 재탕 신공으로 버린 문제 주워먹기

<수능 신공> 제3장: 시간 배분의 황금비율

포기 신공: 1회독 제한 시간을 지켜라

지난 시기에는 1회독에서 안 풀리는 문제를 재빨리 포기하는 법과, 1문제를 잡고 있는 동안 넘지 말아야 할 '최대 고민 시간'을 정해주었다. 지난 호에 나왔던 표를 다시 한번 참고하자.

과목	1문항당 평균 소요 시간	1문항당 최대 고민 시간
국어 영역	1분 15초	2분 00초
수학 영역	2분 20초	3분 30초
영어 영역	1분 00초	1분 50초
사/과/직탐	1분 00초	1분 40초

예를 들어, 국어 문제 1개는 평균 1분 15초 안에 풀어야 한단 얘기다. 당신이 공부하는 걸 아예 놔버린 꼴통만 아니라면 한 문제를 풀기에 평균적으로 그리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다. 왜냐면 문제 중엔 20~30초 만에 풀리는 쉬운 것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쉬운 문제를 재빨리 해치우며 시간을 차곡차곡 세이브해야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끄덕더라도 평균 '1문제=1분 15초'를 찍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스피드 훈련을 해 오지 않은 수험생에선 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벅할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수능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 지식의 풍부함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에 하나라도 더 읽고 답을 적어야 하는 순발력 테스트에 가깝다. 수능의 이러한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선비가 경전을 탐독하듯 깊고 느긋한 공부만 했다간 아무리 그 배움의 깊이가 깊어도 수능에선 개박살이 난다. 공부야 알아 머리에 든 게 적어도, 이 속도전의 본질을 이해하고 맞든 틀리든 시간 내에 문제를 제껴 내는 훈련을 한 자가 수능에선 승자다.

그렇기에 이 타임리미트가 버거운 수험생은 지금 당장 두꺼운 참고서를 집어던지고 시간 내에 답을 써 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풀든 버리든, 위 표에 적힌 시간 내에 문제를 처리하는 요령을 숙달시키는 이유는 1회독을 이상적인 시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다.

MAXIMI 정해진 위의 1문제당 시간 제한을 지키는 훈련을 하다 보면, 아래 시간 내에 문제 풀이를 깔끔하게 마칠 수 있다.

<1회독 풀이 소요 시간>

과목	문항수	시험 시간	1회독
국어 영역	50문항	80분	60분 내외
수학 영역	30문항	100분	75분 내외
영어 영역	50문항	70분	50분 내외
사/과/직탐	20문항	30분	22분 내외

제한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풀기도 뻘센데 어떻게 저 시간 안에 재탕까지 하냐고? 이 사람...



지난 호를 읽지 않았고, 지난 11월호의 <포기 신공>을 익히면 충분히 가능하다.

당장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포기 신공>은 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맞히려는 게 아니다. 고민할 때 빨리 버리고 넘어가는 과감성만 기르면 1회독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1회독에서 몇 문제를 패스하느냐에 따라 1회독 풀이에 걸리는 시간은 달라지겠지만 1회독에서 자신이 몇 문제를 풀었고, 몇 문제를 포기했는지는 신경쓰지 마라.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거다. “제한 시간 내에 1회독 풀이를 마쳤다 해도 못 푼 문제가 태반이면 망한 거 아닌가?” 망하지 않는다. 몇 문제를 포기했든 당신이 시간 안에 마지막 문제에 도달했다는 건, 모든 문제를 건드려 봤다는 뜻이다. 평소엔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던 쉬운 문제를 이젠 놓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패스하는 문제의 개수는 매년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수능 신공> 전수자라면 1회독 때에 자신이 못 푼 문제의 개수에 초연해져야 한다. 풀지 마, 풀지 마.

재탕 신공: 2회독 제한 시간을 지켜라

<2회독 풀이 소요 시간>

과목	시험 시간	1회독	2회독 재탕 신공
국어 영역	80분	60분	13분 내외
수학 영역	100분	75분	18분 내외
영어 영역	70분	50분	13분 내외
사/과/직탐	30분	22분	5분

<포기 신공>으로 제한 시간 내에 1회독을 마치고

나면, 11월호에 일러준 <재탕 신공>을 이용하여 2회독째 풀이를 할 차례다. 이 표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시간은 2회독 제한 시간이다. 1번 문제로 돌아가 1회독에서 버린 문제를 다시 주워먹기 시작하라. 이 시간 배분은 절대 대충 쪼개놓은 숫자가 아니다. 2013년 수능 시험의 과목별 문항수와 시험 시간을 놓고 수많은 실험 끝에 도출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 그냥.

<수능 신공> 제3장: OMR 신공

전사어, 컴퓨터용 사인펜을 뽑아라!

자, 배운대로 <포기 신공>과 <재탕 신공>을 이용하여 2회독까지 마쳤다면 시험 종료까지 당신에게 약 7분의 시간이 남아있을 거다(사회/과학/직업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3분).

<1, 2회독 풀이를 마친 후 남아야 하는 시간>

과목	시험 시간	1회독	2회독	남은 시간
국어 영역	80분	60분	13분	7분
수학 영역	100분	75분	18분	7분
영어 영역	70분	50분	13분	7분
사/과/직탐	30분	22분	5분	3분

이제 뭘 해? 푼 문제를 점수로 굳혀야 할 시간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시험지 밑에 깔아두었던 OMR 카드를 꺼내라. 근데 7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OMR 카드 마킹을 시작하라고? 답안지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OMR 카드 마킹 Tip!

대체 얼마만큼 꼼꼼하게 칠해야 될까?



답안은 “●”와 같이 완전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바르지 못한 표기 (▽ ◻ ◂ ◃ 등)를 허용음

이런 거 익히 봤겠지만 안 그래도 없는 시간에 과연 저렇게나 꼼꼼히 색칠을 해야 하나? 에디터가 수차례 실험한 결과 OMR 마킹란 안쪽이 약 80% 이상 칠해져 있으면 기계에 넣었을 때 무리없이 인식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몇몇 모의고사의 경우 OMR 마킹란이 동그란 원형인 경우도 있으나, 실전 수능 시험에서는 다형히 쌀알 마냥 위 아래로 길쭉한 타원형이다. 하고 많은 모양 중에 왜 길쭉한 타원형일까? 쉽고 빠르게 마킹하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배려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짙게 칠해도 여지간히 병신 같이 굵지 않는 한 거의 다 인식된다. 괜히 예쁜 타원 모양 만드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니 말이 맞다. 좀 이른 시간이다. 하지만 답안지 작성을 마친 후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일단은 믿고 답안지 작성을 시작해라. 당연히 OMR 답안지 작성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이라 생각했을 당시는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답안지 작성을 조금 앞당겨서 하면 좋은 점이 많다. 먼저, OMR 답안지 작성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험자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겨준다. 시험지 위에 잘 풀어 놓은 문제도 OMR 카드에 정확하게 옮기기 전에는 결국 점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자칫 OMR 카드에 마킹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거나, 조금하게 마킹하다 밀려쓰기라도 하는 날엔 푼 문제도 몽창 날려먹게 된다. 이 얼마나 똥줄 타는 일인가. 텅 빈 OMR 카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초조한 불안감을 안고 문제를 다시 들여다 봤자 문제가 차분하게 읽힐 리 없다. 그러나 이미 해치운 문제를 OMR 카드 위에 확실한 점수로 확정짓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1, 2회독을 통해 해결한 문제의 답안을 미리 OMR 카드 위에 옮겨 두라는 건 그 때문이다.

못 푼 문제는 월로 짚삼?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길 거다. 2회독까지 했는데도 답을 내지 못한 문제 말이다. 결국 풀지 못한 그 문제는 OMR 카드에 뭐라고 마킹하지? 일단 제껴라. 못 푼 문제 앞에 멍하니 멈춰서 몇 번을 짚을지 머뭇거리다간 OMR 카드 마킹 작업의

속도만 떨어질 뿐이다. 푼 문제만 신속하게 답안지에 마킹하고 못 푼 문제의 OMR 란은 비워둬라. 끝까지 집지 못한 문제는 답안지 작성 이후로 미뤄두자.

답안지 작성 소요 시간

OMR 카드 마킹에 소요되는 시간은? 과목을 막론하고, OMR 카드 마킹을 완료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을 절대 넘어서 안 된다. 아무리 신중하게 마킹을 한대도 말이다. 신중하게 마킹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이 넘어간다면 당신은 문제 풀이에 할애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OMR 카드 마킹의 미숙함 때문에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다.

<적절한 OMR 카드 작성 시간>

과목	문항 수	OMR 카드 작성 시간
국어 영역	50문항	3분
수학 영역	30문항	2분
영어 영역	50문항	3분
사/과/직탐	20문항	1분

시험 감독관이 안내하는 대로 시험 종료 전 5분이 되면 과목에 관계없이 OMR 카드 마킹을 시작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이 또한 시간 낭비다. 과목별로 문항 수가 다르니 마킹 시간도 다르게 잡아야 한다. 50문항이나 되는 국어 영역과 30문항 밖에 안 되는 수학 영역의 마킹 시간을 똑같이 할애할 이유가 없다. 문항 수가 가장 적은 4교시 사회/ 과학/ 직입 탐구

최고의 컴퓨터용 사인펜

그런게 있어?



물론이다. 최고의 컴퓨터용 사인펜은 바로 '최적의 굵기'를 뽑아내는 사인펜이다. 최적의 굵기란 다름아닌 OMR 카드의 타원형 마킹 란의 폭과 일치하는 굵기를 의미한다. 이 폭은 대략 1.5mm 정도인데, 너무 새 사인펜은 뽀뽀하고 뽀뽀해서 이보다 얇게 나오고, 너무 오래 쓰면 마킹란보다 두꺼워질 뿐 아니라 색도 흐릿해진다. 남자가 자질구레하게 컴퓨터용 사인펜 두께까지 연연해야 하나 싶겠지만 잊지 마라. 이런 디테일한 세팅의 모음이 고수를 탄생시킨다는 걸.

영역(각 20문항)의 경우 답안지 작성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하다.

답안지 작성 시간을 줄여줄 좋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는 것은 점수 올리는 데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 에디터의 경우, 최상의 사인펜을 쓰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최고 2배까지 작성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컴퓨터용 사인펜에 대해서는 앞 페이지의 박스 기사를 참고하도록.

답안지 작성 시간만 되면 풍이 와요

민약 당신이 컴퓨터 사인펜만 들어도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이 땀이 질질 나는 새가슴이라면 문제집을 한 번 더 푸는 것보다 OMR 카드 마킹

연습을 더 해서 능숙하게 만드는 것이 고득점에 훨씬 즉각적인 도움이 된다. OMR 카드 울렁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지.

7분여를 남기고 답안지 작성을 시작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나? 같은 3분의 시간을 놓고 답안지를 작성하더라도 이렇게 7분이나 남은 상태에서 3분 동안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시험 종료 3분을 남겨놓고 답안지 작성을 시작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3분 만에 답안지를 작성하겠다고 시험 종료 3분 전에 답안지 작성을 시작하면 삼국지의 관우가 와서 마킹을 해도 손발이 떨리고 실수를 남발할 거다. OMR 답안지 작성 후 시간을 남겨놓는 것은 마킹 실수를 줄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1월호 <수능 신공> 예고: 수능 신공 제4장: 시마이 신공

자. 이제 답안지 작성까지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숙달했다면 당신에겐 OMR 카드 작성 완료 후에도 아래와 같이 몇 분의 시간이 남아 있을 거다.

과목	답안지 작성 시작	답안지 작성	남은 시간
국어 영역	종료 7분 전	3분	4분
수학 영역	종료 7분 전	2분	5분
영어 영역	종료 7분 전	3분	4분
사/과/직탐	종료 3분 전	1분	2분

이 짧은 시간은 대체 뭘 위해 남긴 걸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능 신공>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 풀이 3회독에 돌입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아니, 당채 시간이 많을 때에도 풀지 못해 포기했던 문제들을 시험 종료 직전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이름하여 <수능 신공 제4장: 시마이 신공>! 궁금하다면 내년에 돌아올 MAXIM 1월호를 놓치지 마라!



그나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보 속 맥심고등학교 학생들도 교복을 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이 많은 인원을 모델로 쓰자니 모델비가 감당이 안 되어 부득이 편집부 에디터들을 출연시켰으니 양해바란다. MISS MAXIM 김지예, 그리고 편집부원들의 풋풋한 교복 사진들은 MAXIM 페이스북(www.facebook.com/editors.maxim)에 더 많이 올라와 있으니 '팔로우' 버튼을 꼭 눌러주기 바란다. ☺



파괴력은
영상으로
확인하자



현존하는 MMA 최중량기 중 하나인 웰터급 세계 챔피언 조르주 생 피에르(왼쪽)는 UFC 20주년이었던 지난 11월 17일, 최강의 도전자 존 리랜드(오른쪽)를 맞아 격전 끝에 판정승으로 간신히 타이틀을 지켜냈다. 그는 현재 UFC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기록한 파이터다.

우주 최강 MMA 파이터 만드는 법



당신은 닥터 프랑켄슈타인이다. 스트라이커 대령이 당신을 납치해 초인 전사를 만들어내라고 난리다. X 같지만 할 수 없다. 어떻게든 해내지 않으면 당신이 X 될 거다. 생각해보면 미 국방성이 뒤에 있으니 잘만 해내면 꽤 짝퉁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이제 초인 전사를 위한 바디파트를 수집해볼까?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에밀리아네펠도르의
편도체**

뇌의 기능은 인간의 여타 다른 기관과 달리 아직도 많은 부분이 신비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현대 뇌의학은 이 생명과 의식의 중추이자 인류 문명의 가장 원초적 단위인 1.4kg짜리 뉴런 네트워크의 대략적 기능을 밝혀냈다.

편도체는 공포라는 감정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아몬드(almond, 편도체)를 닮았다고 해서 아미그달라(amygdala, 편도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부위가 손상되면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공포란 전투 행위에서 매우 거주장스러운 감정이다. 공포심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테크닉을 구사하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포심을 잘 억제하는 선수는 치명상을 입거나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대응해 역전승을 거두기도 한다. 편도체가 잘 발달할수록 격투에는 불리하다. 아몬드가 아닌

땅콩, 혹은 콩알이나 울무 같은 편도체를 가진 선수가 격투에서는 유리하다. 에밀리아네펠도르의 공포라는 감정 자체를 아예 느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설 때 모습을 두고 바스 루튼은 "마치 동네에 이발이라도 하러 나온 사람처럼 보인다"고 평했을 정도다. 그가 당대 최고의 그라운드 마스터 노게이라와 그라운드 대결을 펼치고, 가장 위험적인 스트라이커 크로캅과 스탠딩에서 맞붙을 놓을 수 있던 배경에는 그의 좁쌀만 한 편도체가 작용했을 수 있다. 일단 편도체의 편도체부터 손에 넣자.



**조르주 생피에르의
전두엽**

전두엽은 흥미로운 부위다. 뇌의 가장 고등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고, 고등 영장류일수록 이 부분이 잘 발달했으며, 인간의 전두엽은 다른 생명체에 비해

압도적인 사이즈를 자랑한다. 전두엽은 위험의 인지, 동기부여와 주의 집중, 계획 수립 및 실천, 사회 관계상의 판단 및 행동, 도덕 관념 등, 그야말로 인간 고유의 고등 능력을 관장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사회성 결여, 분노 조절 취약, 계획성 및 실천 능력 부족 등의 성향을 띠게 되며 사이코패스의 경우도 전두엽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르주 생피에르는 극도로 안전한 플레이를 한다. 위험 인지 능력이 뛰어나 그것을 잘 피해간다는 의미다. 이 부분은 편도체의 역할과 일핏 상충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위험 인지 능력이 뛰어나데 공포심까지 너무 심하다면 문제가 된다. 영화 <주노>에서 귀신이 기어 나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똥을 싸 형사들이 좋은 예다. 그들은 위험을 인지하는 전두엽이 아주 잘 발달했고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편도체도 거의 달걀만한 사이즈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튀면 될 일을 그렇게 처 뒤지고 만 것이다.

반대로 공포심이 별로 없고, 즉 편도체가 작고 전두엽의 기능도 약해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첫 장면 같은 상황에서 앞에 있는 전우들이 낙엽 지듯 쓰러지는데, 그것을 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공포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병사는 잠시 후 다진 고깃덩이가 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가.

전두엽이 발달해 위험을 잘 인지하기는 하는데, 편도체는 또 작아서 인지한 위험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합이다. 큰 전두엽과 작은 편도체의 콤보가 최고라는 얘기를 격투기란 기본적으로 상대를 물리적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따라서 위험의 인지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또 순간 순간의 상황에 겁을 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극도로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위험은 인지하되 공포심 때문에 행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 격투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전두엽의 기능 중에는 평상시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 또 주변 인물과 미디어, 팬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계획성과 사회성이라는 영역의 컨트롤이라는 점도 있으므로 성능 좋은 전두엽을 장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피에르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극도로 모범적이다. 생피에르는 정말 아주 아주 훌륭한 선수다. 다만 그의 경기가 수면제인 것 뿐이다. 어쨌든 간에 생피에르의 전두엽을 꼭 입수하도록 하자.



**앤더슨 실바의
눈-시각중추-소뇌-
운동신경망**

눈은 뇌의 전방 기관이라고 한다. 사실상 뇌의 일부란 의미로, 눈과 시신경과 시각중추의 성능은 격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를 정확히 캐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구가 정확한 상을 포착하는 것은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 근시나 난시, 원시 같은 증상이 없는 건강한 안구, 그리고 투명도 높은 수정체와 조오오나 시꺼먼 망막 등이 필요하다. 안구에서 수집한 시각 정보를 모아 시각중추로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인 시신경의 성능이 뛰어나야 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중추도 잘 발달해야 한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능력은 1초에 몇 프레임의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1초에 24프레임이 들어가는 요즘 영화를 보면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찰리 채플린 시대의 영화는 초당 프레임 수가 훨씬 적고 우리의 시각중추는 그 영상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시각중추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직업군에는 프로 야구가 있다.

그들은 상대 투수가 던진 공의 실밥이 회전하는 형태를 보고 구질을 판단한다. 130~150km/h 가량의 속도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일반인이 타석에서 경험한다면 거의 "숙~" 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런데 뛰어난 야구 선수들은 그 공의 실밥을 볼 수 있다고 하니 그들과 일반인의 차이란 아마도 시각중추의 단위 시간당 프레임 처리 능력이 아닐까 싶다.

소뇌는 전두엽에서 보낸 명령에 따라 운동신경을 컨트롤한다. 일종의 운동 명령 처리 센터로서, 당연히 중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소뇌를 거쳐 신체 각부의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 네트워크의 성능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일정한 행동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걸린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종이 있고 그 옆에 볼펜이 하나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집어서 동그라미 안에 점을 찍는 게임을 벌인다고 치자.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이유는 종합적 시각-운동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눈-시신경-시각중추-전두엽-운동중추-소뇌-운동신경-손으로 이어지는 명령 체계의 종합적 성능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부분에서 전두엽을 제외한 눈, 시신경, 시각중추, 운동중추, 소뇌, 운동신경망은 앤더슨 실바의 것을 사용하기로 하자. 앤더슨 실바는 가장 정밀한 타이밍을 잡고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 덕에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살짝 만지는 것 같은 그의 타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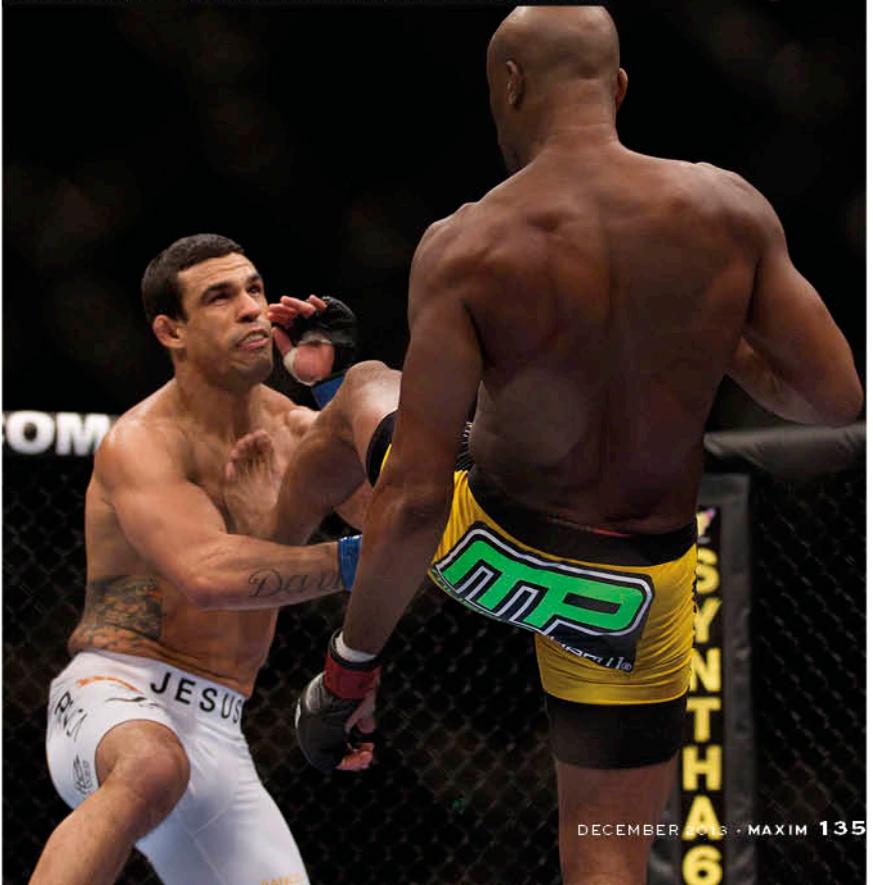
상대 선수는 픽픽 쓰러진다. 복싱에서 KO는 '타이밍의 아트'라고 말한다. 타이밍을 캐치하는 것은 골격이나 근육이 아니다. 그건 뇌와 신경이 관장하는 행위다. 적출하고 아식하기 무척 까다롭겠지만 할 수 없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면 도둑이나 마찬가지다. (아, 이미 도둑질인가?)



**세인 카윈의
오른쪽 어깨-주먹**

파괴력을 기준으로 뽑자면 세인 카윈이 최고다. 그의 오른손에는 공극의 파위가 깃들어 있다. 카윈은 2006년에 데뷔해 2010년까지 12연승을 달렸다. 12명의 상대 중 단 한 명도 1라운드를 넘지 못했다. 카윈의 실상 능력은 그만큼 엄청났다. 그중 백미는 가브리엘 곤자가전. 곤자가는 1라운드 초반 폭발적 펀치로 카윈을 빈사 상태로 몰아넣었다. 곤자가가 피니시를 위해 펀치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는데, 거기서 카윈의 오른손이 불을 뿜었다. 그렇게 크게 휘두른 것도 아니었으며 본능적으로 뺨은 느낌이었지만 주먹이 닿은 즉시 곤자가는 전원을 끈 바람 인형처럼 폭삭 내려앉았다. 내년쯤 중고 타임머신을 한 대 구입하면 나는 일단 어린 시절로 돌아가 나 자신에게 이것저것 알려줄 거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앤더슨 실바는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해 승리를 거두는 '타이밍의 아티스트'다.



Fight / MMA

일이 1993년에 들러 19세의 카원을 찾아가 <UFC 1>을 보여 주며 난 이것을 하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1975년생인 그는 32세에 뒤늦게 MMA에 데뷔했고 풀타임 파이터도 아니었다. 탄광 엔지니어가 주업이었고 MMA는 파트타임 부업이었다. 그러고도 UFC 헤비급 타이틀전까지 올랐으며 브룩 레스너를 두들겨 패 거의 벨트를 손에 넣을 뻔했다.



쓰다 말았나.

주니어 도스 산토스의 왼쪽 어깨-주먹

왼쪽 펀치 기술이 빠르고 강하며 힘까지 갖춘 선수로는 산토스가 최고다. 그의 잭과 보디 잭, 레프트 혹은 파워와 스피드 면에서 아주 뛰어나다. 길버트 아이블을 잠재우던 장면, 마크 헌트에게 치명상을 입힌 장면을 떠올려보라. 우리의 프랑켄 파이터에게 꼭 장착해야 할 중요한 부위다.



케인 벨라스케츠의 심장-폐-혈관

이것은 거의 뇌-신경계의 성능이나 맷집만큼 중요하다. MMA의 한 라운드는 5분이다. 싸움에서 5분은 영원과 같은 의미다. 그리고 그래플링이라는 행위는 어마어마한 체력 소모를 불러오고 서로 붙잡은 상태에서 응을 쓰다 보면 순식간에 폐에 불이 붙고 심장의 RPM이 레드 존으로 진입한다.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굉장한 속도로 위축된다. 체력이 바닥난 선수는 기술이 제이우리 뛰어나고, 뇌 신경계가 앤더슨 실바의 할아버지급이고, 좁쌀만한 편도체에 초대형 전두엽을 가졌으며 초합금 두개골에 석재 하악골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X나게 당하게 된다. 일리스타이르 오버레임이 좋은 예다. 그는 체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강하다. 수비 능력이 막강하고 공격 옵션도 다양하다. 그러나 경기 시작 후 5분만 지나면 계왕권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지극히 평범한 선수로 전락한다. 그리고 보통 KO패한다. 그가 역전 KO패의 명인으로 등극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순환계 능력의 부재다.

케인 벨라스케츠의 심세 세트는 12기통 엔진이다. ESPN의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케인 벨라스케츠의 한계 심박수는 분당 167 회다. 그의 심장은 매우 크고 강력한 펌핑 능력을 지녔다. 심장의 펌핑 능력과 지구력은 젖산과 관련이 깊다. 근육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나면



젖꼭지는 안데.

지난 10월 19일, UFC 166에서 벨라스케츠(왼쪽)는 TKO로 산토스(오른쪽)를 물리치고 헤비급 타이틀을 2차 방어에 성공했다.

젖산이라는 폐기물이 남는다. 운동 강도가 약할 때는 혈행을 따라 젖산이 배출되지만 심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그대로 근육 내에 축적된다. 농도 높은 젖산이 축적된 근육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심장의 펌핑 능력이 강하고 혈행이 힘있게 이루어져야 젖산의 축적을 역제할 수 있다.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도 있지만 피로 물질을 치워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 면에서도 벨라스케츠는 축복받았다. 그는 멕시코의 혈통이다. 예로부터 멕시코 북서부는 지구력에서 다른 인종에 비해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왔다. 중미 지역의 평지는 우림이거나 사막이라 문명이 발달하기 힘들었고, 이 지역의 토착민은 적절한 기후를 찾아 고산지대를 향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과 산소 농도는 낮아진다. 해발 3,000m의 대기에는 저지대에 비해 산소가 70%밖에 없다. 멕시코시티의 고도는 평균 2,200여 미터, 가장 높은 지역은 3,900여 미터에 이른다. 그 곳에서 적응하는 수천 년 동안 토착민은 특수한 유전 형질을 습득했다. 그들의 순환계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강화된 것이다. 심장과 폐의 기능뿐 아니라 혈중 적혈구 농도도 저지대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들은 저지대 사람들이 맥을 못 चु는 저산소 환경에서도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중미 고산 민족의 유전자는 16세기 지리상의 발견 시대를 거치면서 스페인 계열의 호전적 유럽 혈통과 결합하게 되었다. 고산 민족의 상당수가 유럽인이 저지른 전쟁과 학살,

구대륙에서 전파된 치명적 전염병 등으로 절멸했다고 하지만 살아남은 소수에 의해 고산민족의 강화된 심폐 기능 유전 형질이 현재의 멕시코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강화된 심폐 능력은 스포츠에서 매우 중대한 자산이다. 육상 장거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케냐 역시 고원지대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케인 벨라스케츠의 막강한 체력 역시 마찬가지다. 후반부에 가서도 초반과 같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력은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준다. 상대방은 2라운드, 3라운드를 거치면서 본인 실력의 80%, 60% 밖에 발휘하지 못하는데, 벨라스케츠는 90%, 80%를 낼 수 있다면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특히 그것이 타이틀전, 즉 5라운드 경기라면 벨라스케츠의 상대적 우세는 가히 압도적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혈관은 언제 다 적출하지? 그래, 벨라스케츠는 통째로 납치해서 다른 파트들을 여기에 장착하는 게 편했겠다.



대니얼 코미어의 허리

대니얼 코미어는 단신이다. 180cm 정도로 헤비급치고는 정말 형편없이 작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아무런 부담 없이 상대하는데, 그의 저력은 바로 레슬링이다.

레슬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허리다. 코미어의 허리는 신장에 비해 매우 굵고 튼튼하다. 그의 레슬링이 가장 빛을 발한 때는 조시 바넷을 공깃돌 가지고 놀듯 집어 던지던 순간이었다. 바넷도 힘이라면 어디서 빠지는 편이 아니지만 코미어를 상대로는 거의 힘 한번 써 보지 못하고 당했다. 역시 올림픽 4위, 세계선수권 3위를 한 세계적 레슬러답다.



**로이 넬슨의
두개골-턱-목**

머리에 가해지는 타격이란 결국 뇌를 진동시키는, 즉 두부나 젤리같이 유동질인 뇌를 관성을 이용해 출렁이게 만드는 행위다. 펀치로 상대의 턱을 날린다고 치자. 주먹의 키네틱 에너지가 상대에게 가해지면서 상대의 족통, 즉 하악골-두개골이 움직이게 된다. 뇌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 자리에 있으려 하기 때문에 두개골의 뇌실벽과 뇌가 충돌하면서 뇌가 찢어졌다가 출렁이게 된다. 그 정도가 약하면 멍 하고 잠시 별이 보이는 거고 강하면 뇌가 순간 리부트되면서 의식을 잃고 드러눕는다. 심하면 마비,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두개골-턱-목의 질량이다. 상대 펀치의 본질은 결국 운동에너지다. 주먹의 운동에너지가 강한 임팩트와 함께 두개골을 가속시키는 게 충격의 전달 과정에 작용하는 물리 현상이다. 펀치가 머리통을 얼마나 가속시키느냐에 따라 뇌실과 뇌의 충돌 강도가 달라지고 이를 토대로 최종 데미지량이 결정된다. 두개골과 턱과 목의 근수가 많이 나갈수록 가속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같은 키네틱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머리, 턱, 목이 무거운 쪽이 데미지를 덜 받는다. 즉 큰 머리, 큰 턱, 굵은 목이 멧집의 3요소라는 말씀. 대두라고 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잘 생각해 보면 대두도 축복이다. 마크 헌트를 보라. 그의 머리통은 특대 사이즈에 몸통도 크고 팔다리는 짧다. 옥타곤은 대두를 원한다. 알리스타이르 오버레임은 몸에 비해 머리가 매우 작다. 안토니오 실바전을 보면 그의 머리가 실바의 손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 패션 모델이나 연예인이 될 생각이려면 작은 머리는 큰 장점일 터. 그러나 그런 머리를 가지고 격투판으로 왔을 때는 살짝만 터치당해도 바로 늑개 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버레임의 소두는 연예계에 팔아서 부수입을 챙기자. 이 분야에서는 왕년의 노계이라, 왕년의 카인, 왕년의 헌트 그리고 로이 넬슨이 대두 4파전 구도를 만든다. 그중에서 가장 상심해 보이는 넬슨의 것을 사용하기로 하자. 넬슨은 안드레이 알롭스키에게 KO패 당한 적이 있지만, 이후 어마어마한 멧집을 자랑하며 일취월장하고 있다.



**파브리시오 배우둠의
엉덩이**

주짓수에서 엉덩이의 사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상위 포지션에서 더 좋은 포지션을 따내고자 할 때, 공세를 퍼붓고자 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하위에서 이스케이프나 서브미션을 시도할 때 엉덩이의 움직임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서도 가장 크고 강력하며 차기 헤비급 도전자로 낙점된 주짓수 마스터 배우둠의 엉덩이를 노려보자.



**존 존스의 상완부
(어깨 아래에서 팔꿈치까지)**

세인 카윈의 오른쪽 어깨와 주니어 도스 산토스의 왼쪽 어깨를 확보했다면 그 아래 팔꿈치는 존 존스의 것으로 장착하자. 그의 상완부는 UFC의 모든 체급을 통틀어 가장 길다. 존스의 팔꿈치 공격이 효과적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상완부의 길이 덕분이다. 브랜던 베라는 그라운드에서 존스의 팔꿈치 파운딩을 맞고 광대뼈가 세 조각이 났다. 최근에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은 4라운드 중반까지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다가 존스의 스피닝 백 엘보에 당해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파브리시오 배우둠의 하완부
(팔꿈치 아래에서 손목까지)**

주짓수나 그래플링 일면에서 악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상대의 손목을 꼭 쥐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서브미션을 사용할 때나 그라운드 방어 시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악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하완부다. 주짓수 단련자들은 악력에 상당히 집착하는 편이다. 보디빌더들이 벤치 프레스나 스쿼트의 수치에 매달리는 것과 비슷하다. MMA에서 악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한 선수라면 역시 배우둠이다. 이 부위는 배우둠의 것을 쓰기로 하자.



**피터 아츠, 알리스타이르 오버레임,
크로킵의 다리**

오른쪽 다리는 MMA 파이터는 아니지만, '미스터 K-1' 피터 아츠의 것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의 오른쪽 하이킥은 한마디로 격투가 아닌 예술이었다. 왼쪽 다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크로킵이다. 무릎은 니킥이 훌륭한 오버레임의 것으로 하자.

자, 이제 완성이다. 어땠는가?
이 정도 파이터 과몰이라면 스트라커 자식도 짝소리 못할 거다.



2012년 2월 4일, UFC 143에서 로이 넬슨과 맞붙어 울오른 타격 실력을 보여준 배우둠은 판정으로 승리했다.

MISS M

SPANK
MANK

촬영
실은 그녀의
영명이



MAXIM

2013 MISS MAXIM CONTEST

결승 진출자

김소희

2013 MISS MAXIM
화보 촬영 중 가장
화끈하고 섹시한 포즈를
멋지게 해낸 김소희.
어떻게 포즈를 그렇게 잘 취하나고
물자, 그저 몸이 가는대로
할 뿐이란다.
섹시가 몸에 뱃네 뱃어.
BY 김희성 PHOTOGRAPH YUD

브라, 팬티 게스언더웨어

MISS MAXIM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2013
MISS MAXIM
CONTEST

결승 진출자

이아영

화보 촬영 때문에 스펡킹을
처음 알게 됐다며 순진무구한
반달눈으로 웃던 이아영, 그녀의 손목을
묵자 눈을 게슴츠레 뜨더니 말한다.
“이거... 아릇한데요?”

오늘 스팅킹을 주제로 촬영을
해봤다. 어땠나?
맥심 촬영은 다 재밌어요 개사
스팟킹...은 오늘 처음 왔다는

애인이 스팅킹을 시도한다면 기꺼이
동참하겠나?
음... 애인이 좋다면야!

S와 M 중 어느 쪽이 더 좋아?
굳이!! 굳이 고르라면 S지만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붙었던 미스 맥심 중 가장
강력했던 라이벌은?
아직래도 결승까지 온 소환!

우승했다고 생각하고 한 줄 우승
소감을 미리 들려줄 수 있나?
부족한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더욱 열심히 노력할게요 맥심 호이팅!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낼
생각인가?
맥심파티 가야죠? ㄱ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브라, 팬티 게스언더웨어

어서 날
때려줘 하악





오늘 스캠킹을 주제로 촬영을 해봤다.
어땠나?
이미 받아주면 좋겠어.. 쏘..?

비밀로 해왔던 성적 판타지가 있다면?
S.m .. 하.. 그 쪽이겠지..? 24
특별한곳! 머당지 상상은 말기전까지..!

기억에 남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파도장에서 여자들끼리
간식먹고 파티하자 파티오오!

이번 크리스마스에 키스할 남자가 있나?
귀찮단..? ㅎㅎㅎ

산타를 포신다면 어떤 작업 멘트를 날릴
거야?
전 움직이는 착한 여자입니다 ~ 으 ~



“

크리스마스 선물로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

섹시 튜브탑 세트 일렉트릭안제리by부르르
시계 아류투스
필지 베기앤벨

“
키스보다는
뽀뽀가 더 좋아요
”

원피스 허슬리by부르르
브라, 팬티 르레
남자 시계 아뮤투스
여자 시계 베카엔벨
필피 베카엔벨

HAIR&MAKEUP 정혜민 VIDEO 김상수 ASSISTANT 박영옥
COOPERATION 게스앤더웨어(02-2164-5366) 르레(02-547-5707) 베카엔벨(02-3397-7105) 부르르(1661-7725) 아뮤투스(02-778-1590)



이아영

김소희

팬티 게스언더웨어
수갑 렉스페티시by부르르

2013 MISS MAXIM CONTEST The FINAL Tournament Battle Start!

MISS MAXIM 결승전이 시작됐다.
당신의 한 표가 MAXIM의 간판 미녀를 좌우한다!

Your Choice! Your Miss MAXIM!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11월 22일
부터 이아영과 김소희 중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 방법

1. 모바일 기기 또는 PC에서 www.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2. 여기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투표한다!

2014 MISS MAXIM 참가 문의 missmaxim@maximkorea.net



쉽잖아?
투표하러 고고

Military

각종 무기들의 총 집합!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3

 올 하반기에는 각 분야 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줄지어 열리고 있다. 항공우주 방위 분야도 이에 질세라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모여 있는 방위산업계의 지스타를 열었다.
BY 군사 전문가 김대영(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전 세계 최첨단 항공기와 인공위성, 그리고 방위산업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가 지난 10월 29일부터 6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2년 마다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그동안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해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트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주국제공항과 일산 킨텍스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최신 무기들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

전시회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현재와 미래의 최신 무기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ADEX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8개국 361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기술로 자체 제작한 각종 무기들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산무기로는 FA-50 경공격기, 수리온 기동헬기, 틸트로터 무인기, K-2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 등이 등장했고, 차기 전투기 사업의 후보기종인 F-35, 유로파이터, 어드밴스드 F-15 전투기의 목업(Mock-up: 제품 디자인 평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실물 크기의 정적모형)과 모형이



차기 전투기 사업의 후보기종 전투기의 시뮬레이터도 전시되어 관람객들이 가상 전투기의 성능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기아가 개발중인 차기소형전술차량은 모하비 엔진을 사용하며 미군의 험비와 비슷한 외관때문에 한국형 험비로 불리우기도 한다.



미니건은 6개의 총신이 회전하면서 분당 최대 4,000여 발의 7.62mm 총탄을 쏘아낸다.



풍산 부스에서는 사격 시뮬레이터 체험과 나레이터 모델과의 포토타임 행사가 있었다.

사브사의 부스에는 NLAW 대전차 미사일 시뮬레이터가 있어 탱크를 공격하는 미션을 수행해 볼 수 있었다.



아니 이거 왜 국수가 나와?

등장에 많은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밖에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인 무인기도 선보였다. 비록 목업(Mockup)이었지만 실물 크기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 우리 군이 도입을 추진중인 글로벌 호크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헤론과 헤르메스도 전시되었다.

터미네이터의 총 미니건 등장!

이번 ADEX에서는 총기 마니아들이 설렘 만한 아이템이 등장했다. 바로 "미니건(Minigun)"이다. 영화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서 터미네이터 T-800(아놀드슈왈츠체네거 분)이 들고 나와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미니건은, 작은 총이라는 영어 이름과

달리 총탄을 빗발치듯이 쏘아대는 커다란 기관총이다. 6개의 총신이 회전하면서 분당 최대 4,000여 발의 7.62mm 총탄을 쏘아내는 미니건은, 현재 미국의 달린 에어로사가 생산하고 있다. 미니건을 처음 생산한 것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였지만 일찍이 손을 털었고, 달린 에어로사는 미니건을 신뢰성 있게 개조해 M134D 미니건을 개발한다. 국내에 처음으로 실물 미니건을 들고 나타난 달린 에어로사는, 우리 육군이 추진 중인 경무장헬기 즉 LAH(Light Armed Helicopter) 사업에 M134D 미니건을 제안한 상태이다. 또한 색시한 미녀들이 미니건과 함께 매달 등장하는 2013년 달력을 나눠주며 많은 남성 관람객들의 마음을 뒤흔(?)하게 했다.

Military



천무 모형이 전시된 한화 부스걸이 등장하자 많은 남성 관람객들이 발길을 멈추었다.



2014년부터 육군에 전력화 될 예정인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



최첨단 신기전 천무

다량의 로켓탄을 발사해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키는 다연장 로켓포. 이러한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시대 때 이미 다연장 로켓포의 포와 로켓탄이라 할 수 있는 '화차'와 '신기전'을 개발했다.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다연장 로켓포는 지난 1978년 130mm 다연장 로켓포 '구룡'으로 재탄생했고 이제는 차기 다연장 로켓포로 불리는 '천무'가 뒤를 잇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천무는 북한군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고도의 항법장비와 사격통제장치를 장착하였다. 또한 발사 절차가 자동화되었으며, 사거리와 파괴력 향상을 위해 구경이 230mm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천무에서 사용될 239mm 유도 로켓은 사거리가 80여km에 달하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관성항법장치가 결합된 유도장치를 사용해 명중오차가 15m 이내로 알려져 있다. 천무는



국내에서 인도가 개발한 미사일의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번 ADEX가 처음이었다.

이번 ADEX에서 실물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축소 모형과 239mm 유도로켓이 대신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나레이터 모델이 등장해 천무 모형 앞에서 이벤트를 벌여 많은 남성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다.

카레의 나라에서 온 미사일들

이번 ADEX에는 수많은 해외 국가들이 참가했지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나라는 바로 인도였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하는 인도 국방 연구 개발기구, 즉 DRDO(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는, 인도가 개발한

아카시(AKASH), 프라가티(PRAGATI) 미사일의 실물을 선보였다. 한국에서 인도가 개발한 미사일의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카시는 반경 30km 내의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다. 사거리 170km의 프라가티는 단거리 전술 지대지미사일로, 마하 4의 속도로 단 시간 내에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인도가 이번에 자국의 미사일을 한국에 선보인 이유는 자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과시하고 우리나라와의 기술협력을 모색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ADEX에서 만난 DRDO의 관계자는 "인도는 무기 개발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날개 길이만 40m에 달하는 글로벌 호크는 야외 전시장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크기를 자랑했다.

첩보 위성급 정찰기 글로벌 호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정확히 탐지하기 위해, 우리 군은 미국에 수차례에 걸쳐 미 공군의 고(高)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판매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미 의회의 판매 승인이 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미 의회가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를 승인함에 따라, 우리 군은 2017년에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해 운용할 예정이다. 우리가 글로벌 호크 때문에 미국에 애걸복걸했던 이유는 그 성능 때문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장 40시간 동안 작전 비행이 가능하며 첩보 위성을 능가하는 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반 여객기가 비행하는 고도의 2배 높이인 지상 20킬로미터 상공에서 능구공보다 조금 큰, 지름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최장 3,000km에 달한다. 앞으로 도입될 글로벌 호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공격하는 일명 "킬 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쫓는 로봇이 있다고?

무기는 아니지만 이번 아넥스에는 흥미로운 로봇이 전시되기도 했다.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공항 내 조류 퇴치 로봇이다. 조류 퇴치 로봇은 항공기 이착륙 시 조류 충돌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공항에서는 새 떼와 항공기 엔진이 충돌하면서 간혹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 조종되는 이 로봇은 공항에서 새 떼를 발견하면 근처로 이동해 음파를 쏘 새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조류 퇴치 로봇은 항공기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기술은 군사용 뿐 아니라 과수농가용 조류 퇴치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생소하고 치명적인 고대 무기들

피르고 쓰는 게 전투가 아니었다.



혈적자(血滴子)

고대 중국에서 사용되었다는 암살용 무기. 아래쪽에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모자를 날려 적의 머리에 쏘운 후 잡아당기면 목만 생동 잘라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영어로는 날으는 길리오티네(Flying Guillotine)이라고 불린다. 솔직히 이게 말이 돼?



우르미

고대 인도에서 사용하던 연검(軟劍). 일대다수 전투에 특화된 무기로 멋대로 휘는 성질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다. 체적처럼 단타성이 아니라 연타성 무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다. 홀로 9명을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차크람(Chakram)

시크족의 전통 투척 무기. 원형의 칼을 날려서 치명상을 입히는 용도로 고안된 무기이다. 수리검, 표창 등이 상대의 피부에 꽂아 상처를 입히는 투척 무기인 반면, 이것은 바깥쪽에 서 있는 날을 이용해 적을 베는 치명적인 투척 무기다.

Style

Chill Killers

아무리 추워도 '멋'을 포기할 순 없지.

WORK

1. 어니스트 알렉산더 포켓 블레이저
한 겨울엔 포근한 느낌의 블레이저로 신사의 품격을 지키자. \$595, at Ernest Alexander SoHo store

2. 타미힐피거 플린 블레이저
멋과 보온성을 동시에 잡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 \$449, tommy.com

3. 코치 디어스킨 장갑
시름 가득으로 만든 부드러운 장갑에 그녀의 손이 자꾸 간다. \$198, coach.com

4. 파슬 이스테이트 헤링본 가방
따뜻한 느낌을 주는 헤링본 소재 가방에 가죽 손잡이로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228, fossil.com

5. 벤 셔먼 스코트 부츠
발목이 길어 깔창을 여러 겹 깔기에 안성맞춤인 부츠로 가을 살리자. \$255, nordstrom.com

6. 마비 슬림 스트레이트 코듀로이 팬츠
추울 땐 역시 코듀로이가 정답. \$98, mavi.com

7. 어니스트 알렉산더 더럼 트라우저
입는 순간 당신도 마더 빠더 젠틀맨! \$225, at Ernest Alexander SoHo store

8. 타미힐피거 시드니 스웨터
멀미 유발! 지그재그 패턴이 개성 넘친다. \$199, tommy.com





PLAY

1. REI 컬러 블락 에비에이터 모자
귀여움과 예자를 둘 다 가진 털 군밤 모자 하나면 올 겨울 간지는 모두 너의 것.
\$35, rei.com

2. 에디 바우어 노스윈드 다운 베스트
매일 다르게 코다하는 재미가 있는 따뜻한 조끼 한 벌이면 올 겨울 뽕 뽕이다.
\$99, eddiebauer.com

3. 오리지널 펭귄 카무 윈드브레이커
블루&그레이 카무플라주 패턴의 화려한 바람막이(국방색이었음 잡지에 못 나왔어).
\$125, originalpenguin.com

4.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캔버스 백팩
매는 순간 성실한 청년으로 변신하는 마법의 가방. \$40, ae.com

5. 팀버랜드 어스 키퍼스 프리미엄 부츠
나무든 뭐든 잘 심을 것 같은 남자의 부츠.
\$190, timberland.com

6. 데님 앤 서플라이 할프로렌 플란넬 라인드 팬츠
베컴 같은 새끼만 이런 거 입으란 법 없다.
\$125, denimandsupply.com

7. 버튼 리트릿 레더 벨트
스노보드 용품 전문 브랜드 버튼이 내놓은 짙짙한 가죽 벨트.
\$60, burton.com

8. 페리엘리스 도니골 니트 스웨터
훈내 진동하는 남자의 옷장에 이런 니트가 꼭 있다. 여자들이 환장해!
\$98, perryellis.com

Style / Campus Battle #3

이화여대 vs. 숙명여대

대한민국 여성 사학의 양대산맥인 이대와 숙대.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 미모로 결판내자 BY 김세형



힘준 아이템:
오버사이즈 외투



이화여자대학교

▲ 황보라/22/식품영양학과
이상형: 날 지켜줄 수 있는 듬직하고 멍치 큰 남자



힘준 아이템:
민트색 카디건

▲ 최지은/20/체육과학부
이상형: 강동원 같이 쌍꺼풀 없는 남자

↓ 이수경/25/심리학과
이상형: 자상하고 뺏살 없는 남자



힘준 아이템:
요번에 새로
장만한 코트



힘준 아이템:
가을을 맞아
개시한 부츠

▲ 김윤정/20/인문과학부
이상형: 이준기 같이 얼굴선이 예쁜 남자



힘준 아이템:
플로피 햇으로
포인트를 줬다.

▲ 김성희/21/국제학부
이상형: 예수님 st. 장발이 잘 어울리는 남자



힘준 아이템:
발랄한
오렌지색 니트

▲ 황인선/22/피아노과
이상형: 옷발이 잘 받는 슬림한 스타일



힘준 아이템:
가족으로 멋댄 재킷



숙명여자대학교



힘준 아이템:
플라워 프린팅
스커트

원혜정/21/LCB외식경영학과
이상형: <응답하라 1994>에 나오는 '쓰레기'

김지영/24/회화과
이상형: 자상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남자



힘준 아이템
1년에 한 번
입는 체크 재킷

신나리/27/약대
이상형: 얼굴값 하는 잘생긴 남자보다는
맛있하고 평범한 스타일이 더 좋다.



힘준 아이템:
호피 무늬 팬츠

고지윤/22/경영학부
이상형: 키 크고 개성있는 남자



힘준 아이템:
바투카에서
구입한 노트북
케이스

김진희/23/경영학과
이상형: 진중한 연상남



힘준 아이템:
친구에게 2만 원에
산 투피스

송고은/20/한국어문학부
이상형: 노홍철 같이 착하고 유머러스한 사람

Watch out!



자스페로의 새로운 탄생 TOFFATORE(투파토레) Acque Profonde (아쿠아 프로폰데)

자스페로의 뛰어난 기술력과 멋진 디자인이 결합된 워치 투파토레의 아쿠아 프로폰데가 새롭게 출시됐다. 베젤과 밴드에 매트 타입의 타키미터가 새겨져 있어 목직한 멋과 세련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200m 방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달린 플라이커버는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돋보이게 한다. 우월해진 기능에 멋진 디자인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시계 투파토레 아쿠아 프로폰데. 불란서 요리에 반주로 코냑을 홀짝이면서 상송 듣고 싶게 하는 이름이네..
667,000원,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진짜 사나이?! 조르지오 페돈 1919의 GFAP003

활동적이며 남성미가 흘러넘치는 워치 조르지오 페돈 1919의 스피드 타이머 GFAP003을 소개한다. 강렬한 오렌지 컬러의 알루미늄 베젤이 눈에 띄는 스피드 타이머 GFAP003은 스톱워치와 방수 기능, 뉴라이트 루미노스 등의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또 부식이나 변형에 강한 PU 밴드를 사용해 내구성과 활동성을 높였다. 호주형 샘 해밍턴이 <진짜 사나이>에 착용하고 나와 큰 인기를 얻는 모델로 평이한 가족과 스테인리스 워치가 식상한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
465,000원, (주)거노코퍼레이션 (02-3397-7100, www.eurotime.kr)



겨울을 위한 시계, 헬다이버 SB2C-2001BK

추워지는 날씨에 손이 시리다면 따뜻한 스웨이드 스트랩 재질의 시계는 어떨까? 헬다이버 SB2C-2001BK 모델은 헬다이버 2002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겨울에 가장 이상적인 아이템이다. 여기에 헬다이버 고유의 청명한 블루코팅 글라스로 멋있지 않은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24시, 날짜, 요일까지 표시 가능한 멀티 무브먼트 기능을 적용해 실용성이 좋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이민호가 차고 나와 많은 남성들의 구매 욕구를 불태웠다. 활~ 활활~!
189,000원, 헬다이버 (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뉴욕 감성 워치 Kenneth Cole, 신화는 이어진다!

뉴욕의 감성과 트렌드를 담은 워치 브랜드 Kenneth Cole(케네스 콜)이 기존 모델보다 심플하지만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온다. 이번 라인업은 크로노그래프와 독특한 문자판으로 시선을 끄는 검정 색상의 남성 워치부터 케이스 안의 큐빅이 돋보이는 여성 워치까지 다양한 제품들로 남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고급스러운 가죽 밴드 시계는 겨울 패션에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이니 연말에 선물하기도 좋겠다.
가격 미정, 성원(02-3445-4603)

젠들한 워치 아뷰투스 AR703SWB

깔끔한 디자인의 아뷰투스 AR703SWB는 가을과 겨울철 계절 장정에 어울리는 남성 시계다. 고급스러운 인덱스와 검정 가죽 밴드로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을 갖췄다. 또 파란색의 시계침을 넣어 몽환적인 느낌을 살렸다. 24시 표시는 물론 날짜, 요일과 문페이스 기능까지 있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월한 워치다. 시계가 매력 있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느라 24시간이 모자라~! 우! 우!
435,000원, 글로벌타임 (02-778-1590, www.globaltime.co.kr)



이보다 더 클래식 할 순 없다, ALBA Modern Classic AT3432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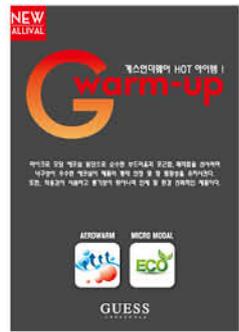
고급 패션 워치 브랜드 ALBA의 크로노그래프 워치 AT3432X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심플한 디자인의 케이스와 로마자 인덱스 그리고 유선형의 시계침은 깔끔함의 정점을 보여준다. 검정색의 케이스와 로즈 골드 색상의 베젤은 고급스러운 기풍을 풍기며 클래식한 멋이 무언지 말해준다. 또 실용성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스톱워치, 24시, 날짜 표시 등의 다양한 기능도 추가했다. 겨울에는 역시 클래식할수록 멋있는 법이야.
260,000원, 삼정시계(02-511-3182, www.albawatch.co.kr)



Style news

따뜻한 겨울나기, G Warm-Up

게스 언더웨어의 G Warm-Up(지 워업)만 입는다면 엉뚱설한도 무섭지 않다. 인체에 무해한 환경 친화적인 모달 섬유로 만들어져 얇고 신축성이 좋으며 몸에 착 달라붙어 옷맵시를 망치지 않고 스타일을 살릴 수 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 물로 간편하게 세탁이 가능하며 착용감도 좋다. 땀 흡수성과 통기성도 우수해 옷을 여러 벌 껴입는 겨울에도 답답하지 않고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 남녀 사이즈 모두 블랙 색상으로 출시되어 겨울철 커플 내의로도 좋다. 첨단 내복... 엄마 보고 싶어요
90,000원대, 게스크코리아(02-3449-4900, www.guesskorea.com)



캘빈클라인진, 시크한 슷다운 패딩 출시

캘빈클라인진(Calvin Klein Jeans)이 모던하고 세련된 슷다운의 슷다운 패딩을 출시한다. 에어포스룩과 밀리터리룩을 도시적으로 해석해 디자인했으며, 슬림한 라인에 깔끔한 지퍼 포켓이 달려 디테일을 살렸다. 방수 기능을 갖춰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는 날에도 따뜻함을 유지한다. 네이비, 카키,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해 시크한 도시남자의 매력을 어필하기 좋다. 슷다운에 기능까지 완벽한 슷다운 패딩 입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자, 겉은 차가운 매력! 그러나 속은 데일 정도로 뜨끈뜨끈 398,000원, 캘빈클라인(www.calvinklein.com)



반스(Vans), 스카치가드 팩(Scotchgard Pack) 출시!

이제 추운 겨울에도 반스로 멋을 낼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클래식 라인에 추가된 스카치가드 팩은 3M에서 개발한 섬유 보호제 스카치가드를 사용해 신발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며 내구성을 높였다. 또 방수 기능까지 있어 눈에 발이 빠져도 젖지 않는다. 특히 스케이트하이(Sk8-Hi)와 106 벌커나이즈드(106 Vulcanized) 모델에는 신발 안쪽에 양털이 있어 따뜻하게 신고 다닐 수 있다. 각 슷다운마다 두 가지 색상으로 발매될 예정. 이제 반스가 일래스카 접수한다!
79,000원~109,000원, 반스크코리아(www.vanskorea.com)



훈남 아이템 제이에프레이 플테안경 JF 2512

액세서리를 질만 착용해도 훈남으로 거듭날 수 있다. 쓰기만 하면 훈내를 풍기는 제이에프레이(J.F.REY)의 플테안경 JF 2512를 소개한다. 유럽 감성의 둥근 검정색 프레임은 곰 인형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겨울옷과 니트에 잘 조화된다. 니트와 플테의 조합은 지적인 멋을 어필하며 여자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최강의 조합이다. 제이에프레이의 플테안경 하나면 가죽이나 추운 겨울, 옆구리 시린 여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남자가 될 것이다.
※주의 사항: 벗지마, 절대로!
40만 원대, KNETWORKS(070-7108-9325, knetworks.co)



따뜻한 겨울을 위한 브랜드 P-Coat

언제까지 겨울이라고 방안에만 웅크리고 있을 것인가! 럭셔리 의류 브랜드 브랜드에서 신기술로 무장한 피코트를 선보인다. 밀도가 높고 두꺼운 헤비멜튼 울 원단 소재로 만들어져 보온력이 뛰어나며 3M이 개발한 신소재 신슬레이트 패딩 내피를 사용하여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마저 무색하게 한다. 보온성뿐 아니라 클래식한 라인에 흑은장 도금의 단추로 포인트를 넣은 디자인은 진정한 슷다운이상이 무언지 보여준다. 브랜드 피코트로 그녀를 감싸 안아보자. 훈훈함을 넘어 관계까지 핫해질 것이니!
가격 미정, 브랜드(053-428-5007, www.brande.co.kr)

X-mas Gift 69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크리스마스
MAXIM 편집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선물
69가지를 소개한다.

BY 조웅재 · PHOTOGRAPH YuD · MODEL 2013 MISS MAXIM TOP 2 이아영



For Partyholics

집에서까지 음주가무를 즐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1. 마스터마인드 카페 세트

해골이 그려져 있는 일본의 스트리트 브랜드
mastermind의 커피잔 세트. 디자인이 펑키하고
귀여워 집에 놀러 온 여자들에게 내놓기 좋다.
실수로나마 "난 이 마스터베이션이라는 브랜드,
참 좋아하지."라는 병신 드립은 치지 말자.
구매 대행, 가격 89,000원

2. Recolte Pot Duo Esprit 멀티쿠커

크리스마스 파티라시고 일단 사람들은 모았는데,
뭘 쳐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럴 때 민능
요리사인 이 녀석을 준비하자. 찜, 튀김, 탕, 굽기
등 혼자 다 해내는 모습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태평소 부는 1인 대취타 밴드처럼 든든하다.
구매 대행, 가격 75,000원





3. Logitech UE BOOM

로지텍의 블루투스형 휴대용 스피커. 한 손에 가득 차는 훈훈한 굿기만큼 짙 찬 출력을 맛볼 수 있다.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구조 덕분에 여자를 불러 집에서 음주가무로 분위기를 띄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www.logitech.co.kr 가격 259,000원

4. Rocksmith 2014 기타 번들 Edition

초딩이 캐스터네츠 좀 친다고 메탈리카 드러머를 시킬 순 없는 법. 그러니까 집에 설치해 둔 <기타 히어로>용 기타는 사뿐히 마룻바닥에 꽂아 버리자. 진짜 기타로 플레이하는 <락스미스> 풀 세트만 있다면 방구석을 뜨거운 콘서트장의 열기로 채울 수 있을 거다.

rocksmith.ubi.com 가격 19만 원대



5. BOSCH 충전식 앰프 스피커

세계적인 공구 브랜드 BOSCH의 충전식 앰프 스피커. 굴리며 놀아도 관행을 법한 특실한 디자인과 보쉬 특유의 컬러가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원래는 작업장에서 쓰라고 만든 녀석이라 출력 하나는 끝내준다.

보쉬(080-955-0909) 가격 30만 원대

6. Grilled Cheesus 토스트기

일년에 한 번 있는 크리스마스.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다면 <그릴드 치즈>를 이용하자. 토스트에 선명하게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당신의 친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오, 저자식! 예수님 얼굴에 노른자가 터졌어!"

www.omrgoods.com 가격 \$39.95



분위기를 한 층 더 띄워 줄 주류들



7. 베린저 스파클링 화이트 진판델

와인으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급의 가성비를 맛보고 싶은 자들에게 추천한다. 파티 음료로 여럿이서 마시기도 좋고 달콤한 디저트에도 잘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 가격 2만 원대



8. 호세쿠엘보 에스페살

전 세계 판매 1위의 테킬라다. 요즘 클럽에서는 여기에 스프라이트를 섞은 후 테이블에 박아 소용돌이를 일으켜 마시는 '슬래머' 방식이 인기가. 가격 3만 원대



9. 에거마이스터

올 여름 클럽과 페스티벌 등에서 불타나게 팔린 리큐르. 특유의 달달한 맛 덕분에 작업용 솔로 정평이 나 있다. 참고로 '에거마이스터'는 '진문 사냥꾼'이라는 뜻이라고. 그럴싸한데? www.facebook.com/jagermeister.Korea 가격 700ml 기준 3만 원대



10. 레미 마틴 vsop

헤네시, 까뮤와 함께 세계 3대 코냑이라 불리는 레미 마틴. 특유의 상큼한 복숭아 향과 달달한 바닐라 맛이 현아를 안은 장현승 손처럼 입 안을 사정없이 휘감는다.

에드링턴 코리아 (02-2140-4600) 가격 4만 원대



11.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

아무리 파티장에 그럴싸한 술이 가득할지라도 맥주가 없다면 밥 없이 김치를 퍼먹는 느낌일 거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와 함께 분위기를 한층 띄워 보자.

www.miller.co.kr 가격 2,900원

어릴 때 버릇 못 버린 철부지 키덜트족

12. 진격의 '초대형 거인' 가면

당신을 단번에 초대형 거인으로 변신시켜 줄 고무 소재로 된 신축성 좋은 가면. 가면을 쓰고 흥에 겨워 방구석을 때려 부수고 다니는 건 상관없다. 다만 분위기에 취해 벌거벗고 시청 앞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격했다간 엘런 대신 경찰에게 뒷목을 가격당할지도 모른다.

www.stupid.co.kr 가격 48,000원



아 깜짝이야! 징그럽게 생겨갔고!



뭐? 이 겹데기도 없는 새끼가?!



14. 호머 심슨 슬리퍼

<심슨 가족>의 막무가내 주인공 호머 심슨의 얼굴을 따 만든 슬리퍼. 남들 앞에서 튀고 싶다면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슬리퍼가 몹시 땡길 거다. 물론 그의 입에서는 달콤한 도넛 냄새도, duff 맥주 냄새도 아닌 당신의 발 냄새가 풍기고 있겠지만.

구매 대행, 가격 \$22.99



13. Hasbro 다스베이더 보이스 체인저

이 가면만 있다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가 니 아빠여(I'm your father)"라고 말하던 다스베이더의 명대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스타워즈의 광팬이라면 절대로 놓쳐선 안 될 콜렉션 중 하나. 구매 대행, 가격 4만 원대

15. 어벤져스 어셈블 헬크 핸드

다 큰 어른이 혼자 갖고 놀기에는 뽀뽀한 콜렉터용 아이템. 앙증맞은 사이즈와 기본 좋게 폭신한 소재 덕에 의외로 활용도가 높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조르는 알미온 조카의 면상을 펀치볼처럼 쥐어 때도 형수님은 그저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다.

www.hasbro.com 가격 29,800원



16. 부적인형 퍼디

쇼핑몰 용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 인형을 매달아놓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지거나 대학에 합격하는 등, 바라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 용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며 인형을 괴롭히면 그가 시름시름 앓거나 사망하는 등 간접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www.hoochootong.com 가격 17,000원

17. 펀칭맨 PRO2500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순 없는 법. 가끔씩 열이 뻗쳐 뭐라도 쥐어 때고 싶을 때 집에 이런 펀칭 백 하나 있으면 좋다. 상반신이 전부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진짜 사람을 때리는 기분을 맞출 수 있다. 응? 그 기분을 어떻게 아냐고?

www.bodyx.co.kr 가격 690,000원



For Early Adopters

기기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얼리 어답터들

18. 트랜스포머 USB 8GB

〈트랜스포머 2〉에서 범블비에게 갑죽대다 척추가 뽑혀 파괴된 '다센티콘'의 동물형 트랜스포머 레비지 USB. 심심할 때 만지작거리며 변신시키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격 3만 원대



19. RAZER Hammerhead Pro

매번 목직함 게이밍 헤드폰만 제작하는 레이저가 어떤 일로 귀에 쏙 들어가는 초미니 커널형 이어폰을 내놓았다. 완벽한 차음성과 두터운 저음 덕에 게임을 즐기거나 영화를 감상할 때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razer.waycos.co.kr
가격 10만 원대



20. WD My Passport 2TB 외장하드

스토리지 시장의 1인자 브랜드 '웨스턴디지털(WD)'의 초슬림형 외장 하드. 산뜻한 컬러와 USB 3.0을 지원하는 초고속 전송 스피드로 사용자의 답답한 마음을 뺏겨 준다. 넉넉한 공간 때문에 AV를 매일 하루에 세 편씩 받아도 다음 크리스마스까지 채우기 힘들 거다.

www.wdc.com/kr 가격 25만 원대

21



21. SONY 바이오 탭 11

노트북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은 게 아닌가 싶었던지 페이크였다. 윈도우 8 기반의 태블릿 PC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키보드를 장착해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다. 풀 HD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했으니 블루레이 버전 〈나홀로 집에〉라도 감상하도록 하자.

www.sony.co.kr 가격 1,299,000원

22. Play Station 4

가정용 게임기의 제왕, '플레이 스테이션'의 신작이 곧 출시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세컨드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메신저 및 게임 생중계 기능을 추가해 진정한 '멀티플레이형' 게임기로 거듭났다.

www.playstation.co.kr 가격 498,000원



둘이 하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게임들



23. GTA5

말이 필요 없는 2013년 최고의 게임. 크리스마스에 광화문은 개불, 나는 흑형들과 함께 로스 산토스를 걸것어!
가격 58,000원



24. 어쌔신 크리드4 버커니어 에디션

암살 액션물 시리즈의 명작, 〈어쌔신 크리드〉의 네 번째 작품이다. 피규어, 게임 OST, DLC등이 추가되어 팬들의 수집욕을 자극한다.
가격 99,000원



25. 풋볼 매니저 2014

한번 시작하면 지 마누라 출산한 줄도 모른다는 그 게임.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보다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중요한 당신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다.
가격 44,000원



26. 배틀필드 4 프리미엄 멤버십

크리스마스에 전장의 히어로가 되어 보자. 프리미엄 유저에게는 5개의 확장팩과 보너스 배틀팩, 서버 이용 우선권, 2주 조기 접속권 등이 제공된다.
가격 55,000원(온라인 구매)

For Travelers

집구석에 가만히 못 있는 남자들



27. 람보르기니 자전거 impec Edition

자전거가 뭐 이리 비싸냐며 혀를 내두르고 있나? 사이클링 챔피언들이 사용하는 자전거의 표준가가 2천만 원대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명품 자전거 라인 BMC사와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이 자전거는 전 세계 30대만 한정 판매 중이며 그 중 국내에는 단 2대 뿐이다.

www.biclo.co.kr 가격 3,600만 원



29. 스프리스 폴라 패딩부츠

개가 싸질러 놓은 오줌에도 살얼음이 어는 겨울, 시린 발만큼 체온을 유지하기 힘든 부위도 없다. 오리털과 캐시미어로 무장한 스프리스의 폴라 패딩부츠는 노스 700을 입고 패기가 넘치던 그 시절보다 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줄 거다.

www.spiris.com 가격 89,000원



28. 미니 페이스맨(Paceman) SD ALL 4

겨울이라 외출이 망설여진다면 미끄러운 길에서도 끄떡없는 MINI의 4륜구동 SD ALL4를 추천한다. 고속력 모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초 간지 덕에 홀로 여행을 마음껏 누리고 다녀도 심심하지 않을 거다.

미니 커뮤니케이션 센터(080-6464-003)

가격 5,460만 원

*본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 뉴에라 Pom Pom Knit Beanie

두피가 통째로 들릴 만큼 유난히 추운 겨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뉴에라의 털모자 컬렉션 Pom Pom Knit Beanie를 지참하자. 두 가지 패턴과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어 취향대로 구매할 수 있다.

www.neweracapkorea.com

가격 43,000원



31. BRP 캔암 스파이더 RS-S

진정한 라이더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두 개의 휠로 공공 인 길을 코너링 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위험하다. 트라이크(삼륜 모터사이클) 전문 제조업체인 캐나다의 BRP는 원래 실상차를 만들던 업체였으니 안전엔 문제 없겠지?

www.brp.com 가격 1,800만 원대



31



32. 메비우스

애연가라면 장거리 여행에서 담배를 빼 놓을 수는 없는 법. 겨울은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부드럽고 진한 담배가 맵기는 계절이다.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한 메비우스 시리즈와 함께 여행지에서 주윤발 간지를 뽐어보는 건 어떨까?
가격 2,700원



34

34. 올림푸스 카메라 PEN E-P5

겉모습이 울드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Pen E-P5는 미려리스 최고의 1/8,000초 셔터피드와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한 최첨단 스펙의 카메라다.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고 SNS를 간지나는 여행 사진으로 도배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www.olympus.co.kr
가격 1,200,000원(렌즈킷 별도)



33. icover 아이폰5s 아이딘 케이스

사뿐히 떨어뜨리면 동치미 살얼음마냥 짹 짹 갈라지는 공짜 투명 케이스는 과감히 벗어버려라. 팝 아티스트 키스 해링의 작품이 그려진 icover의 아이폰 5s 케이스는 고급스러운 뒤태로 시선을 끈다. 크리스마스엔 아이딘 케이스를 장착하고 잠시 대림미술관에 들러 큐레이터라도 꼬서 보는 건 어떨까.
www.icover.kr 가격 31,800원



35. 쌍방울 트라이 히트업

여자 만나러 나가서 쪽팔리게 추위에 벌벌 떨 순 없는 법. '트라이 히트업'은 호흡하는 섬유라 불리는 '원후레시 혼방 소재'를 사용해 항균 및 탈취 기능이 탁월하며 원단이 몸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흡수해 체온 저하를 막는다. 것보다 일단 내복 치고 간지 좀 나잖아?
02-3485-6130 가격 7만 원대

외출을 부르는 전자 기어들



36. SONY DSC-QX10
스마트폰의 NFC단자와 접촉시키면 구형 스마트폰이 1,800만 화소 고성능 카메라로!
www.sony.co.kr 289,000원



37. 아이패드 미니 2
쥐뿍만한 크기에 비해 성능은 괴물 급. 태블릿 PC계의 메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www.apple.co.kr 발매 예정



38. 하루 충전식 손난로
넉넉한 사용 시간, 휴대폰 보조배터리 기능, 향 첨가 기능 등 못하는 게 없는 뜨거운 놀.
가격 83,000원



39. 아스텔 앤 칸 AK100
장거리 이동할 때만큼은 귀를 호강시켜 주자. 고용량 포맷을 재생하는 고품질 출력 기기다.
www.iriver.co.kr 698,000원



40. Bowers&Wilkins P7
탁월한 음질과 부드러운 이어패드 가족으로 시린 귀를 따뜻하게 만들자.
www.royco.co.kr 50만 원대

For Laziests

일어나기도 힘든 귀차니스트들



41. 오스트리치 베개

기면증 환자처럼 잠이 많아 머리만 대면 자는 당신을 위해 올 크리스마스에는 사방이 폭신한 '오스트리치 베개'를 선물하자. 무서우면 병신같이 머리만 땅에 숨긴다는 타조의 습성에서 차용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mrkoon.com 가격 97,500원



42. 버겐 일렉트릭 리클라이닝 소파

보기만 해도 몸뚱아리를 파묻고 싶어지는 안락한 패브릭 소재의 1인용 소파. 걸터앉아 게임을 해도 좋고 누워서 영화를 보기에다 안성맞춤이다. 누워서 화석이 되어 헤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재미지옥 같은 가구다.

www.theclinerstore.co.uk

가격 130만 원대

42



43. Lazy Glasses: 누워서 보는 안경

이름 그대로 '게으른' 자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는 봐야겠는데 몸을 일으키기조차 귀찮은 당신은 이 안경을 쓰는 순간 신세계를 맛볼 수 있을 거다. 잠망경의 원리를 이용해 누워서도 발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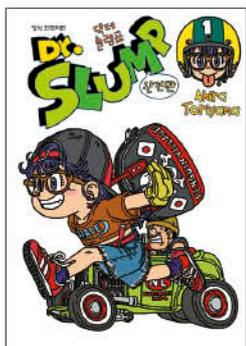
가격 1만 원대



44. Recolte EZ Wine Opener 전동 와인 오프너

분위기 잡겠다며 여자친구가 와인을 사 왔다. 따는 건 남자가 하는 거라며 은근슬쩍 이게 일을 시킨다. 전동으로 손쉽게 와인 마개를 딸 수 있는 Recolte사의 전동 오프너를 하나 구비해 두면 여친이 마개 따는 데 재미를 붙일지도 모른다.

가격 4만 원대



45. 닥터슬럼프 완전판 전권

'토리야마 아키라' 하면 사람들은 <드래곤 볼>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역시 아래레와 박사, 천사들의 빨쉴이 큰 웃음을 선사하는 <닥터 슬럼프>야말로 문헌 역작이 아닐까. 방구석에서 열심히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다.

www.haksanpub.co.kr

가격 49,800원



46. 'RIDERS ON THE STORM' AI JACKET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추운 날씨에 먹을 게 바닥났다. 라면을 사러 가자니 머리는 감기 싫고, 목 늘어난 티셔츠를 갈아입기도 귀찮다면 이 패딩 자켓은 필수다. 머리 끝까지 지퍼를 올리고 고글로 세상을 바라보자. 아마 구멍가게 아주머니는 당신을 보자마자 기절할 지도...

구매 대행, 가격 599,000원





47. 갤럭시 기어

앞으로 출시될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연동될 삼성 최초의 스마트 워치. 어딘가에 내팽겨쳐진 휴대폰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것조차 귀찮다면 메시지, 카메라, 이메일, 음성 명령 등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도 있다.

www.samsung.com 가격 396,000원

48. 질레트 프로글라이드 스타일러

하루만 지나도 수염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나는 남자들에게 면도만큼 귀찮은 일도 없다. 길이에 따라 트리밍 공을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트리머로 별초하듯 수염을 쓱쓱 문질러 주면 알아서 길이를 정리해 준다.

www.gillette.co.kr 가격 31,000원



49. 슈프림x레더맨 마이크라

가위, 칼, 병뚜개 등 집 안 어딘가에 분명 있을 물건들은 꼭 찾으려면 없다. 방구석 뒤지기 몹시 귀찮은 당신을 위해 레더맨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아이템을 내놓았다. 아, 근데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몇 개를 잃어버리는 거야...

구매 대행, 가격 10만 원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백 배 살리는 음반들



50. Piano Guys - A Family Christmas

유튜브 조회수가 2억 6천만에 달하는 슈퍼스타 '피아노 가이즈', 들고 있으면 <나홀로 집에 2>에서 비틀기 밥 주던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다. www.sonymusic.co.kr 가격 17,100원



51. 유니버설 25주년 음반 A Very Special Christmas

제이슨 브라운, 스틱,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 초호화 아티스트들의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럴이 당신의 귀를 흥성하게 한다. www.universalmusic.co.kr 가격 13,200원



52. Vince Guaraldi Trio - A Charlie Brown Christmas

건반 위를 자유자재로 춤추는 그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스케이트 타는 스누피가 떠오르며 시계절 내내 크리스마스 기분을 맛볼 수 있다. 강앤뮤직(031-955-2796) 가격 8,600원



53. We Wish You a Metal Xmas and a Headbanging New Year

록 뮤지션들이 목을 찢어지며 열창하는 캐럴을 감상하자.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문을 두드려도 4옥타브 '실버벨'에 묻힐 테니 괜찮다. 구매 대행, 가격 \$12.88



54. Kelly Clarkson - Wrapped in Red

<아메리칸 아이돌>의 1대 우승자 켈리 클라크슨이 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앨범. '남자들은 다 개새끼야'라고 욕만 하더니 어쩔 일로 사랑 충만한 노래들을 내놓았다. www.sonymusic.co.kr 가격 10,500원

For Casanovas

여자 꼬시는 데 혈안이 된 남자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



55. 웰라이더

승마의 실제 동작을 그대로 재현한 유산소 운동 기구. 가정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집에 놓아 두면 당신의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뿐 아니라 놀러 온 그녀가 여성상위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www.welider.co.kr 가격 980,000원



57. 옵토마 3D 프로젝터+안경 HD90/ZF2100

프로젝터의 명가 옵토마의 홈시어터 프로젝트. 풀 HD급 3D 영상을 돌릴 수 있을뿐더러 2D 이미지나 영상을 3D로 전환하는 픽셀웍스사의 이미지 처리 칩을 탑재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닐까. 자연스럽게 집으로 끌고 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02-6250-9849

가격 HD90 720만 원/ZF2100 17만 원

56

56. 캡슐 담배 Ploom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담배연기를 달심처럼 훅훅 뿜어대는 건 미친 짓이다. 캡슐 담배 플룸(PLOOM)은 캡슐 속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썬 증기를 피우는 방식의 신개념 전자 담배다. 찻잎 같은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마음껏 담배를 피우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입술을 핏물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을 거다. 정말이라니깐?

www.ploom.kr 가격 40,000원



58. 루미녹스 'Snow Patrol' Colormark 3057.WO

루미녹스의 베스트셀러 시리즈 'Colormark'가 겨울에 어울리는 올 화이트 '스노우 패트롤'을 출시했다. 혹한기에도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상남자라면 패션과 기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미림시계(02-757-9866)

가격 440,000원



59. 이세이 미야케 플리즈 시리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이세이 미야케 워치가 영국의 디자이너 Jasper Morrison을 만났다. 시계 곳곳에 자리잡은 주름 패턴이 시린 한겨울에도 당신의 손목을 빛나게 한다.

삼정시계(02-511-3182)

가격 350,000원



당신을 골추세울
에로틱한 선물들



61. 메리 스위트박스 페이스/보디 세트

상남자 향 가득한 제품들을 끊임없이 내놓는 스위트의 크리스마스 종합 선물 세트다. BB크림과 올인원 로션으로 구성된 '페이스 세트'와 보디 향수 샤워젤과 보디 향수 스프레이로 구성된 '보디 세트' 두 가지 라인이 출시되었다. 연말 결산 드림팀 같은 느낌이었을까.

www.swagger.kr

가격 페이스 세트 50,000/보디 세트 35,000원



60. 허니매니아 바디 버터 200ml

여자들은 너무 강렬한 향수 냄새보다 오히려 달달하고 은은한 꽃 향기를 더 좋아한다. 버터를 따서 몸에 바른 후 체온으로 녹이며 흡수하는 제품. 당신의 몸을 살살이 핏는 그녀를 생각하며 기쁘게 쳐바르자.

www.thebodyshop.co.kr

가격 24,000원



62. 대화 슷누에 파워그라 60포

체력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기운 없는 남성들에게 요즘 각광받는 제품이 바로 슷누에다. 아직 교미도 못해 본 수컷 누에를 잡아 마, 구기자, 복분자, 산사지 등 정력에 좋다는 건 다 같이 넣은 건강 보조 식품. 진정한 정력남이라면 이것저것 다 쳐먹어 봐야 하지 않겠어?

가격 10만 원대



63. 커플이아 르네상스핑크 AC7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는 작고 반짝이는 물건에 대한 로망이 있다. '커플이아'의 르네상스핑크 AC75는 로맨틱한 핑크골드와 고급스러운 커팅 디자인이 돋보이는 고크일의 커플링이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절대반지를 선물해 그녀를 당신의 크리스마스 이브 노예로 만들어 보자.

070-8972-1250 가격 552,000원



64. 더파트먼트 커플 스냅백

<런닝맨>에서 송지호가 자주 쓰고 나온 스트리트 브랜드 '더파트먼트'의 스냅백. 화려하지 않고 포멀한 느낌이라 부담스럽지 않으니 마음에 드는 그녀에게 선물하며 은근슬쩍 커플 분위기를 조성하자.

www.thepartment.co.kr 가격 42,000원



65. Man Eaters From Outer Space

우주에서 온 무시무시한 괴물이 보드라운 입을 찹 벌리고 있다. 뭐라도 물려 주고 싶은데, 사이즈가 딱 고만하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www.bururu.com 가격 68,000원



66. 섹스 주사위

매번 똑같은 패턴의 섹스가 지겹다면, 주사위를 이용해 랜덤의 모미를 한껏 즐겨 보자!

구매 대행, 가격 \$4.99



67. 사가미 오리지널 0.02 12개입

우리 사이의 거리는 0.02mm. 은도 전달력이 좋은 폴리우레탄 소재가 한껏 뜨거워진 그녀의 체온을 그대로 당신에게 전달한다. 맛 뜨거! 가격 3만 원대



68. 반8 30CM 엑스레이 뼈 드로우즈

몸 속을 훤히 비추는 전구, 말 그대로 '불알'이 그려져 있는 남성용 팬티. 허반신이 알아서 "나, 밝히는 남자야." 라고 외치고 있어.

www.ban8.co.kr 가격 16,100원



69. GALAKU SUI LOVE DUCK

이 귀엽고 깜찍하게 생긴 오리랑 그녀를 물 속에서 부르르 떨게 만들 요물이라니! 욕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방수 바이브레이터다.

www.bururu.com 가격 48,000원



MAXIM

ZIPPO NIGHT x The MAXIM HALLOWEEN PARTY

MAXIM이 Zippo와 함께
백와 살이 타는 밤을 보냈으니... BY 김희성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임상미



할로윈데이 며칠 전부터 MAXIM 사옥이 위치한 홍대 주변은 온갖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로 넘쳐났다. 흡혈귀, 아수라 백작, 프랑켄슈타인, 좀비로 변신한 남자들부터 바니 걸, 엘리스, 어우동, 처녀 귀신으로 분한 여자들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는 분장 스케일이 가히 장관이었다. 길거리뿐만이 아니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각종 할로윈 파티 사진으로 도배가 됐다. 작년 이맘때 에디터가 할로윈 파티에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이 “부럽다”, “신기하다”는 반응이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1년 새 할로윈데이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웬지 쓸쓸한, 크리스마스 와 비슷한 날이 되어 있었다.





11월 1일 금요일, MAXIM은 아주 핫한 할로윈 파티를 도모했다. 10월 31일 할로윈데이가 아닌 다음 날을 거사일로 정한 건 그날이 금요일인데다, 할로윈데이가 당일 파티에 못 간 중생과 이미 할로윈 파티를 한 차례 달리고도 여운을 주체하지 못하는 열혈 클러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올해 마지막 할로윈 파티를 열기로 한 우리는 이전에 없던 세시한 할로윈데이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격전지로는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 지하에 위치한 CLUB EDEN(에덴)이 낙찰됐다. 내친 김에 ZIPPO(지포)와도 함을 맞췄다. 핫하기로는 어디 가서 안 빠지는 MAXIM과 남성미 넘치는 라이터 브랜드 ZIPPO가 만나니 파티 분위기는 이른 시간부터 활화산 그 자체였다.



Party



2010 MISS MAXIM 우승자 최혜연



자정이 넘어서자 클럽 안은 다양각색의 코스프레를 한 클러버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좀비, 드라큘라, 건담, 군인, 이름 모를 괴물 등으로 변신한 수컷들과 메이드, 고양이, 노는 고딩, 악마, 간호사로 변신한 암컷들이 한데 어우러져 파티의 열기를 더했다. 에디터는 이 날을 위해 옷장 안에 고이 모셔뒀던 간호사복을 봉인해제했다. 소품으로는 주사기와 약병, 청진기를 챙겨갔다. 집에 갈 때쯤 보니 죄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내 가슴에 걸어둔 청진기는 누가 가져갔어?!





2013 MISS MAXIM TOP2 이아경, 김소희



"ZIPPO Lucky Draw 당첨!"



파티장을 진짜 '에텐'으로 만든 건 곳곳에서
 놓고 있던 MISS MAXIM이었다. 고양이
 코스프레를 빙자해 전신 호피슈트 차림을
 하고 오질 않나, 코르셋만 입고 섹시 악마로
 변신하질 않나... 이날 우리에게 온통 감사한
 일 투성이었다.
 우리에게 펼쳐진 행운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녀들은 어느샌가
 쌍을 지어 봉 하나를 부여잡고 더블 봉춤을
 시전하고 있었다. 클럽 이름이 괜히 에텐이
 아니었다. 내가 아담이라면 넌 이브, 그곳에
 있는 수컷들은 모두 갈빗대라도 빼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지. 🐾



PHOTOGRAPH 윤성욱 VIDEO 김상수



MAXIM BUYER'S EDGE

울트라 드라이 스킨 크림으로 뽀송한 피부 만들기
영국의 오가닉 브랜드 디 오가닉 퍼머시(The Organic Pharmacy)가 겨울 찬바람에 건조해지고 갈라진 피부를 감싸줄 울트라 드라이 스킨 크림을 출시한다. 천연 재료인 로즈힙을 함유해 각질이 벗겨진 피부와 아토피 피부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손뿐 아니라 몸 전체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 겨울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 갈라지는 피부는 이제 안녕! 76,000원(100ml), 디오가닉퍼머시(02-2058-2002)



JK에서 상담만 받아도 엄청난 혜택이~★

<p>JK호텔 스위트룸 무료 이용권(1박) (주말을 포함)</p>	<p>JK 커피 무료 시음권 (당일차로 모든 브랜드)</p>
<p>JK스파 & 에스테틱 FACIAL CARE 쿠폰 (이용 시마다 1명당 1개씩)</p>	<p>Dr.JK BB크림 (200원 100원)</p>

문의전화 02.777.7797

JK성형외과와 카카오톡 친구 맺어?

대한민국 대표 성형외과 JK성형외과가 해외 환자 유치 부분 3년 연속 최우수의료기관 표창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 방법은 간단하다. JK 성형외과 카카오톡과 플러스 친구를 맺고 상담만 받으면 이벤트 응모 완료! 이벤트 경품은 JK 호텔 스위트룸 1박권! 또 상담 후 수술 예약까지 하면 모바일식 시술을 89만 원에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JK성형외과와 플친 맺고 훈남 되고 선물 받고 색다른 잠자리도 경험해보자!

JK성형외과(02-777-7797, www.jkplastic.com)

강한 남자의 향, 프라다 루나로사 익스트림

국제 요트 경기 아메리카컵의 인기 팀인 루나로사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프라다 루나로사가 더욱 강해져 돌아온다. 기존의 부드럽고 상쾌한 향은 유지하면서 강렬하고 남성적인 분위기를 더한 루나로사 익스트림은 강렬한 향으로 남자의 강한 승부욕을 자극한다. 견고한 메달의 병은 루나로사팀의 요트 디자인을 본떠 역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향수를 뿌리면 남자의 승부욕이 넘쳐서 으르렁 으르렁~으르렁대. 92,000원(50ml), 127,000원(100ml), (주)씨이오인터내셔널(02-3443-5050)



갑작스런 러브러브엔 ZINI S-SOLUTION ABSOLUTE CLEAN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갑작스러운 러브 시추에이션에서 명랑하고 상큼한 교감을 위해 ZINI 러브 로션 S-SOLUTION을 추천한다. 은은하고 감성적인 향과 위치하젤 성분을 함유해 자칫 볼레할 수 있는 냄새를 잡아준다. 또한 사용 후 물티슈로 닦아 내기만 하면 진존감을 거의 느낄 수 없는 눈위시 타입의 워터베이스 러브로션으로 편리하고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번 크리스마스, 가방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불시에 닦쳐올 사랑에 대비하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깐! 22,800원, 부르르닷컴(1661-7725, www.bururu.com)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은
커플이아
www.couple2ya.com
결혼하면 커플이아로 결핵해 보세요.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은 '커플이아'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그녀의 마음을 녹일 선물을 찾고 있다면 주목하자. 모든 커플들의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 커플이아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디자인의 커플링을 만날 수 있다. 자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배송해 시간을 단축하고 유통 과정의 거품을 없앴다. 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금 함유량을 분석하는

등 커플링 대표 기업으로서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자들이 말하는 힐링이 Hill과 Ring이라는 건 알지? 쇼미더 힐! 링! 커플이아(070-8972-1250, www.couple2ya.com)



역사에 길이 남을 UFC 168, 와이드먼 vs 실바 2차전
 격투의 신 앤더슨 실바를 무너뜨리고 챔피언에 등극한 UFC 미들급 챔피언 크리스 와이드먼 그 둘이 오는 12월 29일 UFC 168에서 재격돌한다. 새로운 챔피언 크리스 와이드먼이 왕좌를 지킬 것인지, 앤더슨 실바가 왕좌를 재탈환할 것인지 UFC 168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또 UFC 여성 밴텀급 초대 챔피언 룬다 로우지가 미샤 테이트를 상대로 1차 방어전도 펼친다. 둘다 꽤 미녀이니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지? UFC 168은 12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수퍼액션을 통해 HD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2013년의 마지막 슈퍼 선데이인 수퍼액션과 함께 수퍼액션(080-080-0780)



곤지암리조트 미타임V 멤버십, 슬로프를 내려가면 혜택은 올라가요!
 스키장 놀러 갈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는 겨울! 곤지암리조트가 스키어들과 스노우 보더들을 위한 미타임V 멤버십을 선보인다. 곤지암리조트 이용자가 멤버십에 가입하면 미타임V 카드를 받는데 여기에 리프트 이용 시간이나 스키 이용 시간이 누적되어 포인트가 적립된다. 30, 50, 100시간, 누적 시간에 따라 SMS 알림을 통해 누적 시간 마일리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스키 강사의 원 포인트 레슨 기회 및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올겨울 곤지암에서 재미를 활활 불태워 보자!
20,000원(카드 발급비),
 곤지암리조트(1661-8787, www.konjiamresort.co.kr)



말자. 볼스원 퍼스트클래스 워시&왁스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자동차 관리하세요!
8,500원(530ml), 볼스원몰(080-500-2970, www.bullsonemall.com)

내 차가 회춘한다! 볼스원 퍼스트클래스 워시&왁스

꼬질한 내차를 깨끗하게 변신시켜줄 볼스원 퍼스트 클래스 워시&왁스가 출시됐다. 세정과 왁스 성분이 2개 층으로 분리되어 흔들어서 사용하는 신개념 제품. 리퀴드 파라핀 왁스 성분이 있는 파란색 제품은 유색 차량용이며, 노란색 제품은 흰색 차량용으로 찌든 때를 특수 세정 성분으로 말끔히 제거한다. 고농축이라 소량으로도 깔끔하게 세차할 수 있으니 이제 비싼 돈 주고 세차하지

SONY 게임패드는 게임홀더를 만나 완벽해진다

스마트폰 게임을 SONY 게임 패드로 조작한다면 얼마나 신날까? 모바일 업체 파인의 브랜드 게임홀더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연결 제품인 게임홀더를 선보인다. 게임홀더는 스마트폰을 듀얼쇼크3 게임패드와 연결해 게임패드로 쉽게 스마트폰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든 제품. 연결을 안 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거치대로 쓸 수 있으며 26° 경사 구조라 사용이 편리하다. 역시 게임은 패드로 해야 게임하는 맛이!



게임홀더(070-8235-9693, game-holder.com)



2013의 피날레는 맥스 아웃 코리아 NYE 카운트다운 2014!

12월 31일 킨텍스에서 초대형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페스티벌 맥스 아웃 코리아 NYE(New Year's Eve) 카운트다운 2014가 개최되어 2013년의 끝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부터 시작해 일본, 중국, 대만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국내외 최고의 디제이 20여 팀이 출연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특히 지난 11월에 열린 공식 프리 파티(Pre-Party)에서 환상적인 디제이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마셜 우즈도 만나 볼 수 있다. 티켓은 인터파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MAXIM PARTY에 못 가면 여기라도!
110,000원(레귤러티켓),
150,000원(VIP티켓),
 맥스아웃코리아(maxoutkorea.com)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가까워진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러!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홈페이지
전역 인증
게시판



간헐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세 가지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쓴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1명에게 멋진
'블랙다이아스'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12월 20일까지)

전역자랑깁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기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정승원
평생 30%
아직 갈 길이 먼 후임들아, 나에게 욕먹느라 고생했다. ㅋ 그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너희도 잘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바깥 공기 참 좋다. ㅋ 곧 행군할 텐데, 내가 주는 MAXIM 보며 에너지를 채워라!



전진배
평생 30%
상언어 보고 있느냐? 이렇게 전역 인증을 한다. 나의 군 생활을 너희와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고, 레바논에 파병도 가고... 정말 군대에서 좋은 거 많이 얻어간다. 너희도 조금만 더 고생해라. 내가 일찍 와서 일찍 가는 것뿐이다 뽕!



이창한
평생 30%
와 드디어 전역... 가끔 힘들 때 어디선가 나오는 MAXIM 잡자들... 선임의 선임, 그리고 그 선임이 보던 옛날 MAXIM까지 있었는데, 그 MAXIM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다. MAXIM 화이팅! MAXIM 정기 구독 할인 쿠폰 주세요!



정도진
평생 30%
안녕? 102 본부포대. 나 없어도 잘 지내지? 뉴스를 보니 올해 겨울은 더 춥고 더 오래간다고 하더라. 깡깡이 잘 챙겨 입어 운전병이었던 내가 항상 MAXIM을 사서 내무실에 뿌렸는데 이제 내가 없으니 누가 MAXIM을 사오는지 궁금하구나. 오늘 저녁에는 휴가 나온 동화를 만나서 회 사주기로 했다. 내가 너희한테 많은 사랑 받았던 만큼 너희가 연락한 하면 내가 많은 사랑 베풀어. 항상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포병의 자부심을 잊지 말자. 본부포대 수송부 화이팅!



정동규
평생 30%
가을이다. 직업하기 좋은 날씨! 오늘도 경비 4소대는 하루하루 직업의 연속이라는 자옥에서 살겠지. 탈영의 유혹을 힘겹게 이겨내며 고된 노동에 몸부림치고 있을 거야. 아마 이쯤이면 가건물에서 새 건물로 내무실 이사를 마쳤겠네. 그래서 너희가 한계를 가능할 수 없는 직업의 바다에서 방황하지 말라고 MAXIM 과월호를 보내주겠다. 남 얘기 같았던 MAXIM 전역 인증을 올리니 기쁘구나! 다들 멋진 남자가 되길!



이현수
평생 30%
집에 오자마자 전역 인증한다. 이제 진짜 추워질 텐데... 어떡하니 너희... 초소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너희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ㅋ ㅋ 힘내라 후임들아! 형도 다 겪었고, 이겨냈다.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막상 전역하니 시원섭섭하더라. 그렇다고 부사관 지원한다는 건 아니다. ㅋ 형이 과월호를 너희에게 꼭 보내주려고 이렇게 인증한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받고 근무 열심히 하고, 몸 건강히 전역하기 바란다. 화기 분대 고생해라.



박건
평생 30%
뭐하냐? 선임 보면 경례를 해야지! 기합 빠져갔고, ㅋ 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고생이 많다. 샤워는 했냐? TV도 안 나오지? 요즘 인터넷은 되냐? 아 ㅋ 진짜 빨리 나와라. 전역이 답이야. 무조건 진짜. ㅋ ㅋ 어떡하니 너희... 어휴 ㅋ ㅋ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는 걸 어떡해. 나오면 연락해라. 술 한잔 하자. 사랑한다.



황현중
평생 30%
난 그렇게 떠나갔지. 군대가 제일 편하다는 거 다 뻔임. 어디서나 다 힘들. 근무 제대로 안 하면 트위터에 트윗해버릴 거야. 형은 홍콩 갔다 올게. 아니 홍콩에 있구나. 홍콩에서 홍콩을 맛보고 올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열심히 일하렴! 안녕.



이영욱
평생 30%
속이 무척 후련하고 날아갈 것 같았던 전역인데, 막상 전역하니까 이상하게 섭섭함이 더 많이 느껴진다.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했던 시간이 벌써 그리워서 그런 것 같아. 힘들었던 것보다는 즐거웠던 시간이 많았던 나의 군 생활은 결국 너희와 함께 만든 거니까.^^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하니까 지금 나의 라이프는 재미가 없어.ㅠㅠ 그래도... 재미가 없어도 뉘이 나온 거 같아. ㅋ 전역하니까 병장들도 불쌍해. ㅋ 그냥 군인이 불쌍해. ㅋ 어서들 전역해라. 형이 너희 전역할 때까지 심심하지 말라고 MAXIM 보내준다. 전장비 잘하고 유격 잘 받고, 이제 눈 온다고 하니가 제설 잘해라. 아 로맨틱한 첫눈이 어서 왔으면... ㅋ ㅋ 사랑해♥



양재성
평생 30%
이제 전역한 지 10일 됐는데 그때 너희와 놀던 게 그림다. ㅋ ㅋ 그렇다고 지금 유격 뛰고 있는 너희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ㅋ ㅋ 나중에 나 유격 안 뛰었다고 놀리면 어떻게 하나? 나는 MAXIM 할로윈파티 갈 테니까 너희는 밖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유격 열심히 뛰어라! 나라를 부탄할게! 시간은 분명히 간다. 좀 많이 안 가서 문제지. ㅋ 빨리 나와라. 술 한잔 하자. 보고 싶다. ㅋ 뽕이 쳐라. 난 빨리 돈 벌어서 정기 구독해야지!



이윤석
평생 30%
덕도야, 나 전역했다.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고, 밥도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좋겠지? 내가 전역하면 MAXIM에 전역 인증한다고 했지? 12월호에 올라가면 다른 애들한테도 말해줘.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데... ㅋ ㅋ 백령도의 겨울은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해... 어휴, 내가 보내준 과월호 보면서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다!

위 11명은 비롯한 총 280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구독 평생 30% VVIP**가 되었다.

2014년 신입사원 정기 공채 / 경력직 편집 디자이너 채용

세계 85개국에서 발행되는 최강의 글로벌 남성 매거진 MAXIM의 한국 법인에서 2014년 정기 공채를 실시합니다.
MAXIM과 함께 지구 최고의 매거진에서 커리어를 쌓아 나갈 재치있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소속	편집부		
모집 직군	매거진 에디터 (신입)	편집 디자이너 (신입)	편집 디자이너 (경력직 또는 팀장급)
모집 인원	0명	0명	0명
전형 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 ▶ 3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 2차 과제전형 ▶ 3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포트폴리오 필수) ▶ 2차 면접전형
모집 일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 2013년 11월 28일 ~ 2014년 1월 10일 18시까지		〈입사지원서 현재 접수 중〉 필요 인원 채용시 마감
접수 방법	MAXIM KOREA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접수 ※ 홈페이지 하단 메뉴 RECRUIT 클릭 ※ 정확한 방법 외로 접수한 경우 정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 시간은 영문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증명 사진이 있어야 하며, 오차를 소지 않아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1차전형(서류) 합격자 발표 2014년 1월 17일 18시		
이후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이후 일정 통지		
필수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2014. 2월 졸업 예정)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 전공 무관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2014. 2월 졸업 예정)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 전공 무관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졸업 이상 인쇄 매거진 편집 디자이너 경력 24개월 이상 인디자인 등 Adobe 프로그램 활용 가능 디지털 매거진 제작 경험 6개월 이상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기획 기사 작성 화보 촬영 디렉팅 섭외 기타 MAXIM 매거진 콘텐츠 제작 업무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거진 편집 디자인 디지털 매거진 제작 전자출판 관리 웹디자인 기타 디자인 관계 업무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거진 편집 디자인 디지털 매거진 제작 전자출판 관리 및 웹디자인 편집디자인팀 신입 직원 관리 기타 디자인 관계 업무 전반
적성 및 우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문 능력이 있으며 유머 감각이 뛰어난 자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자 영어, 기타 외국어 능력 우수자 에디터, 기자, 어시스턴트, 수습 기자 등으로 일한 이력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능력이 있는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 MAXIM 매거진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자인 등 Adobe 툴 사용이 능숙한 자 지면 구성, 시각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자 시각디자인학과 또는 관련 전공자 우대 관련 직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 MAXIM 매거진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장 근무 경력 우대 Adobe DPS로 디지털 매거진 제작, 발행 경험자 우대 시각디자인학과 또는 관련 전공자 우대 어플리케이션 제작 경험 우대 영문 매뉴얼 독해 가능자 우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 남자의 경우 군필자 우대 MAXIM 매거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근무 형태	인턴직: 사내 규정상의 인턴 기간 동안 근무하고, 인턴 기간 동안의 업무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승진 급여 조건과 복리 후생: 사내 규정에 따름		정규직 (3개월 근무 후 계약 전환) 급여: 협의 복리 후생: 사내 규정에 따름
근무 장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빌딩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기타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recruit@maximkorea.net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recruit@maximkorea.net

〈서류 전형 면제자〉

대상자: MAXIM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 자. (어시스턴트, 대학생인턴십, 아르바이트 포함) 단, 필수 지원 자격은 갖추어야 함.
특징: 서류전형 통과 (근무했던 부서와 다른 부서 지원 가능)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상의 (서류전형 면제자)란에 체크하고, 자기소개서 없이 입사지원서만 작성하여 접수할 것.

〈MAXIM KOREA 편집 디자이너 경력직 채용〉

위 채용 공고 표에서 우측 첫 번째 줄 내용 참고

〈문의 사항〉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recruit@maximkorea.net으로 이메일 문의 바람이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Unpicked

이달의 몸쓸 사진

왜 찍었는데 쓰질 못하니!



에디터 양반, 거 좀 쉬엄쉬엄 하지?

이달의 노동력 착취



ICON 이현도(p.82)

못 쓴 이유 허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마오리족 같아서, 죄송해요, 현도 형... 빨리 찍고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싶었어요.



이달의 놀란 표정



HOW TO 수능 맥심고(p.129)

못 쓴 이유 정해진 에디터가 김희성 에디터의 머리채를 붙잡고 괴롭히는 것 같아서, 해인 씨, 학창 시절에 면도날 좀 씹었나 봐?



이달의 느끼는 표정



MUSIC 덕평스(p.96)

못 쓴 이유 덕평스 멤버 김재홍, 박가람이 X폭자를 너무 느끼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려지들 마...



야...미떼...

FBI WARNING

Federal Law provides severe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for the unauthorized reproduction, distribution, or exhibition of copyrighted motion pictures (Title 17, United States Code, Sections 505 and 506).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nvestigates allegations of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Title 17, United States Code, Section 506).

이달의 FBI WARNING



MISS MAXIM 걸승 화보(p.138)

못 쓴 이유 에디터가 마치 MISS MAXIM 아이영과 김소희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는 것 같아서, 해헛.



이달의 거울 공주



강예빈 표지 화보(p.87)

못 쓴 이유 거울을 보며 너무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 같아 보여서, 예빈 씨는 거울 안 봐도 예뵤요!

Fortune Telling

타로로 꿰뚫어 보는 상사의 속마음

12월 달력을 빼곡히 메운 송년회에서 현란한 야무 스킬을 시전해 회사 생활을 편하게 만들고 싶은 직장인들은 주목하라. 이번 달엔 열 길 물속보다 알쏭달쏭한 상사의 마음속을 훤히 비춰주겠다!

BY 타로마스터 정희도(www.tacaso.net)

다음 중 당신의 상사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는 카드 한 장을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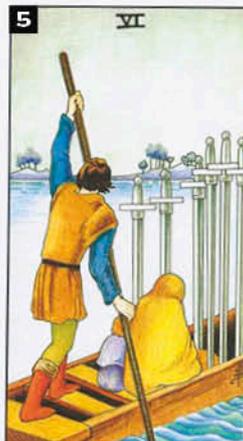


카드 뒷면에 숨겨진 진실



타로마스터 정희도

- 전 마이더스 학원 운영
- SBS 공채 10기 개그맨 활동
- YBM, 파고다 타로 취업 특강 강사
- 타카스(타로 카드 소울 메이트) 운영



◆ 타로 풀이 보기 ◆

CARD 1 무관심형

남들은 하나만 가져도 감지덕지한 황금잔을 눈앞에 세 개나 두고, 하나를 더 주겠다고 꼬셔도 저렇게 동한 표정이라니. 지금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무료하고 싫증 난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풀이: 당신의 상사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 아무리 딸랑거리며 이런저런 선물을 쥐고 시큰둥할 것이다. 축 늘어진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취미를 제안하는 건 어떨까? “과장님, 주말에 저랑 콜라텍 가서 사교댄스 배우실래요?”

CARD 4 집착형

동전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남자는 다른 하나를 가슴팍에 꼭 끼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동전 두 개를 양팔로 잡고 있다. 마치 인생에서 저 동전 네 개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듯하다.

풀이: 집착형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극소수의 관계에 무서운 집착을 보이는 타입이다. 그가 당신의 야무에 별 반응이 없다면 이미 박 대리랑 쿵쾅쿵쾅 놀아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웬만한 각오 아니라면 이 상사에겐 베풀지 말자.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 게 상책.

CARD 2 경계형

한 남자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잔뜩 긴장하고 서 있다. 머리에 감은 붕대를 보니 이미 여러 차례 피 투기는 투쟁을 치렀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잔뜩 긴장한 눈빛이 곧 레이저라도 쏠 것 같다.

풀이: 당신이 상사의 환심을 사려 이 페이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역시 뒷선에 잘 보이고 싶어 눈치를 보고 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좀 더 편하게 뒷선에 아무랄 수 있게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센스를 발휘하자.

CARD 5 동상이몽형

가족을 데리고 물레 떠나려는 남자. 앞에는 칼이 서 있고, 가족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다. 아무래도 아반도주를 하는 모양이다.

풀이: “나만 믿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상사만 믿고 개처럼 일해 온 당신. 고속 승진의 길이 새벽의 한산한 8차선 대로처럼 뿔 뿔된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는 미소를 보이며 말한다. “수고 많았네. 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됐어. 빠이.” 당신의 8차선 대로가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순간이다.

CARD 3 지화자형

당실명실 춤을 추며 “치얼~스!”를 외치는 저 세 명의 여자는 하루 이틀 노는 멤버가 아닌 것 같다. 이 신명나는 누나들은 365일 지화자다.

풀이: 당신 상사는 회식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다. 입에 발린 소리를 좋아하는 그는 당신의 야무도 유쾌하게 받아준다. “김 대리는 앞으로 나만 믿어.”라는 말에 안심하고 있었나? 그는 야무만 잘 떠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웰컴. 내일은 이 대리, 모래는 박 대리한테 그 말을 할 거다.

CARD 6 전전긍긍형

남자는 칼에 찔릴까 봐 두려워하지만, 정작 칼은 그를 찌르지 않을 거다. 이 울보는 눈을 가진 채 머릿속으로 이상한 시나리오를 쓰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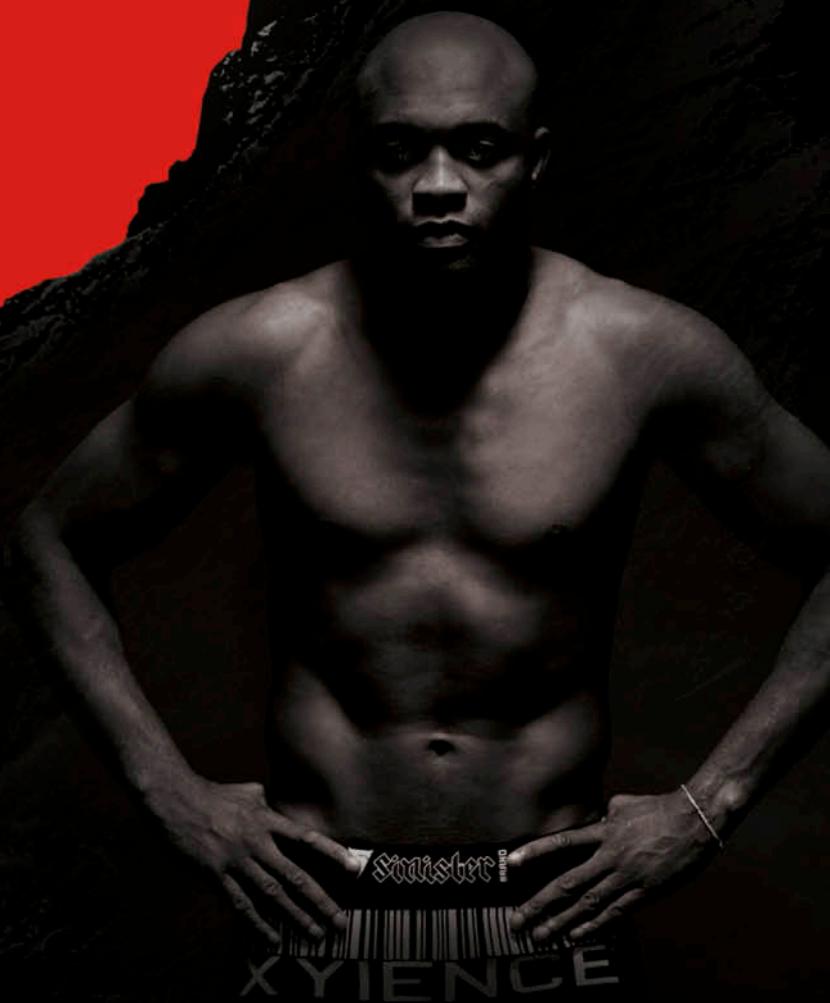
풀이: 상사가 요즘 날카롭지 않나? 그는 업무뿐만 아니라 전화를 안 받는 여자 친구, 쿵명 안쪽에 난 여드름 때문에 짜증이 나 있다. 이런 유형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늘 달고 사는 피곤한 스타일. 장수하고 싶으면 얼른 다른 라인을 타는 게 좋을 거다.

“챔피언의 욕심은 없다
다만,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고 싶을 뿐”

앤더슨 실바 챔피언 재도전

미들급 세계 챔피언전

UFC[®] 168



12월 29일(일) 오전 11시 30분
수퍼액션 독점 생중계

**SUPER
ACTION**

MAXIM

KOREA

ICON

이현도

인터뷰 어록 5

- 영육아 정환아, 그땐 미안했다!
근데 구라는 아니잖아!
- 내가 갱스터 새끼를 키웠어!
- 공은 나를 제칠 수 있어도
사람은 그럴 수 없어!
- 고소영, 너 공부 못했잖아.
- 내가 백커버라니,
이건 좀 아니지?

Motor Special

A to Z:
Formula One

& More

- 닛산 쥬크 : 새로 전학왔어요!
- 링컨 MKZ : 나 성공했어요!
- 포드 머스탱 : 간지 터져요!
- 미니 페이스맨, 캔암 스파이더 트라이크 :
저희 MAXIM 나왔어요!

음악 잘하고 웃긴 놈들

Dick Punks

딕펄스 거시기가 터졌다고?

Game

사지 아작 내는 극한의 쾌감!
인체 상해 모바일 게임
누가 게임을 바약이라?
잘나가는 신작 4선

Money

에디터 노동 착취
군밤 알바 얼마 벌게

Real Monster

13인의 최강 파이터를
조합해서 만든 괴물 같은 놈

DECEMBER 2013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12